

이 연구결과는 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2020. 1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용(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안승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2019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배 규 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방향	1
제2절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2020년 4월 제출)	2
제3절 연구구성	5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6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6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12
1. 사회적기업의 분포	12
2. 사회적기업 지원금	15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34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34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5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41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48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72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79
제4장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 분석	85
제1절 재정성과: 수입구조 분석	85
1. 매출액	85
2. 영업이익(손실)	103
3. 당기순이익(손실)	112
제2절 지출: 비용구조 분석	126

1. 매출원가	126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132
3. 영업외비용	137
4. 노무비	142
제3절 기타 성과지표	152
1. 노동생산성	152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155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171
 참고문헌	 185

표 목 차

<표 1- 1>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5
<표 2- 1>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7
<표 2- 2> 2020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8
<표 2- 3>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9
<표 2- 4> 사회적기업 주요 금융지원 세부내용	10
<표 2- 5>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0년)	10
<표 2- 6>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13
<표 2- 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14
<표 2- 8>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19
<표 2- 9> 지역별 지원금	21
<표 2-1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23
<표 2-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26
<표 2-1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27
<표 3- 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수	37
<표 3- 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38
<표 3- 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40
<표 3- 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41
<표 3- 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	43
<표 3- 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45

<표 3- 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46
<표 3- 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47
<표 3- 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48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51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및 지역인구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54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5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6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7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8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61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3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6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73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74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76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77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81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금액	82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금액 추이	84
<표 4- 1> 지역별 매출액	95
<표 4- 2>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109
<표 4- 3>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116
<표 4- 4>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130
<표 4- 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131
<표 4- 6>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135
<표 4- 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136
<표 4- 8>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140
<표 4- 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141
<표 4-10>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145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146
<표 4-12>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153
<표 4-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154
<표 4-14>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156
<표 4-15>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7
<표 4-16>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8
<표 4-17>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8
<표 4-18>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59

<표 4-19>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60
<표 4-20>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60
<표 4-21>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161
 <표 5- 1>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171
 <부표 1> 표준산업분류별 일반현황(2019)	175
<부표 2> 표준산업분류별 사회적 성과(2019)	177
<부표 3> 표준산업분류별 경제적 성과(2019)	178
<부표 4> 지역별 일반 현황(2019)	180
<부표 5> 지역별 사회적 성과(2019)	182
<부표 6> 지역별 경제적 성과(2019)	183

그림목차

[그림 1- 1] 2019년 사업보고서(2020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3
[그림 2- 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12
[그림 2- 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16
[그림 2- 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17
[그림 2- 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18
[그림 2- 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19
[그림 2- 6] 일반지원금 구성비	20
[그림 3- 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5
[그림 3-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36
[그림 3- 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추이	39
[그림 3- 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42
[그림 3- 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44
[그림 3- 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49
[그림 3- 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50
[그림 3- 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0
[그림 3- 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2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3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0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2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4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5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72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	78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인원 비율	79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80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80
 [그림 4- 1] 매출 총액	85
[그림 4- 2] 매출액 분포	86
[그림 4- 3]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6
[그림 4- 4] 공공매출 총액	87
[그림 4- 5]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	87
[그림 4- 6]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8
[그림 4- 7] 민간매출 총액	88
[그림 4- 8]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	89
[그림 4- 9]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9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분포	90
[그림 4-11] 연도별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0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	91
[그림 4-13]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1
[그림 4-14] 연도별 민간매출액 분포	92
[그림 4-15]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92
[그림 4-16]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3
[그림 4-17]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3
[그림 4-18]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4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97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98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98
[그림 4-22]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99
[그림 4-23]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100
[그림 4-24]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100
[그림 4-25]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101
[그림 4-26]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102
[그림 4-27]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103
[그림 4-28]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104
[그림 4-29] 영업이익 분포	105
[그림 4-30]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06
[그림 4-31]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분포 비교	107
[그림 4-32]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08
[그림 4-33]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108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10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11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11
[그림 4-3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112
[그림 4-38]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113
[그림 4-39]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13
[그림 4-40]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114
[그림 4-4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14
[그림 4-4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115
[그림 4-4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116
[그림 4-4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7
[그림 4-4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8
[그림 4-4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9
[그림 4-4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126
[그림 4-48] 매출원가 분포	127
[그림 4-49]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127
[그림 4-50] 연도별 매출원가 분포 비교	128
[그림 4-51]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128
[그림 4-52]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129
[그림 4-53]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132
[그림 4-54]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133
[그림 4-55]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133
[그림 4-56]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134
[그림 4-57]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134
[그림 4-58] 영업외비용 총액	137
[그림 4-59]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138
[그림 4-60]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비율	138
[그림 4-61]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139

[그림 4-62] 연도별 노무비 금액	142
[그림 4-63] 노무비 분포	143
[그림 4-64]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143
[그림 4-65] 노무비 분포 비교	144
[그림 4-66]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144
[그림 4-67]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152
[그림 4-68]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방향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 영역은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이후(대한민국정부, 2020),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추진되었으며(likms.assembly.go.kr), 복수의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었다(예: 길현중 외, 2018, 2019). 사회적기업 영역에서도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었으며(likms.assembly.go.kr),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필두로 다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또한 제시되기도 했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러한 변화는 현재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정부 부처는 꾸준히 활성화 대책을 발표·시행 중에 있으며(본문 제2장 참고), 비록 지난 수 년 간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전환 역시 여전히 정책 논의 주제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likms.assembly.go.kr). 이 중에서 특히 등록제로의 전환은 지난해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둔 본 성과분석 연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길현중 외, 2019). 이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본 성과분석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정책 영역은 커다란 변화 속에 위치한 일종의 과도기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성과분석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수가 존재하기에, 올해 연구는 지난해 연구와 마찬가지로 구성이나 내용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2019년에 성과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매년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시되는 양적 성과부분은 2018년 성과분석과

동일한 틀을 유지해 비교가 용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2020년 본 성과분석 연구가 수행되는 시점은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범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시기이다. 비록 2020년 감염병의 위기는 2019년 사업성과를 제시하는 본 연구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 또한 큰 틀에서 정책연구에 부여된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심층분석 연구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주목적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심층분석 연구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책으로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주요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2020년 4월 제출)

본 성과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자료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이 중 2017~2019년 성과를 기술하여 2018~2020년 4월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원자료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양식은 총 네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길현종 외, 2013, 2018),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보고서는 2017년 개편되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오프라인 양식은 [그림 1-1]과 같다.

2020년 4월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2,352개소이다. 한국사회적기업 내부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2,405개소로 확인되며,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비율은 97.6%로 계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에 충실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2019년 사업보고서(2020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변경[]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기타[]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등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 액			천원(천원)			
④ 지원 내역	정부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그림 1-1]의 계속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 원	공공시장	천 원					
			민간시장	천 원					
	매출총이익	천 원	매출원가	천 원					
	영업이익	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영업외수익	천 원	노무비	천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 원	영업외비용	천 원					
	당기순이익	천 원	법인세 등	천 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환경[] 간병·가사 지원[] 산림[] 고용[] 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div>									

한편, 성과분석과 별개로 수행한 심층분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이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해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발표된 문헌자료와 여러 사회적기업 관련 주체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구성

언급한 연구방향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추가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표 1-1>의 순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 및 정책 현황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표 1-1>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향 ·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년 4월 제출) ·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분포,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제4장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 · 기타성과지표(노동생산성, 비취약계층 고용)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2장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의 개요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을 사업보고서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후자인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는 조직특성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이다.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본 고의 연구대상인 인증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염연초엽 등이 모두 포함된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다만 위 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체로 언급되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체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0).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정의와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공식 규모를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본 표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규모와 관련한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증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규모를 제시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수리·인가 조직 전체를 제시하고, 소셜벤처의 경우는 제시된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을 탐색해 조직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 통계 체계에서 제시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

체 규모의 총합이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라 보기는 어렵다.

<표 2-1>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의	규모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등)	<p>인증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p> <p>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p> <p>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p>	<p>인증 2,704개소 (활동기준: 2020년 11월) (www.socialenterprise.or.kr)</p> <p>예비 1,609개소 (2020년 10월; www.seis.or.kr)</p>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p>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p> <p>사회적협동조합: 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p>	<p>일반 16,633개소 사회적 2,456개소 (수리·인가기준; 연합회 제외; 2020년 11월 30일; www.coop.go.kr)</p>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p>“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2020: 1)</p>	<p>1,556개소 (2019년 12월; www.mois.go.kr)</p>
소셜벤처 (중소기업벤처부)	<p>“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중소기업벤처부, 2020: 1)</p>	<p>998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판별된 기업;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 2020: 1)</p>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p>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보건복지부, 2020a: 113)</p> <p>예비자활기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보건복지부, 2020a: 80)</p>	<p>1,176개소 (2019년 12월 31일, www.kdissw.or.kr)</p>

<표 2-2> 2020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 대학 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150만 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 경연대회		- 총 2억 원의 상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준비팀, 창업 2년 미만의 초기창업팀, 제도전 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후지원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공간 제공, 상시상담, 교육, 자원연계, 협업지원 등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업개발비		- R&D, 마케팅, 브랜딩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5천만 원 이내, 단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경영컨설팅		-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비용지원
	사회보험료지원		- 4년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
	판로지원		- 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 - 홈쇼핑, 백화점, 박람회 및 e-store 36.5+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한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확산
	금융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 자금으로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 등 지원
	민간자원 연계 프로그램		- 공공-민간의 연계 기반 조성, 참여기업 발굴 등
기타	용가지원		- 다양한 용자제도를 연계,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
	프로보노지원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또는 지역사회 협력 연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a: 31.

다음으로 <표 2-2>~<표 2-4>는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내역 및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진입 전 지원, 진입 후 지원, 그 외의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 중에는 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융자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이외의 지원은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모두에 지원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금융지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금융지원이 여러 전달체계 주체 통해 지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3>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월 200만 원/ 250만 원 한도 (인증 2,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인증: 연 1억 원 예비: 연 5천만 원 한도 * 자부담 10/20/30%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주: 1.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지원한 기업에 지원.

2.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0: 8.

<표 2-4> 사회적기업 주요 금융지원 세부내용

사업명	내용	주체
미소금융	-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정부 핵심 정책 분야 지원 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별 보증 운영	지역 신용보증재단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a: 38.

다음으로 <표 2-5>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포함 2020년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b). 본 표에 의하면 2020년 총 16개 중앙부처에서 56개의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즉, 다수의 부처에서 부처별로 여러 종류의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부처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2-5>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0년)

중앙부처	사업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 • 모태펀드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중소기업벤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 소셜벤처 육성 • 소셜임팩트 펀드 •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지원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예비창업패키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문화학교 운영 • 스포츠클럽육성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관광두레 조성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표 2-5>의 계속

중앙부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지원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활성화지원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육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기획재정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활성화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 어촌뉴딜3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b.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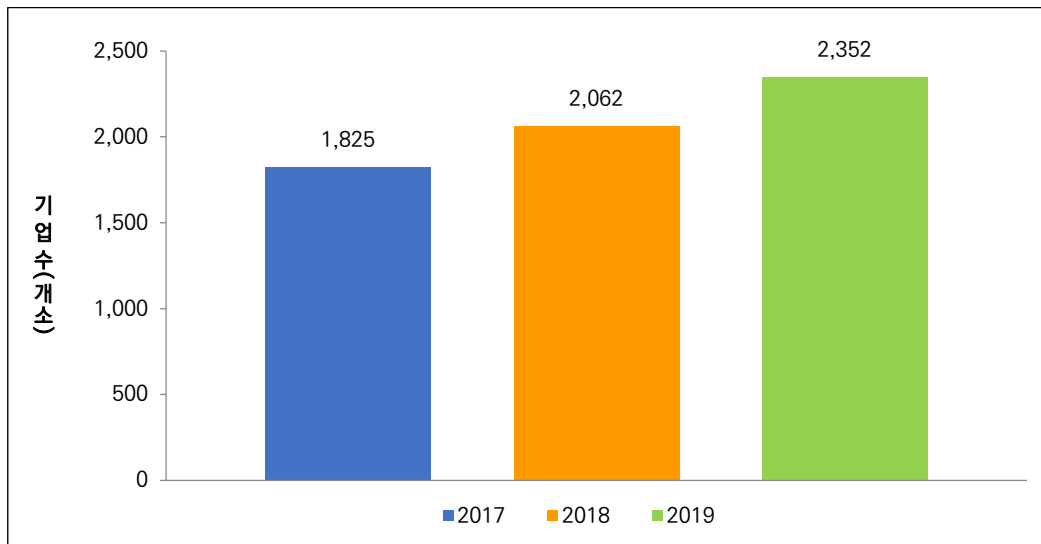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2019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1. 사회적기업의 분포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2,352개소로, 201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포함된 사회적기업보다 290개소 증가했다.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사업보고서 제출 인증 사회적기업의 분포를 지역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6>과 같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서울(19.1%)과 경기(17.0%) 지역으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36%가 해당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위치한 지역은 세종(0.5%), 제주(2.2%), 대전(2.8%), 대구(3.4%), 울산(3.5%) 지역이며, 이외에 다른 지역은 4.1~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2-6>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서울	450	19.1
부산	112	4.8
대구	81	3.4
인천	144	6.1
광주	108	4.6
대전	65	2.8
울산	83	3.5
세종	12	0.5
경기	400	17.0
강원	125	5.3
충북	101	4.3
충남	98	4.2
전북	139	5.9
전남	123	5.2
경북	146	6.2
경남	113	4.8
제주	52	2.2
전체	2,352	100.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으로 <표 2-7>는 이들 인증 사회적기업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2013~2019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1,804개소(76.7%)로 2007~2012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인 548개소(2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인증연도	2007	35	35	35
	2008	112	107	104
	2009	59	57	54
	2010	149	142	135
	2011	117	108	106
	2012	123	120	114
	2013	219	207	197
	2014	232	217	204
	2015	272	258	234
	2016	252	248	237
	2017	255	253	244
	2018	-	310	299
	2019	-	-	38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255	1,390	1,567
	사회서비스제공형	113	125	143
	혼합형	170	184	191
	기타(창의·혁신)형	200	243	301
	지역사회공헌형	87	120	15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40	272	308
	비영리민간단체	122	104	115
	사회복지법인	70	66	63
	상법상회사	1,135	1,301	1,4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5	9
	영농조합법인	68	77	7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3	236	314
	기타	3	1	0
전체		1,825	2,062	2,35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한편,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17년 및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인증 기업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폐업, 인증 반납

등의 사유로 해당 인증연도의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1,567개소(66.6%)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191개소, 8.1%)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74.7%까지 증가한다.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율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7년 및 2018년 역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앞서 인증유형의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법상회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62.5%인 1,469개소가 상법상회사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에도 상법상회사가 조직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법상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법상회사의 설립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이 요구되는데,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초기에 상법상회사가 많았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선화 외, 2010). 한편, 2015~2019년 추세를 보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12월 시작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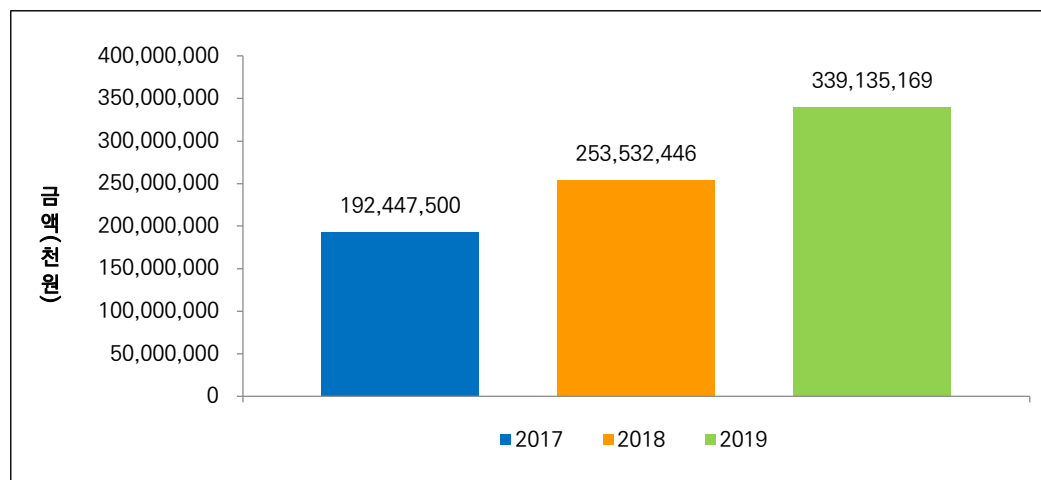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이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의미하며, 기존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서는 이를 확인함에 있어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했다(길현중 외, 2013).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본 성과분석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한 조사기준이 2016년 변경되어 비교 및 순수한 지원금 및 기타영업외 수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금 및 기타영업외 수익에서는 금융지원은 제외한다. 정부지원에는 알자리창출사업지원금, 전문인력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지원금,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은 제외하였다. 민간지원에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영업외 수익금액이 포함되며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지원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2019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은 2018년 대비 약 34% 증가한 3,391억 원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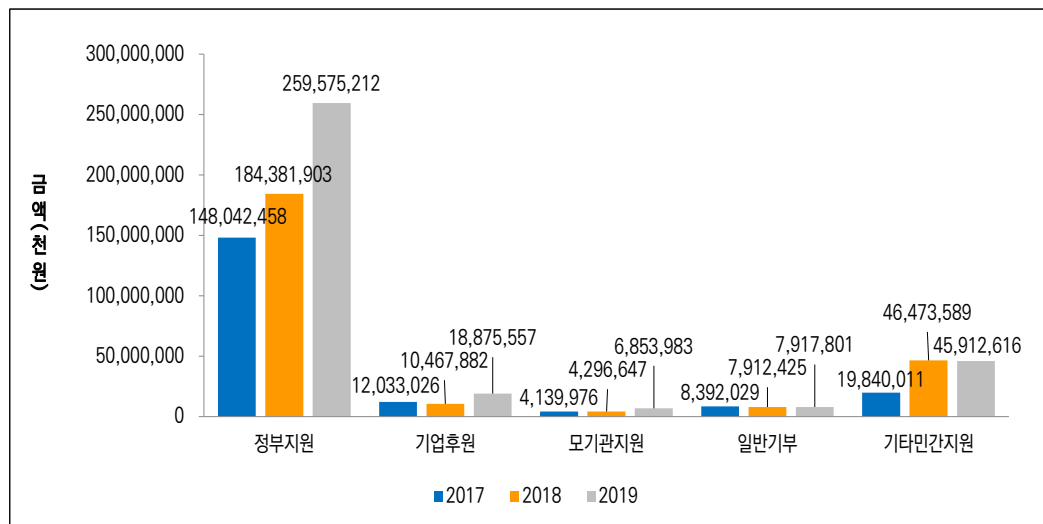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정부지원금 및 기타민간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8년에 전년대비 약 24.5% 증가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40.8%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민

간지원의 경우에는 2018년에 전년대비 약 134%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2% 정도 감소하였다. 기업후원의 경우 2018년에 전년대비 약 5.7%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80.3% 정도 증가하였다. 모기관지원의 경우 2018년에는 전년대비 3.8%,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59.5%의 지원금액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그 외에 일반 기부는 2018년에는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과 유사하였다.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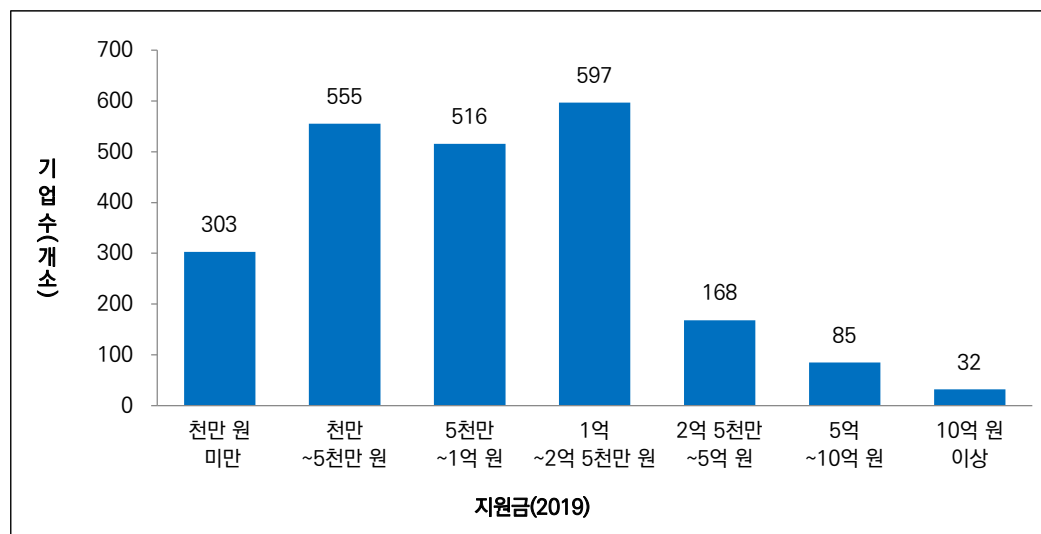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정부지원 2,013개소, 기업후원 200개소, 모기관지원 57개소, 일반기부 282개소, 기타민간지원 1,803개, 총지원금 2,25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그림 2-4]는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금액 및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기업 중 2019년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2,352개소의 95.2%인 2,256개소로 나타났다. 지원금 액수는 2018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중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은 기업이 597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555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516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정부지원 2,013개소, 기업후원 200개소, 모기관지원 57개소, 일반기부 282개소, 기타 민간지원 1,803개, 총지원금 2,25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으로, 지원금을 총지원금과 개별항목(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으로 구분한 뒤,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및 중위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8>과 같다. 총지원금을 먼저 살펴보면, 2019년 총지원금 평균은 약 1억 5천만 원, 중위값은 약 7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총지원금 평균 약 1억 1천3백만 원과 중위값 약 5천8백만 원 및 2018년의 평균 약 1억 2천4백만 원과 중위값 약 6천5백만 원과 비교해 볼 때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점차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정부지원을 가장 많은 기업이 지원받고 있었는데(2,013개소, 89.2%), 정부지원금의 평균은 약 1억 3천만 원, 중위값은 약 6천8백5십만 원으로 다른 지원금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모기관지원, 기업후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관지원의 경우 평균 지원금액은 2017년 약 8천1백만 원, 2018년 약 8천6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9년 약 1억 2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위값은 2017년 3천2백만 원에서 2018년 3천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다시 3천2백만 원으로 회복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2-8>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정부지원	103,382	58,869	109,621	61,095	128,949	68,477
기업후원	77,135	20,000	73,717	28,437	94,378	22,168
모기관지원	81,176	32,000	85,933	30,000	120,245	32,000
일반기부	35,863	11,288	31,650	13,108	28,077	11,719
기타 민간지원	15,585	2,458	23,098	3,902	25,465	3,885
총지원금	113,005	58,394	124,159	64,949	150,326	72,109

주: 1) 총지원금을 제외한 세부내역은 실질 지원이 이루어진 유효수를 기준으로 분석(2019년 정부지원 2,013개소, 기업후원 200개소, 모기관지원 57개소, 일반기부 282개소, 기타 민간지원 1,803개, 총지원금 2,256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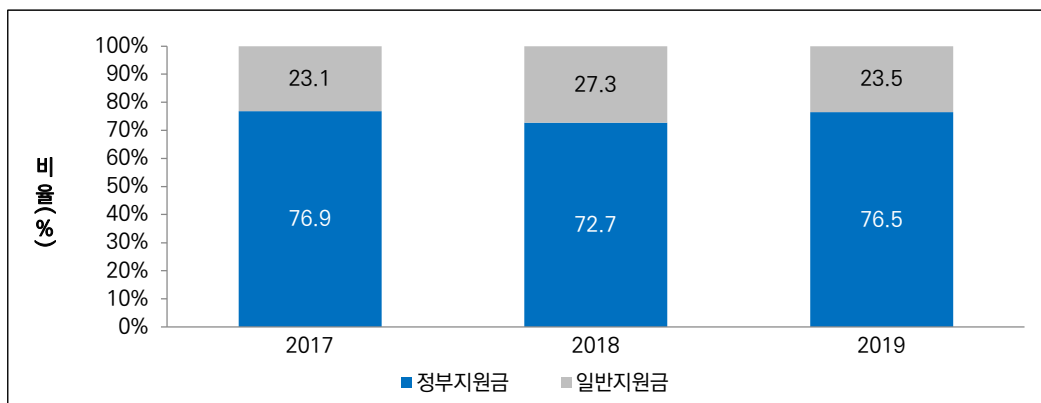
2) 2017년 정부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이 각각 96,139원, 51,158원에서 103,382원, 58,869원으로 수정되었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5]와 같다. 2019년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은 7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 76.9%에서 2018년 72.7%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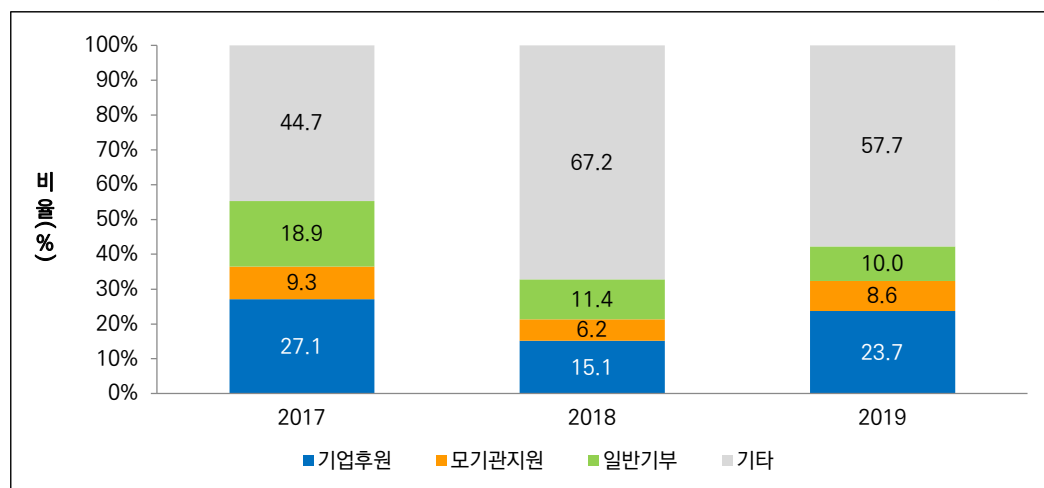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한편, [그림 2-6]에는 정부지원 이외의 일반지원금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에서 기업후원이나 모기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기타 항목의 경우 2018년에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정부지원금비율과 일반지원금 구성비의 이러한 변화가 사업보고서 상 일반지원 항목의 자료처리와 관련된 것인지, 실제적인 변화, 예를 들면 최근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단위: %)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의 평균 및 중위값을 지역별로 세분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9>과 같다. 먼저 지원금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 수가 12개 소로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경북 약 2억 원, 경기 약 1억 8천만 원, 서울 약 1억 6천7백만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경우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 약 2억 6천만 원, 경북 약 1억 8천5백만 원, 경기 약 1억 7천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후원은 서울이 약 1억 7천만 원, 경기 약 6천7백만 원, 부산 약 6천3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위값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 간 기업후원의 편차가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일

반기부 역시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 약 9천4백만 원, 서울 약 3천8백만 원으로 나타나 제주의 경우 정부지원과 일반기부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서울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지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지역별 지원금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서울	평균	102,452	170,775	57,150	38,189	47,804	167,316
	기업 수	368	77	11	79	351	426
	중위값	56,745	32,087	31,000	15,611	4,417	61,998
부산	평균	107,186	62,689	44,033	17,340	26,648	136,666
	기업 수	104	12	4	14	107	111
	중위값	69,256	10,000	31,000	10,302	3,014	82,250
대구	평균	116,109	46,153	743,000	11,095	23,222	144,517
	기업 수	74	7	1	12	70	79
	중위값	65,967	23,538	743,000	5,825	2,863	84,410
인천	평균	75,867	18,698	5,714	10,790	10,790	74,667
	기업 수	117	3	4	16	109	138
	중위값	54,389	15,725	3,770	6,310	3,029	53,549
광주	평균	135,804	42,383	83,980	21,540	18,484	148,161
	기업 수	94	6	4	12	57	99
	중위값	69,969	26,619	41,844	11,785	4,524	73,446
대전	평균	140,550	18,719	171,345	25,040	9,990	145,930
	기업 수	58	7	2	10	61	65
	중위값	94,420	6,000	171,345	14,022	4,391	86,259
울산	평균	130,442	29,583	51,986	12,278	14,297	134,667
	기업 수	72	6	3	9	75	81
	중위값	92,387	22,400	7,171	6,160	1,804	93,369
세종	평균	225,498	-	-	59,002	33,893	257,443
	기업 수	11	0	0	4	11	12
	중위값	106,282	-	-	45,037	5,304	126,811
경기	평균	171,421	67,773	316,885	32,767	21,587	182,491
	기업 수	328	34	11	52	379	394
	중위값	61,106	19,411	47,240	9,614	3,691	62,602

<표 2-9>의 계속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강원	평균	92,635	13,969	58,836	21,994	19,641	100,246
	기업 수	105	10	3	11	48	112
	중위값	56,557	6,900	14,957	12,948	5,913	61,407
충북	평균	95,105	56,328	21,921	23,963	34,672	115,233
	기업 수	83	3	2	9	89	99
	중위값	50,758	50,000	21,921	17,945	5,493	51,482
충남	평균	124,730	43,476	169,432	22,161	17,065	138,381
	기업 수	87	9	1	11	63	92
	중위값	64,046	12,000	169,432	11,330	4,995	70,679
전북	평균	133,201	41,871	47,000	26,938	13,461	134,398
	기업 수	124	3	3	11	99	137
	중위값	81,320	46,988	4,000	18,800	2,989	77,564
전남	평균	129,294	9,403	90,000	8,995	18,290	129,852
	기업 수	105	1	1	4	10	107
	중위값	97,140	9,403	90,000	7,798	7,288	97,140
경북	평균	185,074	41,861	17,096	23,507	21,986	199,757
	기업 수	135	8	2	14	122	142
	중위값	134,773	31,715	17,096	8,488	3,005	147,675
경남	평균	89,639	40,715	13,034	20,735	16,544	102,893
	기업 수	104	8	2	8	108	113
	중위값	58,924	8,412	13,034	16,083	3,860	66,369
제주	평균	258,392	38,625	94,000	44,074	25,053	270,404
	기업 수	44	6	3	6	44	49
	중위값	102,281	25,106	70,000	5,773	7,332	106,910
전체	평균	128,949	94,378	120,245	28,077	25,465	150,326
	기업 수	2,013	200	57	282	1,803	2,256
	중위값	68,477	22,168	32,000	11,719	3,885	72,109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으로 지원금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10>과 같다. 먼저, 인증연도를 확인해보면 지원금 총액에 있어서 2013년

인증기업의 평균금액이 약 9천2백만 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2019년 인증기업의 평균금액이 약 9천4백만 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금액이 약 2억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기타(창의·혁신)형의 지원금 총액의 크기가 약 2억 3천 8백만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공헌형도 약 1억 6천만 원으로 지원금 총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 평균 정부지원 금액의 경우에도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유형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민간지원 내역에서는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원금 총액의 평균이 약 5억 8천만 원, 중위값 5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금 총액 평균이 약 9천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2-1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단위: 천 원, 개소)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연도	2007	평균	202,257	106,647	54,561	21,571	347,831	497,582
		기업 수	27	10	2	9	29	34
		중위값	47,260	42,317	54,561	9,729	14,028	62,880
	2008	평균	175,456	250,635	100,314	41,536	18,646	218,664
		기업 수	77	16	13	25	84	98
		중위값	50,758	21,610	70,000	20,728	8,121	57,485
	2009	평균	178,680	93,653	109,716	31,217	9,177	155,603
		기업 수	36	7	2	11	48	52
		중위값	44,333	75,300	109,716	11,543	2,957	32,262
	2010	평균	123,186	71,759	58,102	24,019	16,805	130,071
		기업 수	100	17	5	27	106	125
		중위값	41,945	32,087	33,590	20,200	4,965	44,876
	2011	평균	163,588	50,643	42,606	29,579	26,470	179,545
		기업 수	82	18	9	24	89	99
		중위값	51,974	14,374	31,000	21,213	6,962	56,495

<표 2-10>의 계속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12	평균	147,227	31,529	45,744	16,779	14,975	151,076
		기업 수	96	12	5	28	94	110
		중위값	42,037	5,642	23,300	8,120	3,245	52,455
	2013	평균	92,313	100,620	54,856	24,118	15,530	106,922
		기업 수	153	20	6	32	150	183
		중위값	37,725	22,329	39,368	10,012	5,610	38,358
	2014	평균	106,008	35,047	202,635	20,072	28,086	122,627
		기업 수	166	15	4	16	144	190
		중위값	52,774	20,781	32,500	11,545	4,649	52,584
	2015	평균	181,096	93,935	3,600	19,124	12,510	177,827
		기업 수	193	18	1	15	175	220
		중위값	52,782	40,097	3,600	15,793	4,388	54,186
	2016	평균	140,344	26,584	315	37,659	30,151	166,997
		기업 수	226	16	1	28	195	234
		중위값	82,561	19,411	315	11,956	4,167	100,423
	2017	평균	125,154	35,308	2,763,475	11,421	23,744	152,265
		기업 수	231	15	1	12	177	240
		중위값	96,460	17,000	2,763,475	9,177	3,192	106,434
	2018	평균	122,108	38,369	19,003	49,375	20,967	141,550
		기업 수	285	13	3	24	215	290
		중위값	90,698	26,861	7,000	10,565	3,843	104,467
	2019	평균	94,437	215,253	70,918	24,431	17,241	113,875
		기업 수	341	23	5	31	297	381
		중위값	72,245	19,000	14,957	11,542	1,971	71,583
인증 유형	일자리 제공형	평균	125,890	48,518	136,875	22,376	21,066	138,256
		기업 수	1,333	106	47	151	1,208	1,506
		중위값	70,557	20,848	39,000	7,336	4,115	71,530
	사회서비 스제공형	평균	103,591	47,559	30,113	28,018	15,277	117,321
		기업 수	124	13	1	33	116	138
		중위값	61,807	16,500	30,113	17,509	5,869	74,472
	혼합형	평균	114,016	67,425	23,394	29,664	18,249	129,308
		기업 수	160	25	5	34	143	183
		중위값	56,486	20,000	7,000	11,836	3,772	62,200
	기타(창의 · 혁신)형	평균	174,506	154,745	114,823	44,901	56,662	238,239
		기업 수	258	46	2	47	241	286
		중위값	64,349	40,712	114,823	24,592	2,807	80,149

<표 2-10>의 계속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유형	지역 사회 공헌형	평균	113,432	431,053	22,075	29,146	25,556	160,361
		기업 수	138	10	2	17	95	143
		중위값	70,802	11,791	22,075	5,000	2,695	80,577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	평균	136,313	229,459	458,402	30,601	69,953	225,606
		기업 수	255	31	7	92	228	283
		중위값	67,398	40,211	96,800	12,138	5,461	88,703
	비영리 민간단체	평균	173,543	24,431	85,149	23,588	17,155	187,874
		기업 수	97	9	14	48	97	112
		중위값	69,450	10,000	29,596	12,258	1,621	69,098
	사회복지 법인	평균	526,360	41,452	85,299	24,835	33,978	577,573
		기업 수	56	19	24	41	56	61
		중위값	493,838	13,045	60,000	9,046	16,843	531,684
	상법상 회사	평균	108,247	43,471	32,983	15,832	18,660	112,969
		기업 수	1,232	98	7	29	1,118	1,409
		중위값	63,298	22,150	5,000	6,160	3,858	64,019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평균	56,053	42,246	-	54,174	28,496	90,457
		기업 수	9	2	0	1	6	9
		중위값	48,897	42,246	-	54,174	18,380	107,493
	영농조합 법인	평균	117,977	10,000	-	4,000	7,381	113,158
		기업 수	66	1	0	1	47	72
		중위값	106,734	10,000	-	4,000	4,481	96,768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평균	123,671	160,006	35,008	34,783	19,986	164,130
		기업 수	298	40	5	70	251	310
		중위값	75,968	16,424	7,000	14,813	3,600	93,175
	기타	평균	-	-	-	-	-	-
		기업 수	0	0	0	0	0	0
		중위값	-	-	-	-	-	-
전체		평균	128,949	94,378	120,245	28,077	25,465	150,326
		기업 수	2,013	200	57	282	1,803	2,256
		중위값	68,477	22,168	32,000	11,719	3,885	72,109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한편, <표 2-11>은 전체 지원금 금액에서 차지하는 세부항목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아래 결과 중, 중요도가 높은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증연도의 경우 오래된 인증기업에 비해 최근 인증기업의

정부지원 지원금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후원의 경우에는 2019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인증기간이 오래된 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에도 대체로 정부지원이 6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민법상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단위: %)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기타	계
인증 연도	2007	32.3	6.3	0.6	1.1	59.6	100.0
	2008	63.0	18.7	6.1	4.8	7.3	100.0
	2009	79.5	8.1	2.7	4.2	5.4	100.0
	2010	75.8	7.5	1.8	4.0	11.0	100.0
	2011	75.5	5.1	2.2	4.0	13.3	100.0
	2012	85.0	2.3	1.4	2.8	8.5	100.0
	2013	72.2	10.3	1.7	3.9	11.9	100.0
	2014	75.5	2.3	3.5	1.4	17.4	100.0
	2015	89.3	4.3	0.0	0.7	5.6	100.0
	2016	81.2	1.1	0.0	2.7	15.0	100.0
	2017	79.1	1.4	7.6	0.4	11.5	100.0
	2018	84.8	1.2	0.1	2.9	11.0	100.0
	2019	74.2	11.4	0.8	1.7	11.8	100.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0.6	2.5	3.1	1.6	12.2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79.3	3.8	0.2	5.7	10.9	100.0
	혼합형	77.1	7.1	0.5	4.3	11.0	100.0
	기타(창의·혁신)형	66.1	10.4	0.3	3.1	20.0	100.0
	지역사회공헌형	68.3	18.8	0.2	2.2	10.6	100.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4.4	11.1	5.0	4.4	25.0	100.0
	비영리민간단체	80.0	1.0	5.7	5.4	7.9	100.0
	사회복지법인	83.7	2.2	5.8	2.9	5.4	100.0
	상법상회사	83.8	2.7	0.1	0.3	13.1	1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2.0	10.4	0.0	6.7	21.0	100.0
	영농조합법인	95.6	0.1	0.0	0.0	4.3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2.4	12.6	0.3	4.8	9.9	100.0
	기타	-	-	-	-	-	-
전체		76.5	5.6	2.0	2.3	13.5	100.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표 2-1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단위 : 천 원)																	
인증 연도	2007	416,288	267,197	924,710	58,799	252,038	264,292	165,830	212,156	30,197	8,350	497,582	202,257	106,647	54,561	21,571			
	2008	154,603	159,089	50,308	78,568	52,127	174,321	154,596	190,500	96,128	55,402	218,664	175,456	250,635	100,314	41,536			
	2009	148,432	165,748	51,474	53,514	23,459	173,270	178,212	66,409	39,077	62,681	155,603	178,680	93,653	109,716	31,217			
	2010	96,253	95,533	74,959	47,189	23,672	134,973	95,422	100,589	49,091	26,219	130,071	123,186	71,759	58,102	24,019			
	2011	138,313	149,446	23,719	67,148	43,810	137,803	128,009	27,221	31,233	25,775	179,545	163,588	50,643	42,606	29,579			
	2012	114,952	114,340	46,188	32,644	22,336	154,252	155,980	16,338	27,635	32,839	151,076	147,227	31,529	45,744	16,779			
	2013	84,952	76,471	57,975	35,017	24,129	98,397	80,943	66,857	29,186	28,162	106,922	92,313	100,620	54,856	24,118			
	2014	107,697	94,183	23,085	234,168	22,289	93,326	85,218	36,999	191,667	23,148	122,627	106,008	35,047	202,635	20,072			
	2015	107,365	101,298	44,868	9,525	20,456	108,513	96,086	106,795	-	26,135	177,827	181,096	93,935	3,600	19,124			
	2016	111,411	103,461	26,987	-	31,492	145,574	130,841	54,591	5,000	40,450	166,997	140,344	26,584	315	37,659			
인증 유형	2017	82,274	79,570	31,203	255,796	11,865	122,634	108,073	33,837	1,431,600	22,652	152,265	125,154	35,308	2,763,475	11,421			
	2018	-	-	-	-	-	96,335	90,404	35,029	40,779	24,356	141,550	122,108	38,369	19,003	49,375			
	2019	-	-	-	-	-	-	-	-	-	-	113,875	94,437	215,253	70,918	24,431			
	일자리제공형	109,192	105,470	35,735	86,487	20,195	128,480	115,988	47,824	98,727	24,927	138,256	125,890	48,518	136,875	22,376			
	사회서비스제공형	108,613	110,687	30,719	-	16,922	107,164	98,547	64,422	20,114	28,413	117,321	103,591	47,559	30,113	28,018			
인증 유형	혼합형	102,464	90,635	79,194	38,008	28,627	102,230	82,703	105,936	21,546	23,318	129,308	114,016	67,425	23,394	29,664			
	창의·혁신형(기타)	143,912	86,677	168,211	-	100,697	132,870	102,562	121,162	15,985	64,996	238,239	174,506	154,745	114,823	44,901			
	지역사회공헌형	122,843	119,248	20,750	9,525	14,940	107,580	100,353	25,800	7,713	19,924	160,361	113,432	431,053	22,075	29,146			

<표 2-12>의 계속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장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장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장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민법상법인	176,407	119,598	192,581	155,988	60,978	182,260	131,717	142,025	154,135	47,112	225,606	136,313	229,459	458,402	30,601
비영리민간단체	134,075	150,716	27,576	54,977	22,466	126,223	138,904	34,302	52,661	22,557	187,874	173,543	24,431	85,149	23,588
사회복지법인	425,215	431,749	33,600	67,848	26,491	519,119	481,129	35,057	73,318	27,394	577,573	526,360	41,452	85,299	24,835
상법상회사	76,200	75,450	42,095	7,265	13,279	88,515	83,413	57,117	35,740	14,605	112,969	108,247	43,471	32,983	15,832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142,108	35,587	-	27,900	-	102,238	55,282	119,585	15,985	-	90,457	56,053	42,246	-	54,174
영농조합법인	93,565	88,484	16,000	-	4,000	141,104	101,518	-	-	4,000	113,158	117,977	10,000	-	4,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7,578	114,020	55,672	-	21,588	136,705	113,713	76,103	-	25,899	164,130	123,671	160,006	35,008	34,783
기타	67,742	77,549	-	-	-	149,069	65,771	-	-	-	-	-	-	-	-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마지막으로 2016~2019년 총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 평균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표 2-12>와 같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크기는 대체로 최근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금 평균 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인증기업들의 평균 지원금 액수가 적게 나타났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경우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2억 4천만 원, 사회복지법인이 약 5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대체로 평균지원금의 크기가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인증유형의 경우 2018년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직형태별로는 민법상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표 부가분석 2-1>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2016~2019년 전체 지원금,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지원금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부가분석 2-2>에서는 전체 지원금을 지역과 표준산업분류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원금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천 원, %)

	항목	2017	2018	2019
전체지원금	전체총액	192,447,500	253,532,446	339,135,169
	인증연도	2007	13,737,503	9,250,237
		2008	14,996,507	18,652,398
		2009	6,679,460	9,876,401
		2010	12,416,689	18,761,284
		2011	14,384,554	14,469,287
		2012	13,219,451	18,355,966
		2013	17,585,152	19,974,687
		2014	23,693,286	20,065,089
		2015	27,807,467	27,670,783
		2016	27,852,668	35,811,272
		2017	20,074,763	30,781,112
		2018	-	29,863,930
		2019	-	43,386,47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28,300,699	176,788,822
		사회서비스제공형	11,404,401	13,181,215
		혼합형	15,676,966	18,605,869
		기타(창의·혁신)형	26,623,769	32,154,521
		지역사회공헌형	10,441,665	12,802,01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9,338,778	48,663,320
		비영리민간단체	15,150,449	13,000,979
		사회복지법인	28,489,396	34,261,843
		상법상회사	80,314,855	114,096,4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68,430	511,189
		영농조합법인	5,801,046	10,723,86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2,581,319	32,125,763
		기타	203,227	149,069
정부지원금	전체총액	148,042,458	184,381,903	259,575,212
	인증연도	2007	4,809,546	3,979,924
		2008	9,863,545	11,130,933
		2009	5,469,678	7,306,705

	항목		2017	2018	2019
정부지원금	인증연도	2010	8,597,973	10,687,210	12,318,610
		2011	10,311,752	10,368,707	13,414,243
		2012	10,519,289	15,130,090	14,133,786
		2013	12,694,175	13,193,705	14,123,940
		2014	19,401,635	13,293,963	17,597,284
		2015	24,412,723	21,138,903	34,951,487
		2016	24,934,127	30,224,233	31,717,751
		2017	17,028,015	24,964,948	28,910,566
		2018	-	22,962,582	34,800,902
		2019	-	-	32,203,11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5,575,196	132,458,438	167,811,223
		사회서비스제공형	9,408,370	9,854,667	12,845,240
		혼합형	10,604,250	11,743,816	18,242,591
		기타(창의·혁신)형	12,914,800	19,486,869	45,022,481
		지역사회공헌형	9,539,842	10,838,113	15,653,67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2,125,718	29,241,187	34,759,747
		비영리민간단체	12,207,972	10,001,083	16,833,676
		사회복지법인	22,882,716	26,462,078	29,476,163
		상법상회사	67,074,958	87,583,220	133,360,8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6,760	221,127	504,476
		영농조합법인	5,132,087	6,700,205	7,786,51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357,149	24,107,232	36,853,820
		기타	155,098	65,771	-
민간지원금	전체총액		44,405,042	69,150,542	79,559,957
	인증연도	2007	8,927,957	5,270,313	11,456,823
		2008	5,132,962	7,521,465	7,918,920
		2009	1,209,782	2,569,696	1,658,882
		2010	3,818,716	8,074,074	3,940,214
		2011	4,072,802	4,100,580	4,360,740
		2012	2,700,162	3,225,876	2,484,556
		2013	4,890,977	6,780,982	5,442,856
		2014	4,291,651	6,771,126	5,701,815
		2015	3,394,744	6,531,880	4,170,527
		2016	2,918,541	5,587,039	7,359,620
		2017	3,046,748	5,816,164	7,632,916
		2018	-	6,901,348	6,248,732
		2019	-	-	11,183,35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2,725,503	44,330,384	40,402,364
		사회서비스제공형	1,996,031	3,326,548	3,345,095
		혼합형	5,072,716	6,862,053	5,420,797
		기타(창의·혁신)형	13,708,969	12,667,652	23,113,736
		지역사회공헌형	901,823	1,963,906	7,277,965

	항목		2017	2018	2019
민간지원금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7,213,060	19,422,133	29,086,610
		비영리민간단체	2,942,477	2,999,896	4,208,249
		사회복지법인	5,606,680	7,799,765	5,755,764
		상법상회사	13,239,897	26,513,194	25,812,3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61,670	290,062	309,639
		영농조합법인	668,959	4,023,664	360,8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224,170	8,018,531	14,026,463
		기타	48,129	83,298	-
지원금 비율	전체비율		0.05	0.06	0.07
	인증연도	2007	0.11	0.08	0.13
		2008	0.09	0.11	0.12
		2009	0.08	0.11	0.08
		2010	0.05	0.07	0.06
		2011	0.05	0.05	0.05
		2012	0.07	0.09	0.08
		2013	0.01	0.01	0.01
		2014	0.07	0.06	0.06
		2015	0.08	0.07	0.09
		2016	0.07	0.07	0.08
		2017	0.09	0.11	0.11
		2018	-	0.08	0.09
		2019	-	-	0.1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0.06	0.07	0.07
		사회서비스제공형	0.10	0.09	0.10
		혼합형	0.11	0.11	0.12
		기타(창의·혁신)형	0.02	0.02	0.05
		지역사회공헌형	0.10	0.09	0.1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0.09	0.09	0.10
		비영리민간단체	0.20	0.22	0.20
		사회복지법인	0.20	0.23	0.23
		상법상회사	0.03	0.04	0.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6	0.05	0.05
		영농조합법인	0.05	0.08	0.0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0.11	0.11	0.12
		기타	0.04	0.44	-

주: 지원금 비율=전체지원금총액/(전체지원금총액+매출액총액).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 지역별,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19)

(단위: 천 원,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전체	71,76,800	15,169,884	11,416,824	10,394,111	14,657,965	9,485,446	10,981,684	3,084,330	71,901,412	11,227,570	11,490,077	12,731,067	18,422,480	13,894,167	28,355,464	13,249,730	-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자설 관라·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협화·단체 ·수리· 개인 서비스업(S)
지역	665,384	76,365	26,683,880	35,125	6,661,280	46,623,784	35,610,729	449,281	20,021,288	8,128,672	27,087,583	1,465,881	526,481	51,011,049	133,178,681	11,365,989	5,655,183
정부 지원금	37,702,293	11,477,390	8,592,046	88,766,391	12,765,390	8,151,900	9,391,832	2,480,478	56,225,980	9,726,671	7,887,715	10,851,507	16,516,889	13,575,880	24,985,016	9,922,457	-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자설 관라·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협화·단체 ·수리· 개인 서비스업(S)
지역	5,671,083	76,365	21,588,370	31,623	5,992,281	21,692,971	20,083,361	330,220	17,128,582	7,183,891	21,578,003	1,381,559	361,140	3,822,649	10,582,681	8,192,386	4,507,889
민간 지원금	33,974,567	4,022,484	2,824,778	1,427,720	1,902,315	1,335,545	1,516,222	68,832	15,656,432	1,500,889	3,514,332	1,891,580	1,865,331	318,287	3,380,148	2,304,402	-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자설 관라·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협화·단체 ·수리· 개인 서비스업(S)
지역	784,286	0.03	5,667,570	3,512	588,879	24,990,833	7,547,388	99,061	2,893,636	942,781	5,575,380	116,302	165,341	1,278,440	23,346,000	3,153,683	977,884
비율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자설 관라·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협화·단체 ·수리· 개인 서비스업(S)
지역	0.04	0.24	0.17	0.07	0.11	0.03	0.09	0.07	0.06	0.12	0.21	0.04	0.19	0.12	0.08	0.11	0.2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제3장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사회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편익)창출의 성과는 경제적성과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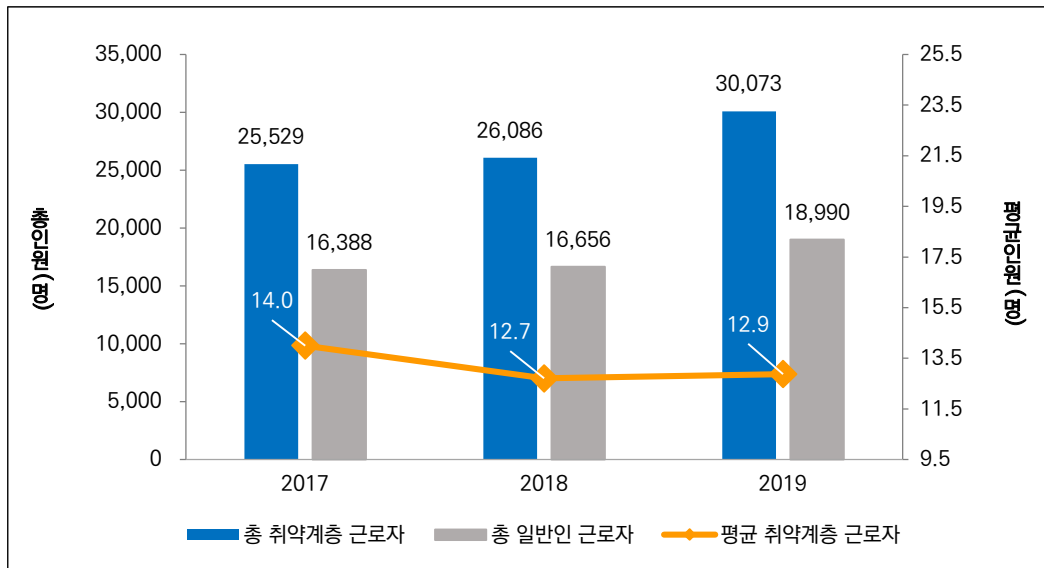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취업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2010년부터는 목적 유형별로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자¹⁾, ② 고령자,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그 밖의 취약계층 등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7~2019년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30,073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 수 49,063명의 6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총 취약계층 근로자는 2018년의 26,086명에 비하여 약 15.3% 증가하였고 총 일반근로자는 18,990명으로 2018년에 비하여 14.0% 증가하였으나 기업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2.8명으로 2017년 14.0명보다는 적으나 2018년 12.7명보다는 근소하게 증가하여, 기업이 평균적으로 고용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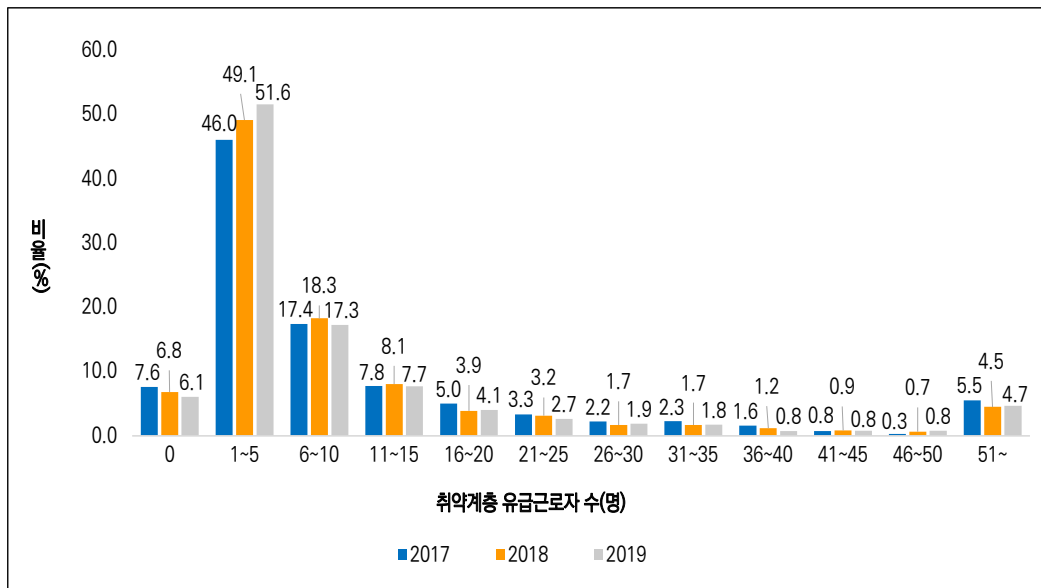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규모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인 이하 채용 기업의 비중이 약 75%에 달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5명 이하인 사회적기업이 약 5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1>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 취약계층 근로자 중 약 57%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지역의 경우 사회문제 수요도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역시 약 40%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해당 지역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 수

(단위: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7,423	24.8	317,269	16.9
부산	1,304	4.3	172,439	9.2
대구	543	1.8	117,594	6.3
인천	1,631	5.4	122,027	6.5
광주	914	3.0	76,193	4.0
대전	451	1.5	59,317	3.2
울산	804	2.7	26,594	1.4
세종	418	1.4	5,749	0.3
경기	7,999	26.6	328,752	17.5
강원	1,445	4.8	71,493	3.8
충북	885	2.9	62,507	3.3
충남	1,011	3.4	69,022	3.7
전북	1,250	4.1	105,955	5.6
전남	791	2.6	87,003	4.6
경북	1,441	4.8	113,845	6.1
경남	1,249	4.1	121,275	6.4
제주	514	1.7	24,323	1.3
전체	30,073	100.0	1,881,357	100.0

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재구성.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보건복지부(2020b).

<표 3-2>와 [그림 3-3]은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규모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고용 평균은 2018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7년 인증기업의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38.6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9년 34.3명, 2011년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2007	1,425	40.7	1,327	37.9	1,314	38.6
2008	2,068	18.5	1,914	17.9	1,959	20.2
2009	1,482	25.1	1,478	25.9	1,747	34.3
2010	2,536	17.0	2,203	15.5	2,270	18.8
2011	2,337	20.0	2,184	20.2	1,992	21.4
2012	1,906	15.5	1,451	12.1	1,329	13.0
2013	2,834	12.9	2,514	12.1	2,709	14.7
2014	3,096	13.3	2,832	13.1	2,920	15.1
2015	3,638	13.4	3,198	12.4	3,324	14.9
2016	2,501	9.9	2,428	9.8	2,436	10.9
2017	1,706	6.7	1,919	7.6	1,900	8.2
2018	-	-	2,638	8.5	3,154	11.3
2019	-	-	-	-	3,019	8.3
계	25,529	14.0	26,086	12.7	30,073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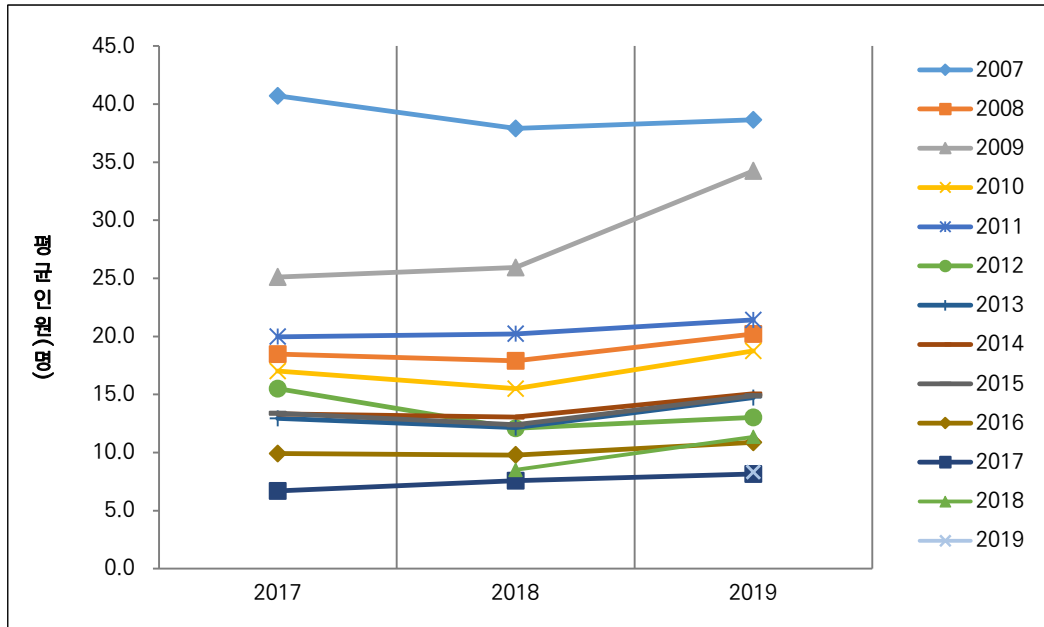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인증연도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인원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의 평균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 인증 기업의 경우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약 25명 수준에서 2019년에 34.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이 최근 인증받은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고용 경험은 누적될수록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최근 인증받는 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의 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표 3-3>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수를 보면,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으로는 혼합형이 평균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6.1명, 일자리제공형이 평균 15.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23,28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에 취약계층 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고용비율이 각각 20%, 30%로 의무화되어 있고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고용한 절대적 수는 적지만 매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타(창의·

혁신)형은 취약계층 평균 근로자 수가 2019년 4.2명으로 인증유형들 중 두 번째로 가장 적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908명으로 많지 않으나 매년 고용인원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아름다운 가게,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혁신적 문화컨텐츠를 생산하는 노리단, 청년 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소셜벤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일자리제공형	20,330	16.2	19,959	14.4	23,288	15.1
사회서비스제공형	1,322	11.7	1,659	13.3	1,857	16.1
혼합형	2,908	17.1	3,288	17.9	3,493	18.9
기타(창의·혁신)형	572	2.9	707	2.9	908	4.2
지역사회공헌형	397	4.6	473	3.9	527	3.8
전체	25,529	14.0	26,086	12.7	30,073	13.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4>는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약 30.3명으로 가장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법상법인(14.5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12.9명), 상법상회사(1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형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현재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60.6%인 18,23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2018년과 비교하면,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는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민법상법인	3,404	14.2	4,163	15.3	4,442	14.5
비영리민간단체	751	6.2	720	6.9	956	8.5
사회복지법인	1,877	26.8	1,913	29.0	1,908	30.3
상법상회사	17,125	15.1	16,118	12.4	18,230	1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7	26.8	120	24.0	87	9.7
영농조합법인	373	5.5	403	5.2	388	5.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72	10.2	2,645	11.2	4,062	12.9
기타	20	6.7	4	4.0	-	-
전체	25,529	14.0	26,086	12.7	30,073	12.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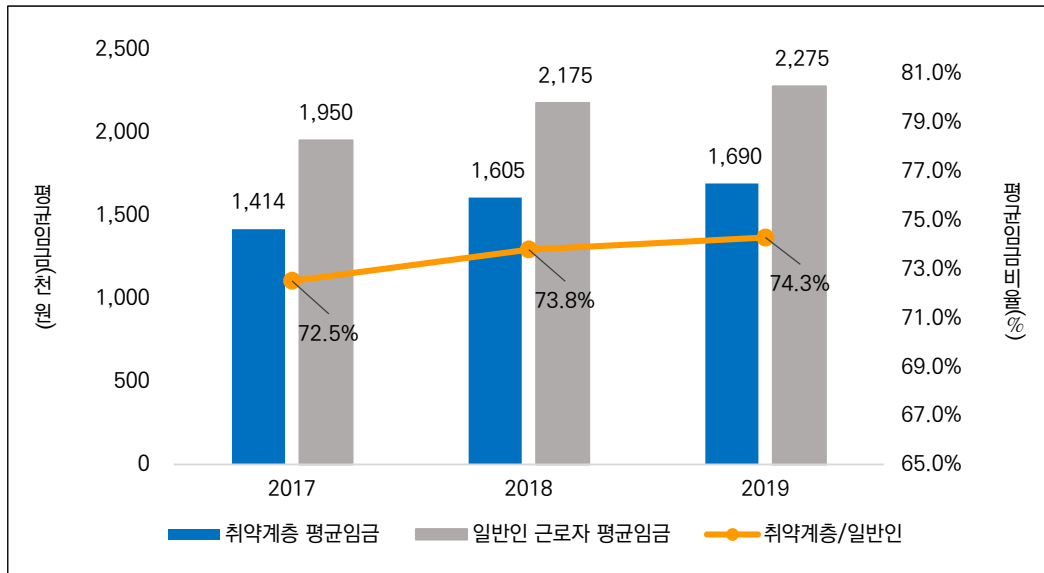
앞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이는 개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3-4]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2017~2019년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취약계층 평균임금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취약계층 평균 임금 비율은 매년 근소하게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다. 즉, 2019년 일반인 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대비 약 4.6% 증가한 것에 비해, 2019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약 169만 원으로 약 5.3% 증가하여 일반인 근로자와 취약계층간 평균임금의 격차는 감소하여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평균임금 수준은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2백2십7만5천 원의 74.3%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천 원,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의 <표 3-5>는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과 임금격차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경북이 215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192만 7천 원), 경기(185만 5천 원), 전남(178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을 제외하면 충북이 148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경북이 273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254만 5천 원, 제주 247만 1천 원, 강원 228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났고 경남이 가장 낮은 180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취약계층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86만 3천 원)였으며, 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지역은 충북, 광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격차는 2018년 57만 원에서 2019년 53만 6천 원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2018년 임금격차가 83만 4천 원으로 가장 컸던 경북의 경우 2019년에는 57만 9천 원으로 감소하여 임금격차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8년에 임금격차가 상대적으

로 컸었던 제주(2018년 임금격차 83만 원)와 충북(2018년 임금격차 79만 3천 원)의 경우에도 2019년 임금격차는 각각 86만 3천 원, 73만 원으로 더 악화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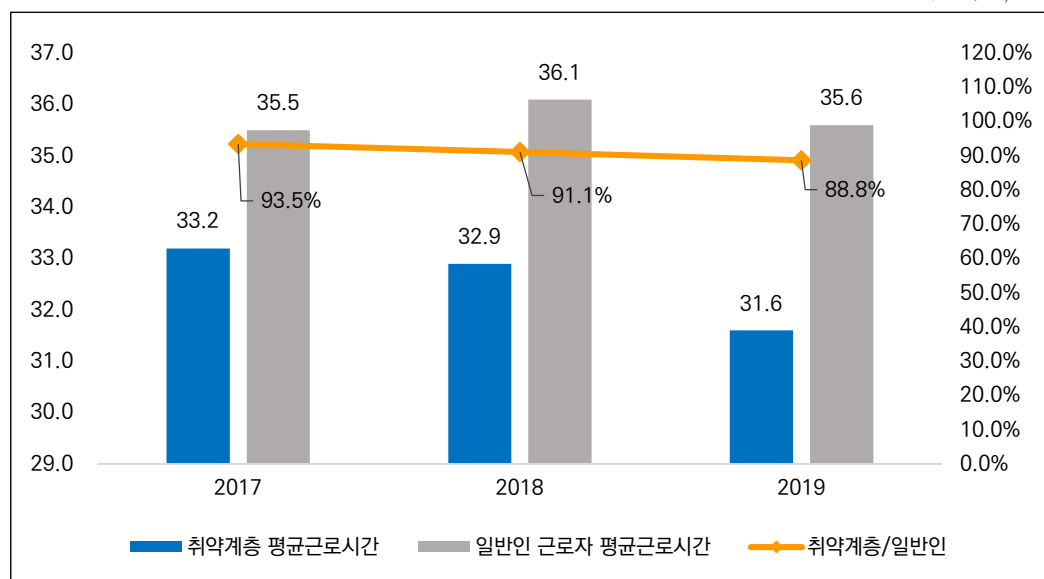
구분	취약계층 평균임금		일반인 평균임금		일반인-취약계층 임금격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서울	1,543	13	2,229	8	687	5
부산	1,498	15	1,899	13	401	11
대구	1,588	9	1,881	15	293	15
인천	1,544	12	1,966	12	422	10
광주	1,569	10	2,265	6	695	3
대전	1,627	7	1,980	11	354	13
울산	1,540	14	1,874	16	335	14
세종	1,461	17	2,051	10	589	6
경기	1,855	3	2,545	2	689	4
강원	1,927	2	2,289	4	362	12
충북	1,485	16	2,215	9	730	2
충남	1,647	6	1,882	14	235	17
전북	1,712	5	2,231	7	519	8
전남	1,787	4	2,267	5	481	9
경북	2,156	1	2,735	1	579	7
경남	1,557	11	1,808	17	252	16
제주	1,607	8	2,471	3	863	1
전체	1,690		2,275		53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2019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1.6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35.6시간을 일하는 일반인 근로자보다 4.0시간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3년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는 35.5시간에서 2018년 36.1시간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35.6시간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17년 33.2시간, 2018년 32.9시간, 2019년 31.6시간으로 점차 감소 추세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시간의 비율은 2017년 93.5%, 2018년 91.1%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88.8%로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지역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3-6>은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세종을 제외하면, 먼저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은 전남에서 35.4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 지역이 29.7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근로시간 또한 전남에서 38.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경남에서 33.0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전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33.5시간으로 0.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		일반인 평균근로시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서울	30.0	16	36.3	6
부산	30.1	15	35.0	8
대구	32.5	5	34.4	13
인천	30.9	13	34.7	11
광주	31.3	10	37.4	5
대전	33.5	4	33.4	15
울산	31.5	9	33.7	14
세종	31.1	11	34.9	9
경기	31.8	8	34.6	12
강원	34.6	3	37.9	3
충북	30.3	14	34.9	10
충남	32.4	6	33.0	16
전북	31.8	7	36.0	7
전남	35.4	1	38.5	1
경북	35.2	2	38.1	2
경남	31.0	12	33.0	17
제주	29.7	17	37.6	4
전체	31.6		35.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인증연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2019년의 경우 2015년 인증 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이 217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2013년 인증기업의 경우 14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2015년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이 35.1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3년 인증기업의 경우

28.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의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소폭 상승한 반면 취약계층의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7		2018		2019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1,524	36.1	1,766	35.3	1,753	32.8
2008	1,143	30.5	1,285	29.4	1,476	28.8
2009	1,150	28.2	1,314	28.2	1,494	28.8
2010	1,364	32.8	1,753	32.9	1,882	32.7
2011	1,473	35.5	1,656	35.4	1,709	33.8
2012	1,305	31.0	1,473	31.3	1,605	30.8
2013	1,229	30.6	1,370	30.3	1,400	28.7
2014	1,357	32.2	1,522	32.3	1,528	29.8
2015	1,798	37.6	2,021	36.6	2,176	35.1
2016	1,464	33.9	1,590	33.6	1,692	33.2
2017	1,507	34.3	1,671	34.0	1,805	33.8
2018	-	-	1,602	32.5	1,684	31.3
2019	-	-	-	-	1,613	30.2
계	1,414	33.2	1,605	32.9	1,690	31.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인증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8>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인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공헌형에서 186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창의·혁신)형(185만 7천 원), 일자리제공형(173만 2천 원), 사회서비스 제공형(149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36.1시간), 기

타(창의·혁신)형(33.6시간), 일자리제공형(32.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임금은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평균근로시간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의 경우 전체 추세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타(창의·혁신)형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지역사회공헌형은 반대로 2018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7		2018		2019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1,443	33.7	1,648	33.6	1,732	32.3
사회서비스제공형	1,191	29.5	1,328	28.6	1,496	26.5
혼합형	1,234	30.4	1,425	29.7	1,448	28.1
기타(창의·혁신)형	1,610	35.3	1,713	33.1	1,857	33.6
지역사회공헌형	1,659	37.9	1,835	38.3	1,868	36.1
전체	1,414	33.2	1,605	32.9	1,690	31.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마지막으로 <표 3-9>의 조직형태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본다. 2019년 기준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의 평균임금이 186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법상회사(182만 6천 원), 민법상법인(154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2018년 37.8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영농조합법인이 2019년에도 37.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28.6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변화추세는 모든 조직형태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근로시간의 경우도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상법상회사는 2018년에 평균근로시간이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8년에 감소하다가 2019년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7		2018		2019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317	32.7	1,487	32.0	1,546	30.6
비영리민간단체	1,086	31.9	1,131	29.5	1,318	28.6
사회복지법인	1,027	32.3	1,163	31.6	1,256	30.3
상법상회사	1,504	33.6	1,745	33.7	1,826	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34	29.0	1,134	28.1	1,368	29.6
영농조합법인	1,563	38.3	1,728	37.8	1,863	37.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76	31.0	1,389	30.2	1,522	29.0
기타	961	25.5	1,213	30.0	-	-
전체	1,414	33.2	1,605	32.9	1,690	31.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 역시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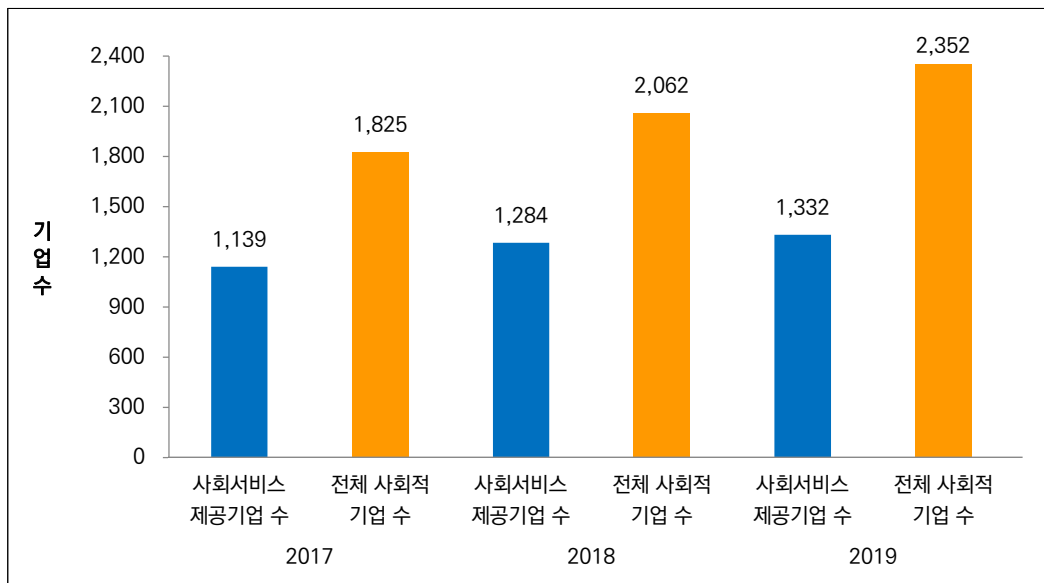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간병·가사, 문화재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업보고서의 사회서비스제공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그림 3-6]에는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

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2019년의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은 1,332개소로, 2017년 1,139개소에서 2018년 1,284개소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7~2019년에 전체 사회적 기업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7년 62.4%, 2018년 62.3%, 2019년 5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외에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의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보고 실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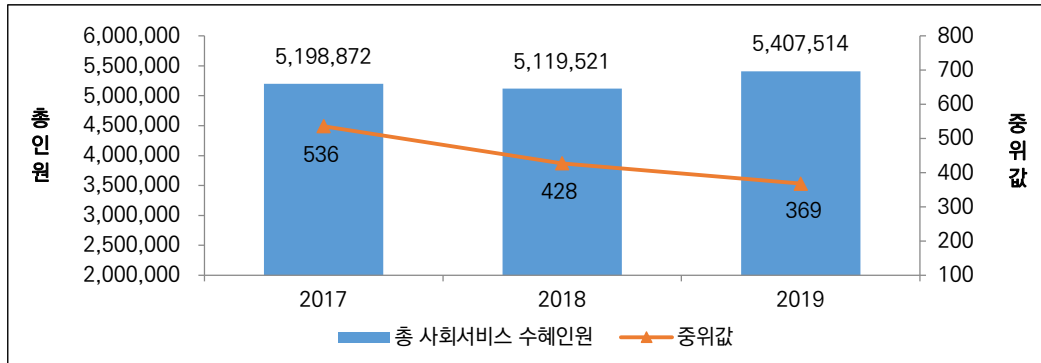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 [그림 3-7]은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수 및 중위값을 제시한 것이다. 2019년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은 약 541만 명으로 2017~2018년의 약 510만~520만 명 수준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중위값 또한 2017년 536명, 2018년 428명, 2019년 369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총 수혜인원의 기업간 격차가 커진다고 보다는, 앞서 설명한대로 실적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상위 몇 개 기업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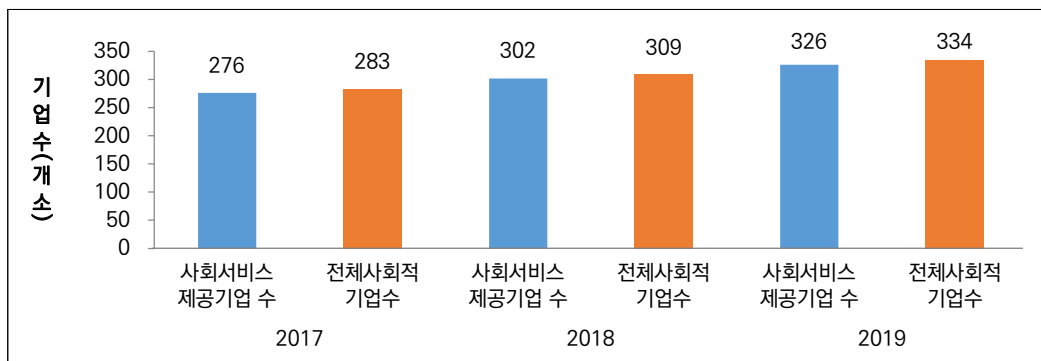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2017년 276개소, 2018년 302개소에서 2019년 326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약 97% 이상(2017년 97.5%, 2018년 97.7%, 2019년 97.6%)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주: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서비스제공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형, 혼합형만 포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의 <표 3-10>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의 경우 총 326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18.4%인 60개의 기업이, 경기에서는 16.3%인 53개 기업이, 인천은 5.2%인 17개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326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중 39.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전혀 없고, 대구 지역의 경우 1.2%인 4개 기업에서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각 2.8%인 9개 기업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기업 수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60	18.4	1	13.3	10
부산	26	8.0	3	23.2	1
대구	4	1.2	16	4.9	16
인천	17	5.2	7	11.8	12
광주	16	4.9	8	14.8	8
대전	10	3.1	13	15.4	6
울산	16	4.9	8	19.3	2
세종	0	0.0	17	0.0	17
경기	53	16.3	2	13.3	11
강원	18	5.5	6	14.4	9
충북	15	4.6	10	14.9	7
충남	9	2.8	14	9.2	15
전북	24	7.4	4	17.3	4
전남	21	6.4	5	17.1	5
경북	15	4.6	10	10.3	14
경남	13	4.0	12	11.5	13
제주	9	2.8	14	17.3	3
전체	326	100.0	-	1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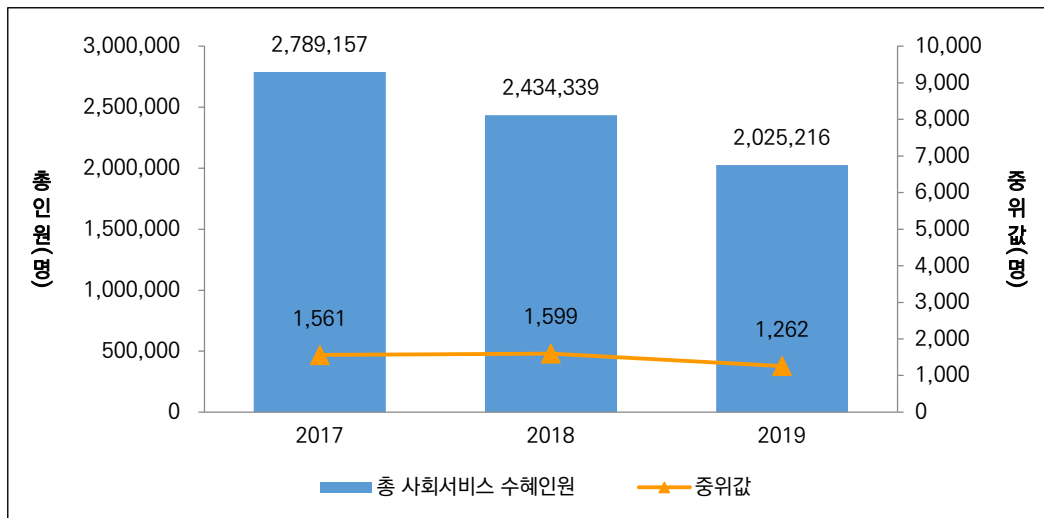
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은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비율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또한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순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대전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의 비율이 각각 23.2%, 19.3%, 1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사회서비스 [그림 3-9]는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추이를 보여준다.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은 2017년 약 279만 명에서 2018년 약 243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9년 약 202만 5천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은 2017년 1,561명에서 2018년 1,599명으로 근소하게 증가하였다가 2019년 1,262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견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큰 변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변동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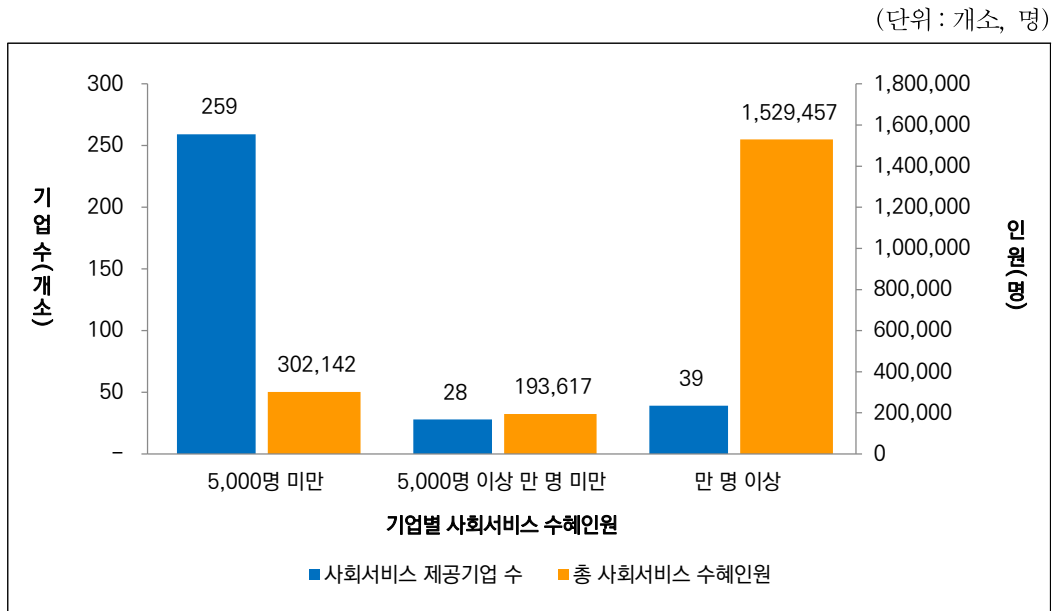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수혜자를 중복 계산하거나,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수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개략적인 인원수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또는 과소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서비스제공기업과 수혜인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10]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사회적기업의 수와 총 수혜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19년 5천 명 미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259개소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79.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인원은 전체 수혜인원의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명 이상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9개소로 1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의 약 75.5% 정도가 만 명 이상 제공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사회적 기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전체 수혜인원의 18.3%가 속한 서울이 약 5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 지역으로 전체 수혜인원의 16.2%인 약 40만 3천 명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남(약 9천 명)과 제주(약 1만 8천 명), 충북(약 2만 9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총인구가 사회서비스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수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수 비율보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및 지역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수혜자			2019 인구주택총조사		
	인원	비율	순위	인원	비율	순위
서울	518,949	18.3	1	9,639,541	18.6	2
부산	55,865	7.8	10	3,372,692	6.5	3
대구	197,694	1.2	4	2,429,940	4.7	7
인천	40,020	5.4	13	2,952,237	5.7	5
광주	160,375	5.1	5	1,489,730	2.9	14
대전	68,044	3.6	9	1,498,839	2.9	13
울산	205,876	5.1	3	1,143,692	2.2	15
세종	-	-	-	338,136	0.7	17
경기	403,097	16.2	2	13,300,900	25.7	1
강원	43,477	5.7	12	1,520,127	2.9	12
충북	29,270	4.5	14	1,629,343	3.1	11
충남	69,167	2.7	8	2,188,649	4.2	8
전북	79,129	7.2	6	1,807,423	3.5	9
전남	55,006	6.3	11	1,787,543	3.5	10
경북	72,162	4.5	7	2,668,154	5.2	6
경남	9,116	3.9	16	3,347,209	6.5	4
제주	17,969	2.7	15	665,048	1.3	16
전체	2,025,216	100.0	-	51,779,203	100.0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통계청(2020) 2019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표 3-12>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19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기업은 2008년 인증기업이 42개소, 2016년 인증기업이 42개소, 2019년 인증기업이 41개소로 가장 많았고, 2015년(34개소)과 2018년(28개소), 2017년(27개소) 인증기업도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2013년이 2,104명으로 가장 높았고, 2018년(1,956명), 2007년(1,786명), 2008년(1,62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수혜인원이 적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17~2019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기업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2017~2018년 사이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나 2019년에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7		2018		2019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2007	13	6,510	13	2,905	13	1,786
2008	43	1,548	44	1,726	44	1,629
2009	19	1,066	19	526	17	1,193
2010	17	444	16	1,173	16	435
2011	17	2,055	16	1,058	14	1,272
2012	17	1,243	18	767	16	634
2013	27	2,160	25	2,916	25	2,104
2014	12	818	11	500	9	1,300
2015	38	1,786	38	1,791	34	1,455
2016	44	2,107	42	1,720	42	1,469
2017	29	1,512	29	1,638	27	999
2018	-	-	31	920	28	1,956
2019	-	-	-	-	41	595
전체	276	1,561	302	1,599	326	1,26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13>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142개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인원 중위값은 1,692명으로 전체 중위값 1,262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184개소의 기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인원 중위값은 803명으로 전체 중위값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2017~2019년 동안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7		2018		2019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일자리제공형	-	-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11	2,188	120	1,986	142	1,692
혼합형	165	1,348	182	1,186	184	803
기타(창의·혁신)형	-	-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전체	276	1,561	302	1,599	326	1,26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14>는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상법상회사가 182개소로 가장 많았고 민법상법인(56개), 일반/사회적협동조합(52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인원 중위값은 제공기업이 1개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민법상법인이 1,98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1,372명), 영농조합법인(1,14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은 2018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혜인원 중위값이 201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2017년 수준보다 더 낮게 감소하여 수혜인원의 중위값 변동폭이 아주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수혜인원 중위값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7		2018		2019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민법상법인	55	4,020	63	3,020	56	1,982
비영리민간단체	34	1,648	26	1,496	30	1,039
사회복지법인	4	294	3	187	3	276
상법상회사	149	1,274	169	1,147	182	1,03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	-	0	-	1	6,584
영농조합법인	2	2,119	2	1,556	2	1,14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	1,538	39	2,549	52	1,372
기타	0	-	0	-	0	-
전체	276	1,561	302	1,599	326	1,26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마지막으로 <표 3-15>에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의 기초분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각 연도의 모든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별로 분석 대상이 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7~2019년 3개년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1,663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기업 나름의 임의적 기준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7		2018		2019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인증 연도	2007	13	6,510	13	2,905	13	1,786
	2008	41	1,548	44	1,726	44	1,629
	2009	18	1,234	19	526	17	1,193
	2010	16	482	16	1,173	16	435
	2011	15	2,460	15	1,268	14	1,272
	2012	15	1,030	16	578	16	634
	2013	25	2,724	24	2,984	25	2,104
	2014	9	362	10	900	9	1,300
	2015	35	1,640	33	1,813	34	1,455
	2016	42	2,107	42	1,720	42	1,469
	2017	29	1,512	29	1,638	27	999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104	2,175	103	1,920	102	1,776
	혼합형	154	1,401	158	1,235	155	89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8	4,028	54	2,232	51	1,823
	비영리민간단체	29	1,962	26	1,496	30	1,039
	사회복지법인	4	294	3	187	3	276
	상법상회사	143	1,320	143	1,300	139	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	-
	영농조합법인	2	2,119	2	1,556	2	1,14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	1,538	33	2,549	32	2,442
	기타	-	-	-	-	-	-
전체		258	1,636	261	1,599	257	1,379

주: 2017, 2018, 2019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663개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만을 대상으로 분석.

중위값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2017년 258개, 2018년 261개, 2019년 257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혜인원

중위값의 경우 2017년 1,636명에서 2018년 1,599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1,379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인증연도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18~2019년 사이에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9년, 2011년, 2012년,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에서 2018~2019년 기간 동안 중위값의 감소가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 추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중위값은 2018년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다소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의 중위값은 2018년 감소했다가 2019년 증가하였다. 여타 조직형태에서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대상층에게 주로 제공되었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인증유형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혼합형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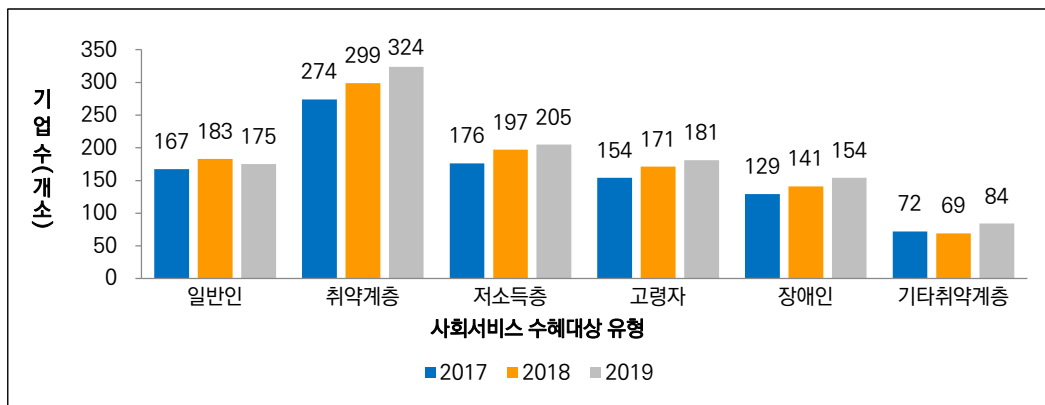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가 취약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need)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림 3-11]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19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24개소였고,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75개소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배 정도로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적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우선대상은 그 수요(need)가 더 큰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수혜대상이 2017~2018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아래 [그림 3-11]에서 알 수 있듯이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2019년에 감소하였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각각 2018년에 전년대비 9.6%(16개소)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4.4%(8개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8년에 전년대비 9.1%(25개소) 증가하였고, 2019년에도 8.4%(25개소) 증가하여 기업 수 기준으로 일반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은 다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유형을 구분하더라도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는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2019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20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령자 대상 181개소, 장애인 대상이 154개소, 기타 취약계층 대상이 84개소 순이었다.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16>은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같거나 더 많아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9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는 서울 지역이 6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이 53개소, 부산 지역이 각각 26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38개소, 경기 지역에 31개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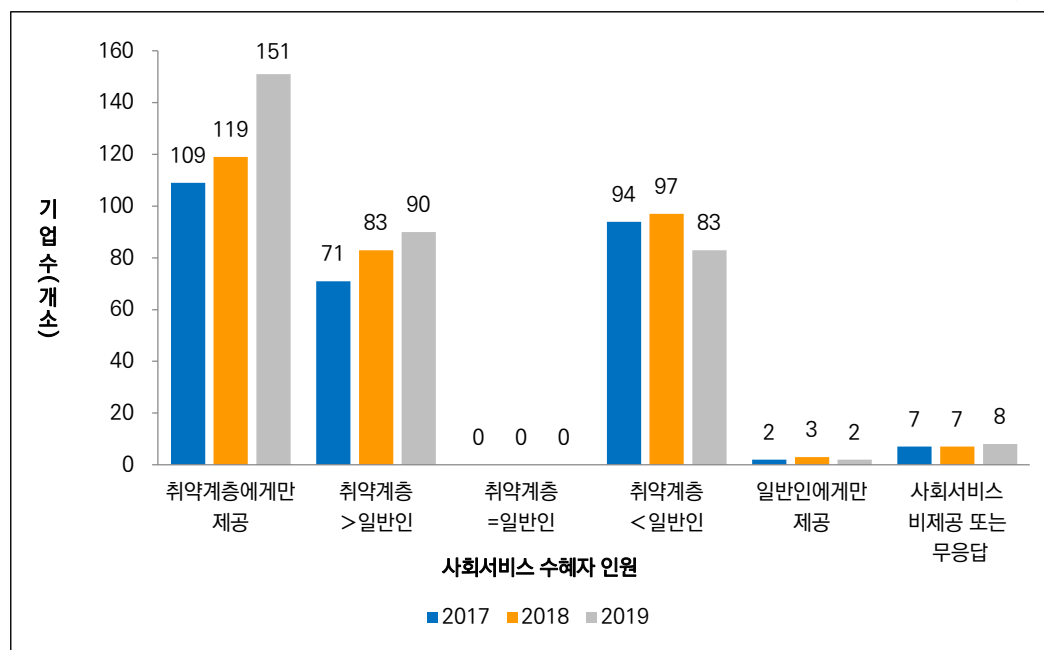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	일반인 서비스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수	순위	기업 수	순위
서울	60	38	1	60	1
부산	26	9	5	26	3
대구	4	4	15	4	16
인천	17	6	11	17	6
광주	16	8	7	16	8
대전	10	6	11	10	13
울산	16	15	3	16	8
세종	0	0	17	0	17
경기	53	31	2	53	2
강원	18	8	7	17	6
충북	15	7	10	15	10
충남	9	6	11	8	15
전북	24	12	4	24	4
전남	21	5	14	21	5
경북	15	9	5	15	10
경남	13	3	16	13	12
제주	9	8	7	9	14
전체	326	175	-	324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3-12]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중 누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151개소), 취약계층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90개소)이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고 있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151개소)은 일반인에게만 제공하는 곳(2개소)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17>은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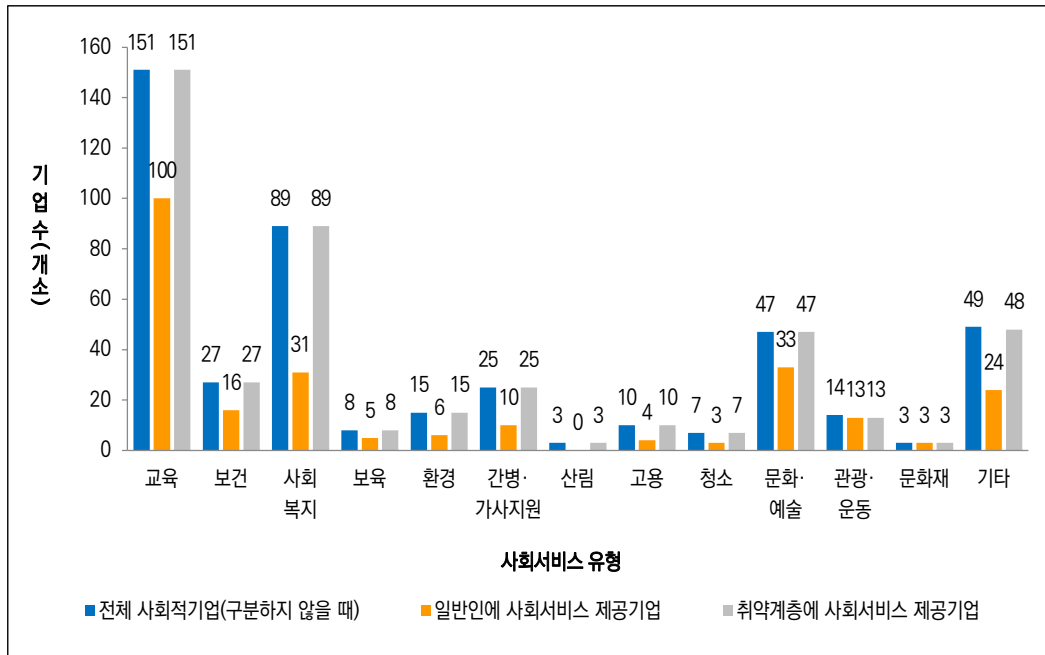
구분	취약계층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만 제공 포함)	일반인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일반인만 제공 포함)
서울	41	19
부산	21	5
대구	2	2
인천	14	3
광주	12	4
대전	8	2
울산	4	12
세종	-	-
경기	41	12
강원	13	5
충북	14	1
충남	6	3
전북	20	4
전남	19	2
경북	8	7
경남	13	0
제주	5	4
전체	241	8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3-13]과 [그림 3-14]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에게(혹은 위주로), 취약계층에게(혹은 위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를 분류·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교육(151개소), 사회복지(89개소), 기타(49개소), 문화·예술(47개소), 보건(27개소), 간병·가사지원(25개소) 순이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전체적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교육(151개소), 사회복지(89개소), 기타(48개소),

문화·예술(47개소), 보건(27개소), 간병·가사지원(2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교육(100개소), 문화·예술(33개소), 사회복지(31개소), 기타(24개소), 보건(16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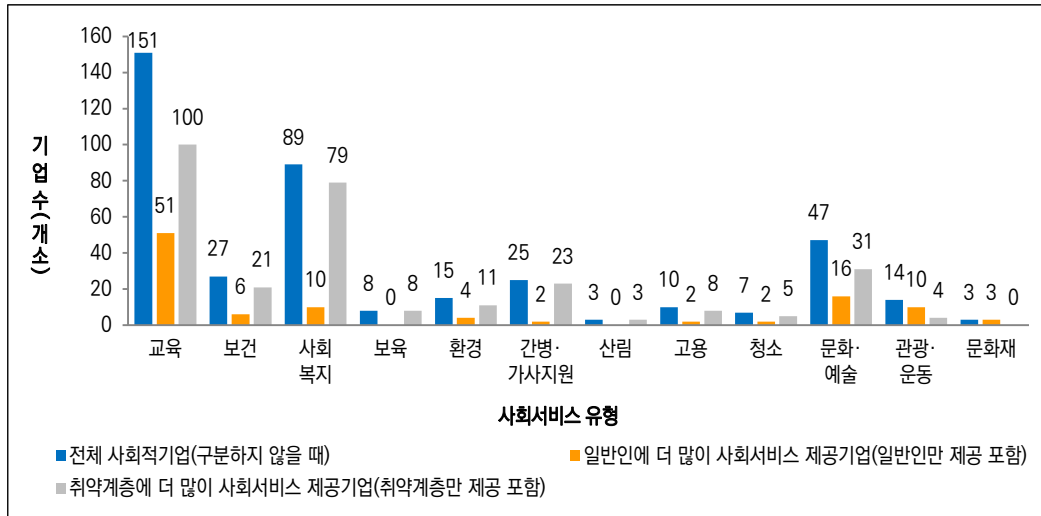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3-14]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는 전체적으로는 교육이 151개소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가 89개소, 문화·예술이 4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교육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이 16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 모두에서 교육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대인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및 관광·운동 분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마지막으로 <표 3-1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셀의 값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의 비율(%)이므로 10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1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전년대비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약 50%와 약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제공기업 수가 1개 기업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100% 미만의 비율이 나타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인증 연도	2007	30.8	8.3	46.2	18.2	30.8	8.3
	2008	27.9	13.2	22.7	12.8	30.2	7.3
	2009	57.9	18.8	63.2	11.8	47.1	6.3
	2010	64.7	41.7	60.0	45.5	56.3	45.5
	2011	81.3	183.3	86.7	100.0	69.2	55.6
	2012	70.6	88.9	77.8	80.0	62.5	33.3
	2013	77.8	58.8	80.0	108.3	72.0	78.6
	2014	66.7	100.0	54.5	22.2	55.6	50.0
	2015	70.3	90.0	70.3	65.2	67.6	88.9
	2016	61.4	63.0	61.9	50.0	47.6	40.0
	2017	75.9	70.6	69.0	107.1	51.9	42.1
	2018	-	-	67.7	55.0	60.7	21.7
	2019	-	-	-	-	61.0	36.7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67.3	65.7	68.9	57.9	57.7	35.2
	혼합형	56.7	46.0	56.1	44.4	51.1	35.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72.2	96.4	67.2	70.3	53.6	40.0
	비영리민간단체	58.8	36.0	57.7	30.0	56.7	42.9
	사회복지법인	-	-	-	-	0.0	0.0
	상법상회사	56.1	39.3	58.3	42.0	50.0	3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100.0	0.0
	영농조합법인	100.0	100.0	100.0	100.0	50.0	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1.9	113.3	69.2	77.3	69.2	33.3
	기타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3-1>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표 부가분석 3-2>는 지역과 표준산업분류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2,025,216명 중,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수혜자 비중이 33.7%(681,57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조업(25.6%, 518,98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1%, 446,763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7%, 176,4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건·복지·교육·문화 관련 사회서비스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해온 정부정책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업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1,420,540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4.3%(487,818명)로 가장 높았고, 교육서비스업(22.8%, 324,252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5%, 319,120명) 순서로 높았다. 반면 일반인 수혜자 280,334명의 분포 비중은 교육서비스업(59.1%, 357,321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1%, 127,643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1%, 61,259명), 제조업(5.2%, 31,1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항목		2017	2018	2019
전체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2,789,157	2,434,339	2,025,216
	인증 연도	2007	186,652	219,403
		2008	1,136,191	616,412
		2009	132,113	192,274
		2010	36,075	24,971
		2011	81,805	57,306
		2012	243,642	299,512
		2013	278,454	305,901
		2014	60,013	59,626
		2015	252,781	154,371
		2016	270,402	255,583
		2017	111,029	126,194
		2018	-	122,786
		2019	-	63,087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1,234,081	1,154,044
		혼합형	1,555,076	1,280,295
		기타(창의·혁신)형	-	-
		지역사회공헌형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839,200	691,895
		비영리민간단체	114,190	159,220
		사회복지법인	11,220	564
		상법상회사	1,353,612	1,109,8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영농조합법인	4,237	3,11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66,698	469,729
		기타	-	-

항목			2017	2018	2019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734,183	1,563,729	1,420,540
	인증 연도	2007	145,192	155,448	78,724
		2008	859,564	476,864	538,091
		2009	120,697	166,278	92,474
		2010	25,451	18,686	23,548
		2011	23,351	23,726	18,998
		2012	177,569	255,674	197,210
		2013	97,998	96,495	91,917
		2014	18,640	24,962	19,653
		2015	68,513	50,874	55,084
		2016	149,344	155,429	111,112
		2017	47,864	48,923	49,364
		2018	-	90,370	104,895
		2019	-	-	39,47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651,559	653,712	747,810
		혼합형	1,082,624	910,017	672,730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14,252	370,093	300,987
		비영리민간단체	75,344	120,302	49,643
		사회복지법인	11,220	564	1,873
		상법상회사	1,128,037	844,160	809,0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3,418
		영농조합법인	2,211	1,855	1,93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03,119	226,755	253,665
		기타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054,974	870,610	604,676
	인증 연도	2007	41,460	63,955	43,867
		2008	276,627	139,548	100,531
		2009	11,416	25,996	5,273
		2010	10,624	6,285	6,774
		2011	58,454	33,580	25,820
		2012	66,073	43,838	57,577
		2013	180,456	209,406	116,256
		2014	41,373	34,664	42,610

항목			2017	2018	2019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인증 연도	2015	184,268	103,497	98,565
		2016	121,058	100,154	22,049
		2017	63,165	77,271	37,420
		2018	-	32,416	24,317
		2019	-	-	23,617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582,522	500,332	349,404
		혼합형	472,452	370,278	255,272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24,948	321,802	303,259
		비영리민간단체	38,846	38,918	31,017
		사회복지법인	0	-	-
		상법상회사	225,575	265,659	110,75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3,166
		영농조합법인	2,026	1,257	35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63,579	242,974	156,124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19)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518,949	55,885	197,694	40,020	180,375	68,044	255,576	-	483,097	43,477	29,270	68,167	79,129	55,006	9,116	17,989
전체 서비스 수혜자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J)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S)	-	-	-	-
	4,555	681,573	2,775	68,416	446,763	19,977	1,046	176,403	334	518,983	84,382	20,019	-	-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425,729	39,927	108,448	37,075	151,309	39,546	76,339	-	276,858	20,078	25,713	47,739	55,894	51,533	48,985	6,517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J)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S)	-	-	-	-
	4,198	324,252	1,755	64,888	319,120	7,187	1,046	115,144	288	487,818	76,050	18,804	-	-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93,220	15,938	89,246	2,945	9,066	28,498	129,537	-	126,239	23,399	3,557	21,428	23,255	3,453	23,177	11,452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J)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S)	-	-	-	-
	397	357,221	1,020	3,548	127,643	12,700	-	61,259	36	31,165	8,312	1,215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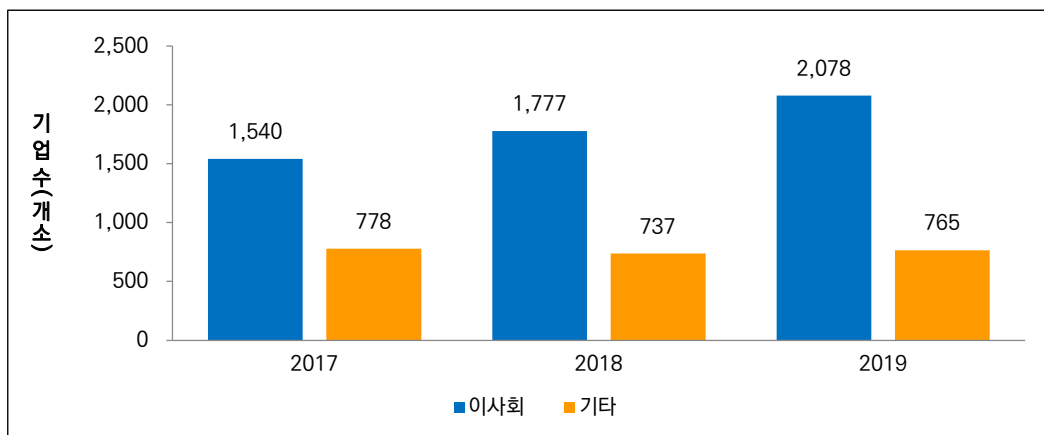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해 보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해 보면, 인증 요건 중 하나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추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그림 3-15]는 2017~2019년 사회적기업이 활용한 의사결정구조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회의체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있으나, 2017~2019년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 이사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경우 이사회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회와 기타(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의사결정기구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 3-15]와 같다. 이사회를 활용한 기업은 2017년 1,540개소, 2018년 1,777개소, 2019년 2,078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사회가 아닌 기타 회의체는 2017년 778개소, 2018년 737개소, 2019년 765개소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단위: 회, 개소)

지역	구분	이사회	기타
서울	평균	3.0	2.5
	기업 수	391	162
부산	평균	3.0	3.2
	기업 수	86	27
대구	평균	3.6	2.9
	기업 수	64	23
인천	평균	3.1	3.6
	기업 수	131	47
광주	평균	3.0	2.6
	기업 수	104	32
대전	평균	3.2	2.5
	기업 수	54	36
울산	평균	3.0	3.1
	기업 수	70	19
세종	평균	4.7	2.6
	기업 수	11	8
경기	평균	3.6	4.2
	기업 수	343	87
강원	평균	3.5	1.7
	기업 수	117	34
충북	평균	3.1	2.6
	기업 수	95	21
충남	평균	2.9	2.3
	기업 수	91	70
전북	평균	3.6	2.4
	기업 수	131	76
전남	평균	3.3	2.0
	기업 수	113	23
경북	평균	3.2	2.6
	기업 수	126	54
경남	평균	2.8	3.0
	기업 수	103	25
제주	평균	3.2	3.0
	기업 수	48	21
계	평균	3.2	2.8
	기업 수	2,078	765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표 3-19>는 의사결정기구 활용 평균 개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해 본 표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사회 개최 건수의 평균은 연간 3.2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개최 건수 평균도 연간 2.8회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는 지역별로는 세종 지역(평균 4.7회)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 전북 지역이 평균 3.6회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평균 2.8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기타 회의체 개최 건수는 경기도 평균 4.2회로 가장 많고 강원이 평균 1.7회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활동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단위: 개소, 회)

구분		이사회		기타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 연도	2007	27	3.7	19	4.5
	2008	82	3.6	52	2.8
	2009	38	3.3	32	2.6
	2010	101	3.0	68	3.1
	2011	75	3.2	60	3.4
	2012	93	3.4	53	3.6
	2013	159	3.1	76	2.3
	2014	166	3.1	85	2.5
	2015	221	3.1	65	2.1
	2016	228	3.5	66	2.3
	2017	226	3.3	57	2.6
	2018	291	3.5	49	2.5
	2019	371	2.9	83	2.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375	3.2	483	2.8
	사회서비스제공형	129	3.7	53	3.0
	혼합형	172	3.4	75	2.4
	기타(창의·혁신)형	261	3.0	103	2.2
	지역사회공헌형	141	3.7	51	3.5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66	2.9	126	2.6
	비영리민간단체	57	2.8	72	3.0
	사회복지법인	19	3.6	59	3.9
	상법상회사	1,389	3.1	307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7.3	5	2.2
	영농조합법인	71	3.9	20	2.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68	3.8	176	3.1
	기타	0	-	0	-
계		2,078	3.2	765	2.8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기타 회의체의 평균 개최 건수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위의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회의 경우 인증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3.2회 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는 2015년 인증기업 2.1회부터 2007년 인증기업 약 4.5회로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지역사회공헌형에서 평균 3.7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회의체 또한 지역사회공헌형에서 3.5회로 가장 많이 개최하였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기업 수가 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사회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가 적었고, 기타 회의체의 경우에도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3-21>과 <표 3-22>에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의 추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기업별로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7~2019년 세 개 년도 사업보고서 원자료에 모두 포함된 동일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에 따르면, 2017~2019년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1,663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2017년 1,423개, 2018년 1,413개, 2019년 1,416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평균 회의 개최 건수 역시 2017년 3.30회, 2018년 3.44회, 2019년 3.26회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를 제시한 <표 3-22>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715개의 기업이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였는데 2018년에는 659개로 감소하였고, 2019년의 경우도 632개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개최 건수 역시 2017~2018년 기간 동안 3.43회에서 3.03회로 감소하였고, 2019년의 경우에도 2.77회로 감소하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데, 조직형태 중 상법상 회사에서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단위: 개소, 회)

구분		2017		2018		2019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 증 연 도	2007	27	3.41	26	3.85	27	3.74
	2008	81	3.77	79	3.59	82	3.59
	2009	41	2.85	38	3.05	38	3.32
	2010	94	2.82	101	3.07	101	3.05
	2011	74	2.62	69	3.28	75	3.16
	2012	89	3.04	91	3.64	93	3.35
	2013	168	3.12	158	3.19	159	3.14
	2014	169	3.37	166	3.48	166	3.05
	2015	220	3.28	224	3.32	221	3.15
	2016	229	3.59	227	3.63	228	3.47
	2017	231	3.52	234	3.62	226	3.31
인 증 유 형	일자리제공형	966	3.28	963	3.35	957	3.16
	사회서비스제공형	93	3.69	92	4.03	92	3.77
	혼합형	140	2.99	134	3.32	141	3.45
	기타(창의·혁신)형	158	2.99	154	3.25	156	3.12
	지역사회공헌형	66	4.44	70	4.53	70	3.94
조 직 형 태	민법상법인	179	2.87	174	3.05	176	3.03
	비영리민간단체	39	2.90	35	2.69	47	2.74
	사회복지법인	20	3.40	21	3.57	19	3.58
	상법상회사	981	3.17	968	3.33	972	3.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8.00	3	7.33	3	4.33
	영농조합법인	51	4.51	54	4.30	50	4.22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48	4.24	157	4.35	149	4.17
	기타	2	3.50	1	2.00	-	-
전체		1,423	3.30	1,413	3.44	1,416	3.26

주: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17, 2018, 2019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663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단위 : 개소, 회)

구분		2017		2018		2019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 증 연 도	2007	22	5.68	19	6.16	19	4.53
	2008	60	6.12	50	3.76	52	2.75
	2009	31	2.65	34	2.65	31	2.61
	2010	83	3.37	74	3.66	68	3.13
	2011	70	3.30	63	3.32	60	3.43
	2012	61	4.08	50	4.56	53	3.58
	2013	81	2.88	80	2.26	76	2.34
	2014	93	3.03	94	2.59	85	2.46
	2015	86	2.88	71	2.11	65	2.14
	2016	67	2.75	65	2.28	66	2.33
	2017	61	2.77	59	2.90	57	2.65
인 증 유 형	일자리제공형	478	3.14	435	2.90	409	2.78
	사회서비스제공형	50	3.70	43	4.28	43	3.23
	혼합형	69	4.72	70	3.11	71	2.41
	기타(창의·혁신)형	84	3.64	79	2.46	77	2.23
	지역사회공헌형	34	3.82	32	4.38	32	4.13
조 직 형 태	민법상법인	105	2.97	109	2.75	107	2.56
	비영리민간단체	76	3.70	71	3.17	70	3.01
	사회복지법인	63	4.11	62	4.06	59	3.86
	상법상회사	341	3.35	283	2.96	273	2.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4.00	2	1.50	2	1.50
	영농조합법인	20	1.50	16	2.75	17	2.76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08	3.88	116	2.87	104	2.98
	기타	1	1.00	-	-	-	-
전체		715	3.43	659	3.03	632	2.77

주 : 평균 개최 건수는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17, 2018, 2019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663개 사회적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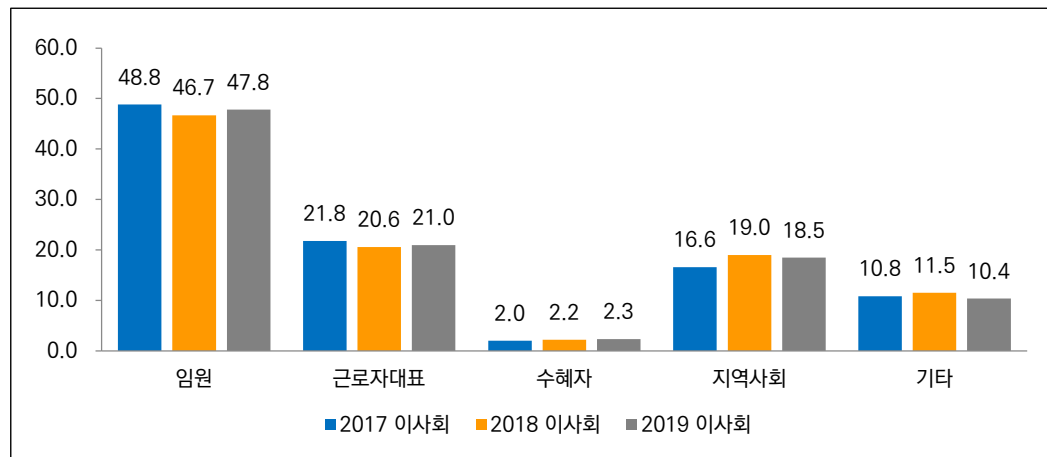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한편, 아래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는 각 사회적기업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을 평균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사내 이해관계자로 임원, 근로자대표가 있고, 사외 이해관계자로는 수혜자, 지역사회참여자, 기타 참여인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원이 이사회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참여자가 각각 약 20% 내외로 이사회에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 동안 임원 및 수혜자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이사회 참여자의 비율은 대체로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 참여인원 비율은 다음 [그림 3-17]과 같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약 40% 내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의 기타 회의체 참여비율은 2018년에는 약 10%p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수혜자의 기타 회의체 참여비율은 근소하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안정적인지만, 사회적기업들에서 서비스수혜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이행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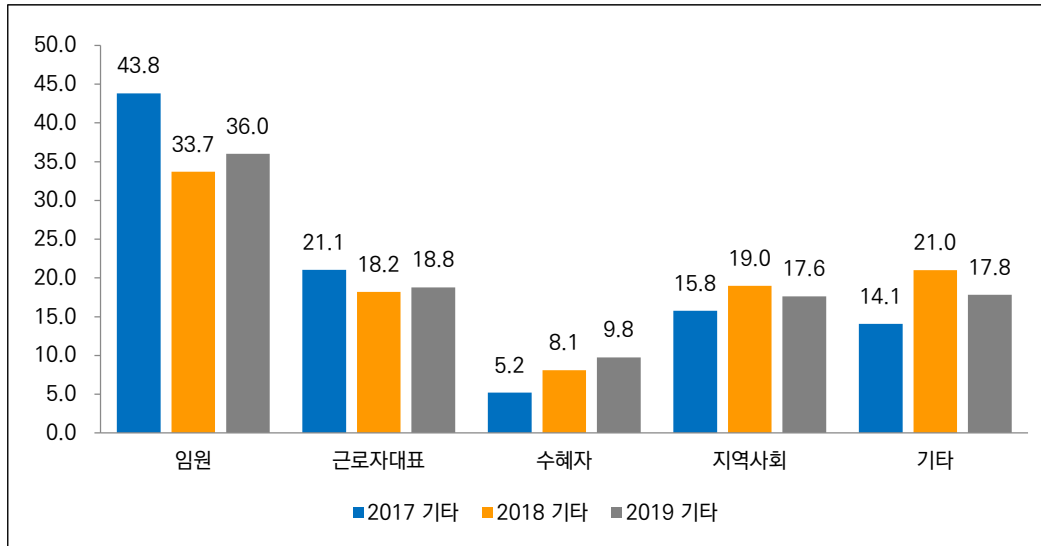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인원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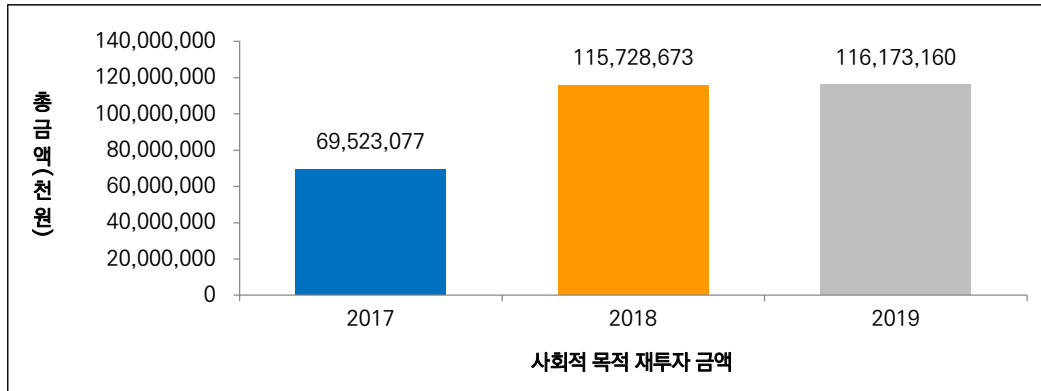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제4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3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동법 제8조 7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의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 3-18]과 같다. 2017년 약 695억 원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은 2018년 예년 수준인 약 1천 157억 원으로 회복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근소하게 증가한 약 1천 16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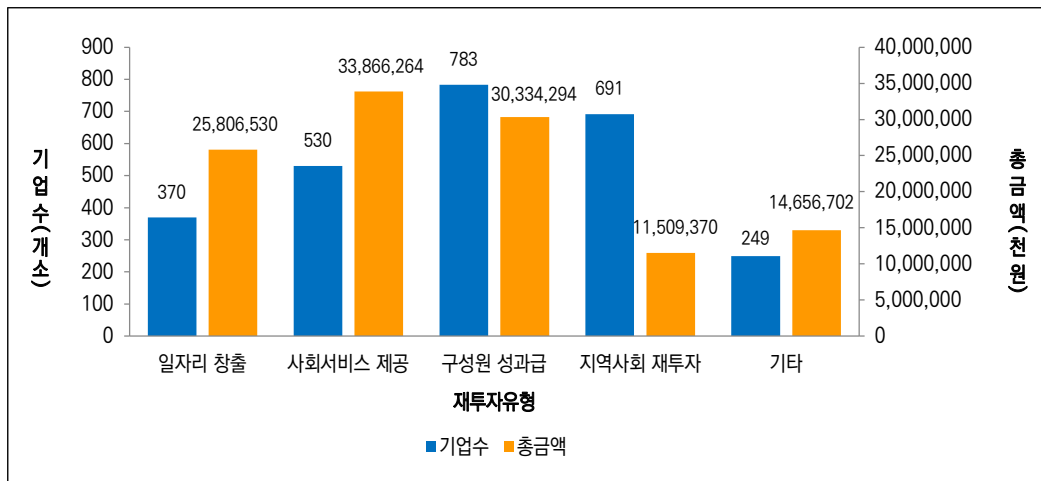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3-19]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투자유형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 재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에 재투자한 기업은 530개소, 약 339억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약 1,035억 원을 783개 사회적기업이 약 3백억 원을 구성원 성과급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370개 기업이 약 258억 원을 재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다. 반면에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691개 기업이 약 115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다.

<표 3-23>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액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9년에는 총 1,279개의 사회적기업이 약 1,161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 전년도에 총 1,281개 기업의 약 1천 157억 원에 비해 재투자를 한 기업 수 및 금액이 모두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지역	사회적 목적 재투자			총 재투자 금액		
	기업 수	총수 대비 %	순위	금액	총금액 대비 %	순위
서울	240	18.8	2	37,478,222	32.3	1
부산	6	0.5	16	259,954	0.2	17
대구	42	3.3	12	3,333,350	2.9	11
인천	79	6.2	6	5,489,160	4.7	6
광주	83	6.5	4	6,214,344	5.3	4
대전	22	1.7	15	741,103	0.6	15
울산	26	2.0	14	419,278	0.4	16
세종	6	0.5	16	1,004,713	0.9	14
경기	256	20.0	1	26,682,731	23.0	2
강원	59	4.6	10	6,123,342	5.3	5
충북	68	5.3	8	3,972,838	3.4	8
충남	53	4.1	11	3,713,158	3.2	10
전북	80	6.3	5	5,348,639	4.6	7
전남	67	5.2	9	2,325,524	2.0	12
경북	90	7.0	3	7,463,147	6.4	3
경남	70	5.5	7	3,856,509	3.3	9
제주	32	2.5	13	1,747,148	1.5	13
계	1,279	100.0	-	116,173,160	100.0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많은 금액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였다. 서울은 240개 사회적기업이 약 375억 원을, 경기 지역은 256개 사회적기업이 약 267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였

다.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59개 기업이 약 61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재투자 금액은 많았다.

한편, 아래 <표 3-2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금액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전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 연도	2007	12	216,097	1	63,270	2	241,135	9	35,737	6	3,948	4	425,577
	2008	38	100,362	5	56,269	11	185,627	26	42,992	19	6,968	10	24,032
	2009	20	78,702	3	148,078	2	2,239	14	74,612	13	5,648	2	3,666
	2010	51	122,742	6	70,710	16	14,077	30	84,602	30	13,380	9	296,763
	2011	34	201,787	6	177,116	8	40,382	24	82,556	20	18,362	6	521,074
	2012	53	57,635	13	54,308	16	9,368	40	32,946	22	8,434	15	46,359
	2013	79	254,321	19	41,838	24	569,444	40	22,533	42	84,363	16	74,074
	2014	86	95,766	17	106,021	39	77,075	47	54,372	44	10,340	21	19,866
	2015	122	118,527	21	60,497	50	93,852	70	92,434	74	18,245	21	32,230
	2016	132	67,409	32	80,942	58	21,324	77	38,491	65	10,958	32	43,594
	2017	160	60,207	48	86,505	67	17,810	97	21,205	92	13,766	30	32,144
	2018	192	58,814	62	56,088	82	14,866	130	35,996	115	10,159	36	20,781
	2019	300	64,686	137	63,775	155	36,292	179	13,329	149	12,284	47	17,604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91	74,825	271	71,601	342	19,514	538	47,375	516	11,276	162	57,317
	사회서비스제공형	75	140,415	18	43,708	41	205,427	43	19,416	26	11,903	13	13,654
	혼합형	78	60,378	17	49,583	38	63,219	44	20,364	35	5,653	16	23,150
	기타(창의·혁신)형	147	186,123	38	82,402	62	234,758	102	21,909	67	58,909	34	102,710
	지역사회공헌형	88	78,452	26	63,141	47	38,571	56	15,733	47	26,317	24	55,47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21	97,211	44	48,037	44	64,755	74	29,723	62	10,399	15	263,692
	비영리민간단체	30	31,239	5	34,056	10	28,909	18	11,380	9	28,979	4	3,043
	사회복지법인	13	59,279	3	29,610	2	29,123	10	59,232	3	1,603	4	6,605
	상법상회사	892	96,769	247	68,608	373	71,543	551	43,935	499	18,936	183	49,3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	-	-	-	-	-	-	-
	영농조합법인	52	66,246	19	70,868	21	11,097	29	11,161	26	16,481	13	85,62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1	75,672	52	98,866	80	46,891	101	27,780	92	7,840	30	17,348
기타형	-	-	-	-	-	-	-	-	-	-	-	-	
계		1,279	90,831	370	69,747	530	63,899	783	38,741	691	16,656	249	58,862

주: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인증기업의 전체 재투자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7년과 2011년 인증기업이 각각 약 2억 2천만 원, 약 2억 원으로 많았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별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2013년 인증기업은 24개 기업이 평균 약 5억 7천만 원을 배분하여 가장 많았고, 구성원성과급의 경우 2015년 인증받은 70개 기업이 약 9천만 원을 배분하여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재투자의 경우 42개소의 2013년 인증기업이 약 8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고, 그 외 기타 재투자 금액으로 2011년 인증기업이 6개소에 약 5억 2천만 원을 배분하여 기업의 인증연도에 따라 재투자하는 항목이 상이한 경향이 도출되었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891개소로 기업 수가 가장 많아서 사회적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재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으로 인증유형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였다. 평균 재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1억 9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혼합형은 약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해당 기업 수가 없는 기타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민법상법인과 상법상회사가 약 9천7백만 원으로 재투자 금액이 가장 많았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재투자 금액은 약 3천1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3-25>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 추이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도 기업이 나름의 기준으로 임의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7~2019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에 모두 포함된 1,66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7년 880개에서 2018년 1,039개로 대폭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786개로 급감하였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평균금액은 2017년 약 7천7백만 원에서 2018년 약 9천3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약 1억 9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에서 2017년에서 2018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평균금액의 경우, 각 기업 구분별로

연도별 추이는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유형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금액 추이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6	129,652	15	242,660	12	216,097
	2008	45	67,925	56	83,982	38	100,362
	2009	23	26,382	25	45,090	19	80,257
	2010	54	51,303	74	56,560	51	122,742
	2011	41	129,254	55	258,181	34	201,787
	2012	56	50,315	61	59,717	53	57,635
	2013	97	132,941	115	172,062	79	254,321
	2014	106	82,885	123	73,619	86	95,766
	2015	145	103,590	163	77,891	122	118,527
	2016	149	60,574	162	84,875	132	67,409
	2017	148	34,691	190	50,301	160	60,20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645	64,382	750	79,347	565	81,845
	사회서비스제공형	49	150,656	64	83,346	50	162,876
	혼합형	64	58,038	78	74,656	57	70,933
	기타(창의·혁신)형	86	131,408	105	200,344	75	309,931
	지역사회공헌형	36	98,953	42	110,486	39	96,19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63	58,560	85	64,857	54	120,416
	비영리민간단체	17	30,637	31	49,642	24	26,143
	사회복지법인	20	102,981	23	153,693	13	59,279
	상법상회사	664	82,174	754	100,133	581	118,18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106	2	712	-	-
	영농조합법인	38	79,725	40	104,472	32	86,435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77	47,065	103	57,152	82	74,286
	기타	-	-	1	189,800	-	-
전체		880	76,689	1,039	92,728	786	108,684

주: 평균금액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2017, 2018, 2019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663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제4장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 지출 구조,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일반인 고용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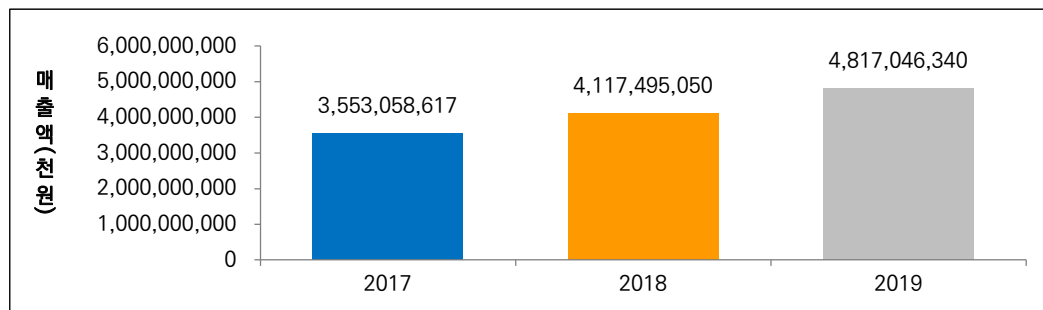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매출액

먼저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9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4조 8천2백억 원의 매출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7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2018년 사이의 약 5천6백억 원의 매출 총액 증가폭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4-1] 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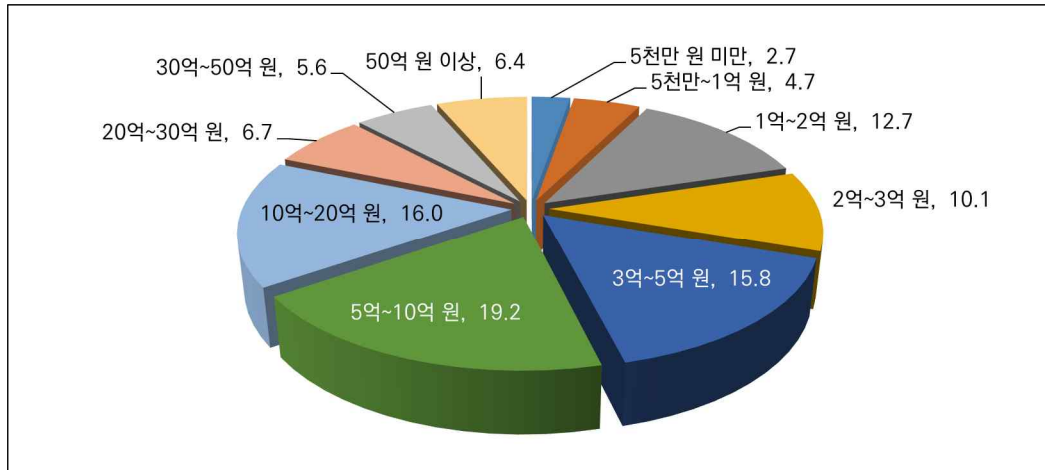
(전체 2,351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2]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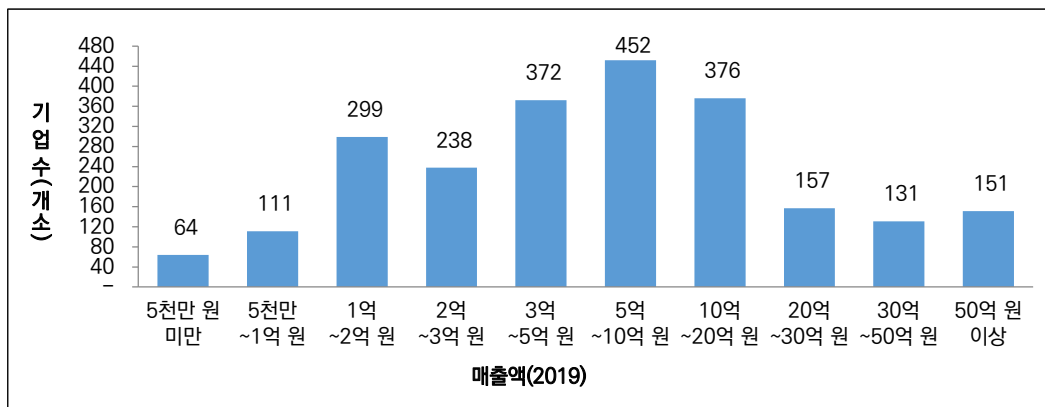
(전체 2,351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3]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351개소,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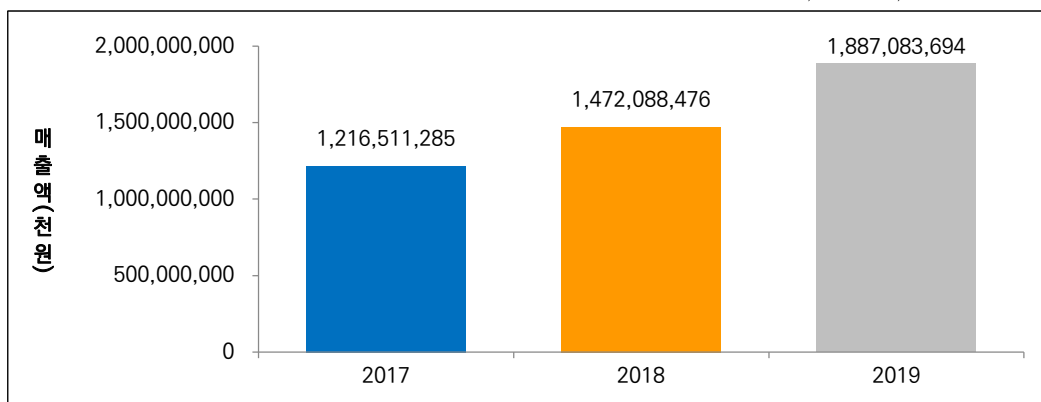
[그림 4-2]와 [그림 4-3]은 2019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분포 및 매출액에 따른 기업 수이다. 전체 2,351개의 매출액이 있는 사회적기업 중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달성한 곳이 452개소(19.2%)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10억~20억 원 사이가 376개소(16.0%), 3억~5억 원 사이가 372개소(15.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4]~[그림 4-8]은 앞서 보고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4]와 같이,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1,562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1조 8천9백 억 원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공공 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5]와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매출 을 달성한 기업이 222개소(14.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5억~10억 원의 매 출을 올린 기업이 228개소(14.6%), 1억~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21개소 (14.1%)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4] 공공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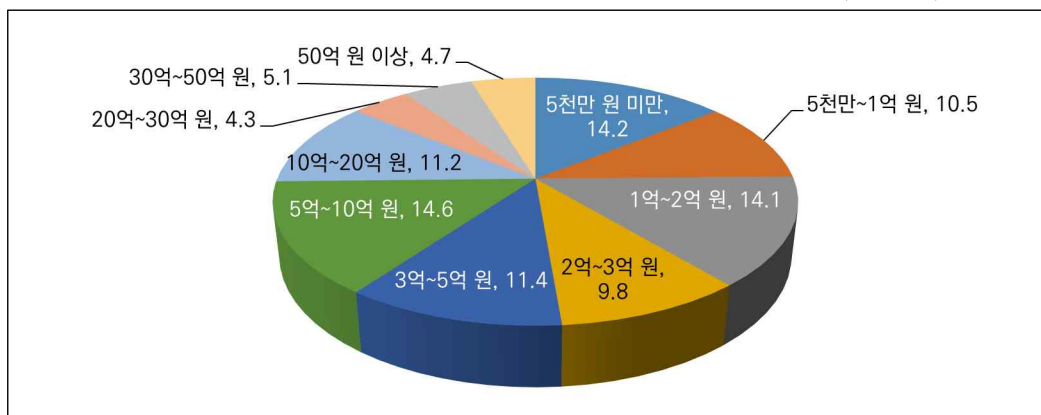
(전체 1,562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5]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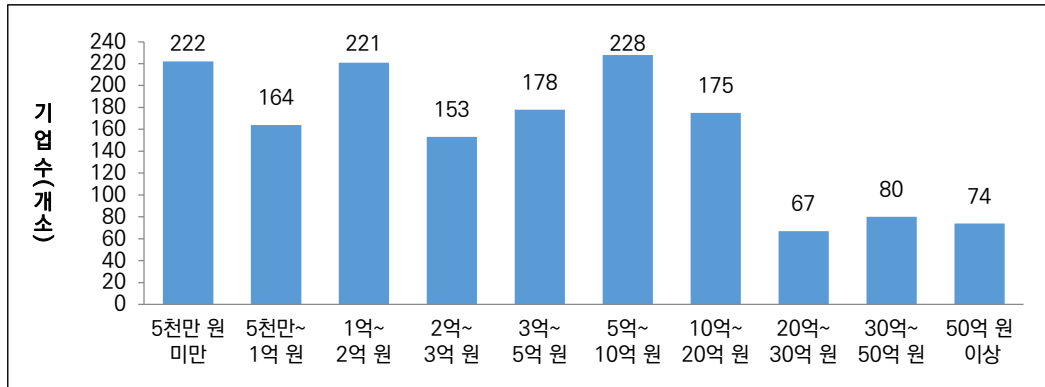
(전체 1,562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6]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1,562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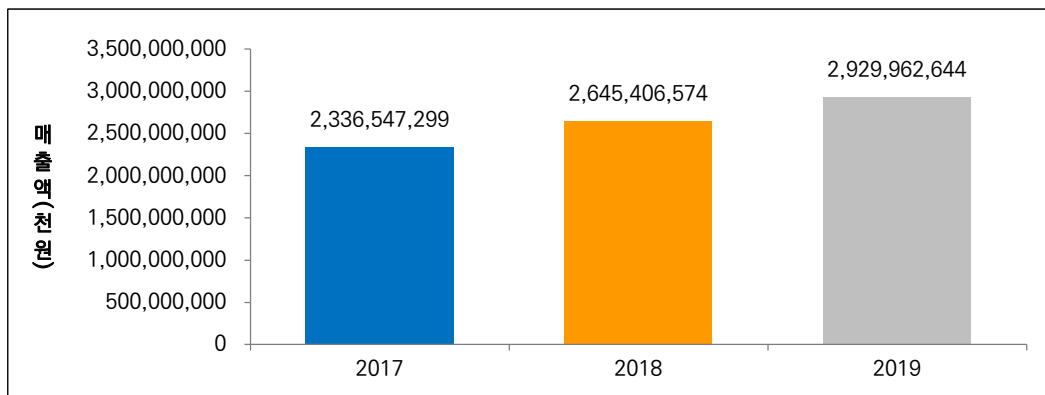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7]과 같이, 민간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032개소이며 민간매출 총액의 평균은 약 2조 9천억 원으로 공공매출에 비해 매출 규모가 더 컸고, 민간매출 역시 공공매출과 마찬가지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8]과 [그림 4-9]를 통해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는 1억~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358개소(1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억~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01개소(14.8%),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92개소(14.4%)로 나타났다.

[그림 4-7] 민간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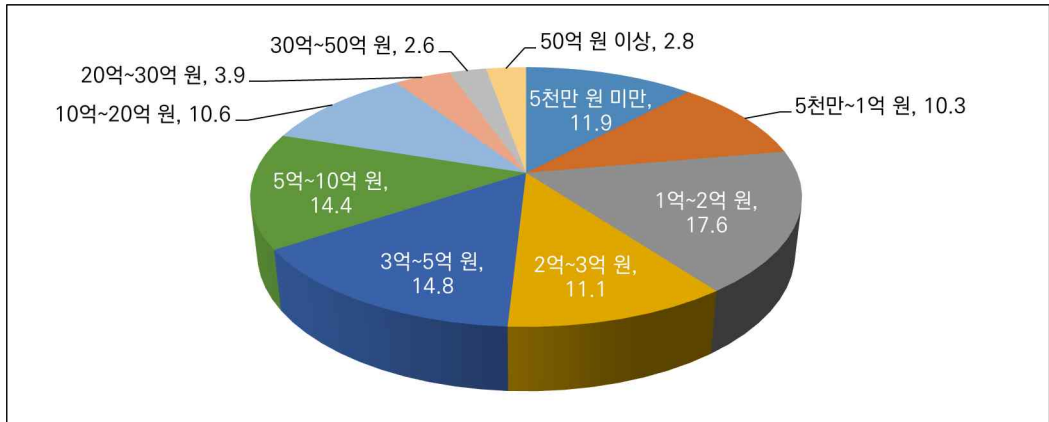
(전체 2,032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8]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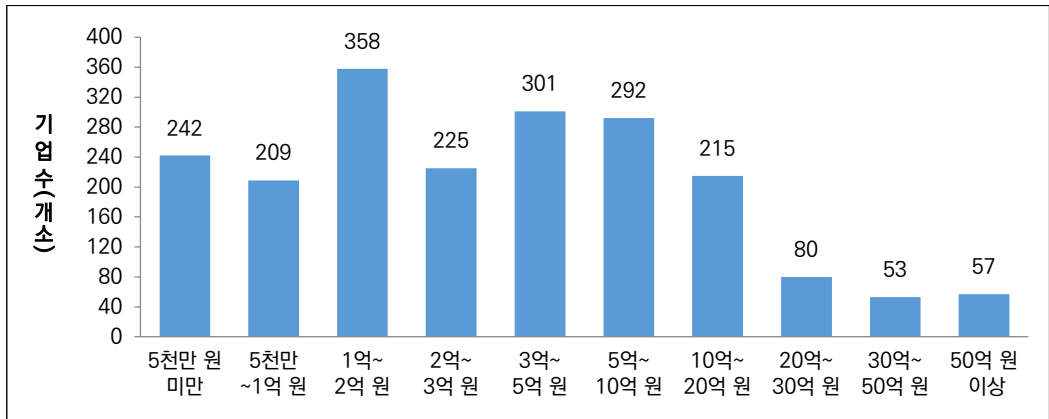
(전체 2,032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9]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032개소, 단위: 개소)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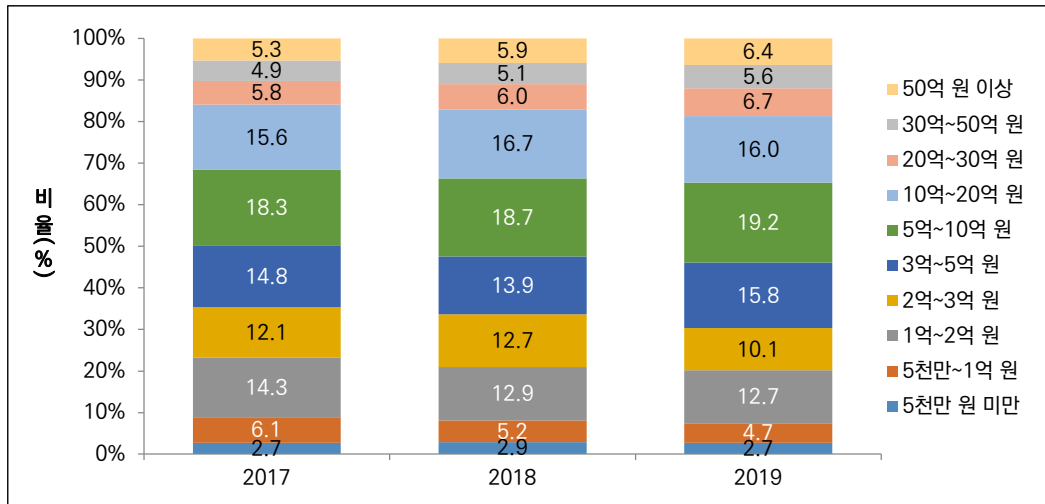
한편, 다음의 [그림 4-10]~[그림 4-18]은 2017~2019년도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와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그림 4-10]과 [그림 4-11]의 연도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매출액 분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18.3%에서 18.7%, 19.2%로 점차 근소하게 증가하는 반면, 5천만 ~1억 원 사이와 1억~2억 원 사이 매출 규모의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점차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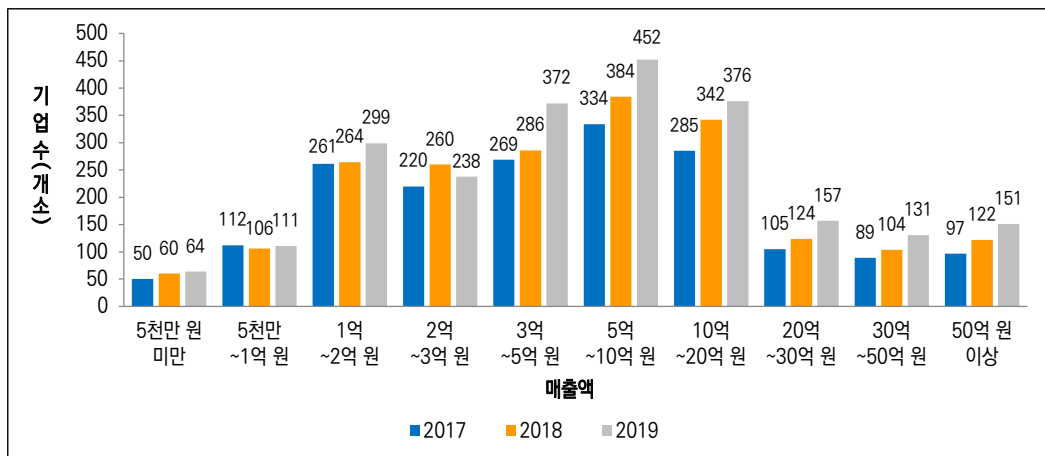
(단위 : %)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1] 연도별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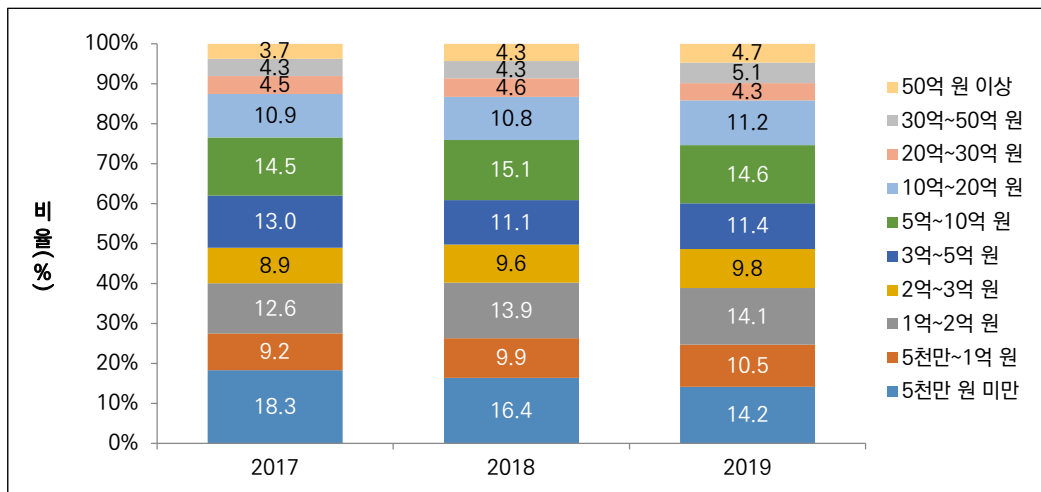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리고 [그림 4-12]와 [그림 4-13]의 연도별 공공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추이와 유사하게 큰 변동은 없으나, 대체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다만, 1억~2억 원, 2억~3억 원 및 50억 원 이상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반면, 매출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인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근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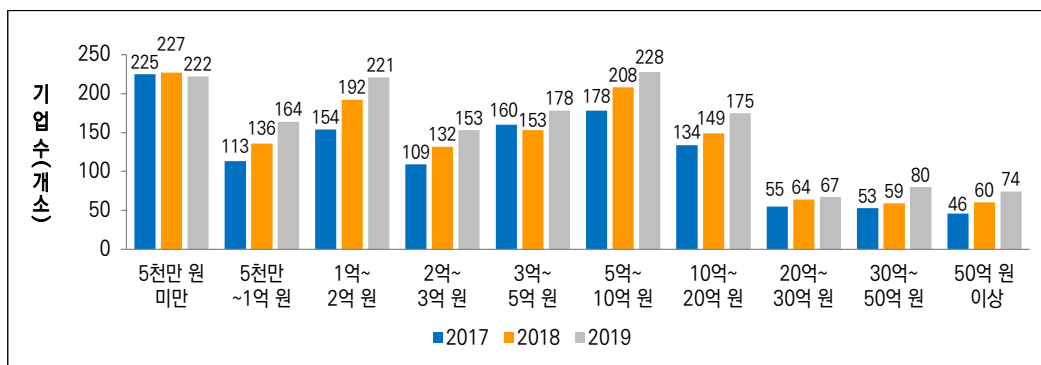
(단위: %)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3]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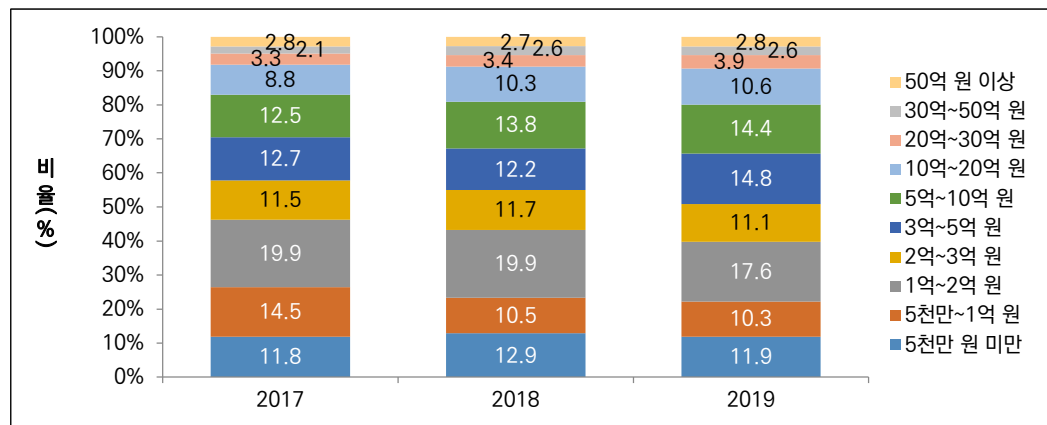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한편, [그림 4-14]와 [그림 4-15]의 연도별 민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그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민간매출 규모가 5천만~1억 원 사이의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근소하게 감소하고, 5억~10억 원 사이 및 10억~20억 원 사이, 20억~30억 원 사이 구간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4] 연도별 민간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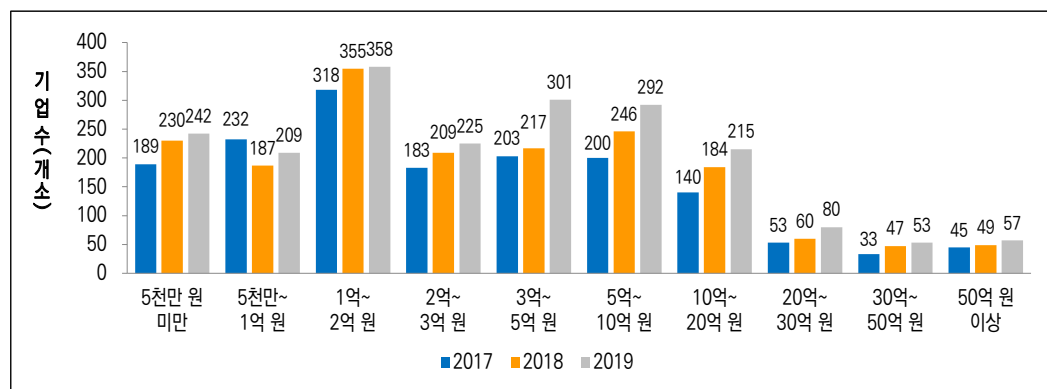
(단위: %)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5]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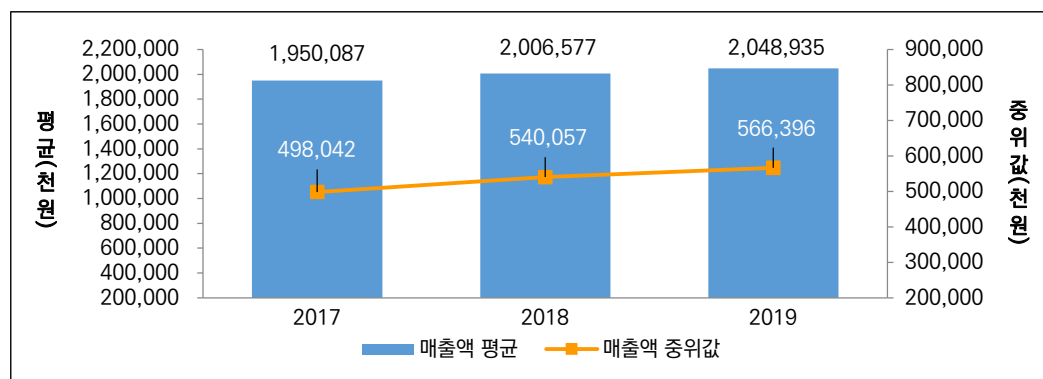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6]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매출액 평균은 근소하게 상승하고 있었으며, 2017년(약 19억 5천만 원)에 비해 2018년(약 20억 원)의 매출액 평균은 약 2.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9년(약 20억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2.1%의 성장률을 보여 성장률은 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위값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은 약 8.4%, 2019년 약 4.9%의 성장률을 보여, 기업당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6]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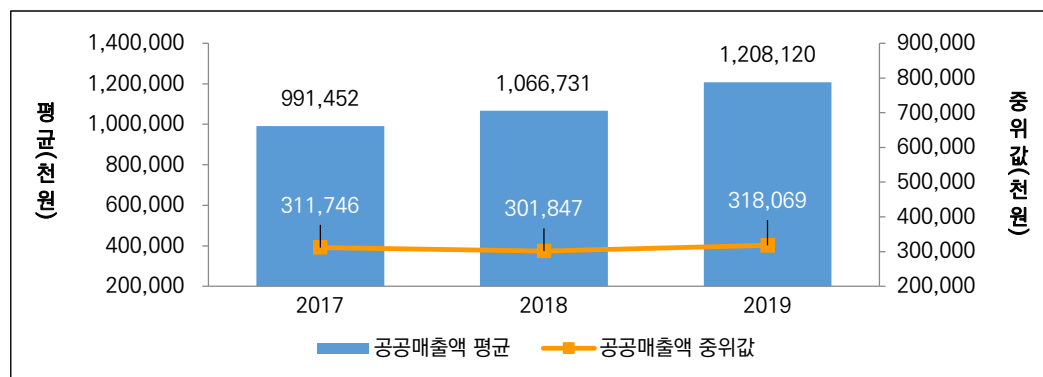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7]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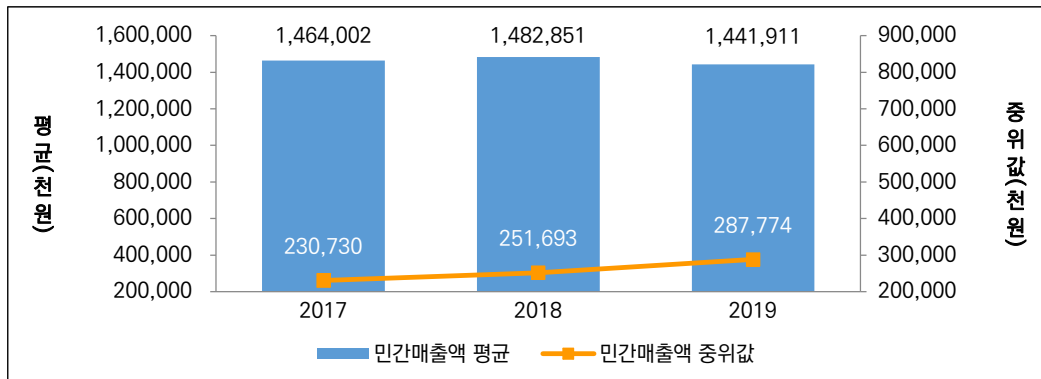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8]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17]과 [그림 4-18]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 매출액의 평균은 2017년 약 9억 9천만 원, 2018년 약 10억 1천만 원(전년 대비 7.6% 증가), 2019년 약 12억 1천만 원(전년 대비 13.3% 증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값은 2017년 약 3억 1천만 원에서 2018년 약 3억 원(전년 대비 3.2% 감소)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약 3억 2천만 원(전년 대비 5.4% 증가)으로 다시 회복하였다. 반면, 민간 매출액의 평균은 2017년 약 14억 6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4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9년 14억 4천만 원(전년 대비 2.8% 감소)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민간 매출액의 중위값은 2017년 약 2억 3천만 원에서 2018년 약 2억 5천만 원(전년 대비 9.1% 증가)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약 2억 9천만 원(전년 대비 14.3% 증가)으로 증가폭이 늘어났다.

다음으로 아래 <표 4-1>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 평균과 중위값을 총매출액과 공공/민간시장매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고 총 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같이 서울(약 47억 9천만 원, 449개소)이었고, 다음으로 경기(약 20억 4천만 원, 400개소), 경북(약 18억 9천만 원, 146개소), 충북(약 14억 9천만 원, 10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위값이 높은 지역은 경기(약 9억 7천만 원), 제주(약 7억 7천만 원), 서울(약 6억 7천만 원), 경북(약 6억 5천만 원) 순이었다. 세종을 제외하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19억

원, 327개소)이었고, 경기(약 17억 9천만 원), 강원(약 12억 6천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39억 6천만 원, 386개소)이었고, 경북(약 17억 1천만 원), 제주(약 11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장매출 평균이 민간시장매출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이었으며, 반대로 민간시장매출 평균이 공공시장매출 평균보다 더 많은 지역은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울산, 세종, 충북의 경우, 공공과 민간시장매출의 평균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의 분포 및 특성,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공공기관들의 입지 등 여러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지역별 매출액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	4,794,466	449	670,705
	공공시장매출	1,906,780	327	358,040
	민간시장매출	3,961,654	386	330,051
부산	매출	946,290	112	397,561
	공공시장매출	789,099	77	260,970
	민간시장매출	471,082	96	234,402
대구	매출	881,682	81	385,465
	공공시장매출	627,327	59	269,825
	민간시장매출	498,608	69	201,141
인천	매출	987,556	144	383,997
	공공시장매출	758,986	84	223,694
	민간시장매출	598,880	131	220,300
광주	매출	1,028,521	108	522,135
	공공시장매출	851,710	64	238,722
	민간시장매출	565,709	100	299,240
대전	매출	1,225,403	65	503,737
	공공시장매출	601,446	45	380,778
	민간시장매출	939,037	56	255,828
울산	매출	904,639	83	440,199
	공공시장매출	630,016	45	146,370
	민간시장매출	576,967	81	286,775
세종	매출	2,096,028	12	1,125,926
	공공시장매출	1,347,942	9	826,556
	민간시장매출	1,302,085	10	368,831

<표 4-1>의 계속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경기	매출	2,041,741	400	968,617
	공공시장매출	1,792,782	296	709,691
	민간시장매출	899,475	318	326,505
강원	매출	1,246,539	125	345,522
	공공시장매출	1,264,607	75	263,000
	민간시장매출	580,684	105	193,487
충북	매출	1,490,076	101	560,676
	공공시장매출	1,011,060	65	300,467
	민간시장매출	1,021,431	83	279,338
충남	매출	1,321,670	98	555,598
	공공시장매출	889,517	69	205,829
	민간시장매출	740,728	92	307,516
전북	매출	1,388,706	139	561,058
	공공시장매출	719,513	101	292,740
	민간시장매출	994,706	121	245,827
전남	매출	1,167,365	123	484,436
	공공시장매출	708,120	66	144,804
	민간시장매출	888,532	109	378,553
경북	매출	1,886,798	146	649,790
	공공시장매출	614,665	80	189,738
	민간시장매출	1,714,388	132	445,142
경남	매출	1,080,139	113	382,302
	공공시장매출	617,692	63	203,662
	민간시장매출	831,411	100	227,385
제주	매출	1,289,882	52	774,101
	공공시장매출	537,381	37	359,736
	민간시장매출	1,097,460	43	435,420
전체	매출	2,048,935	2,351	566,396
	공공시장매출	1,208,120	1,562	318,069
	민간시장매출	1,441,911	2,032	287,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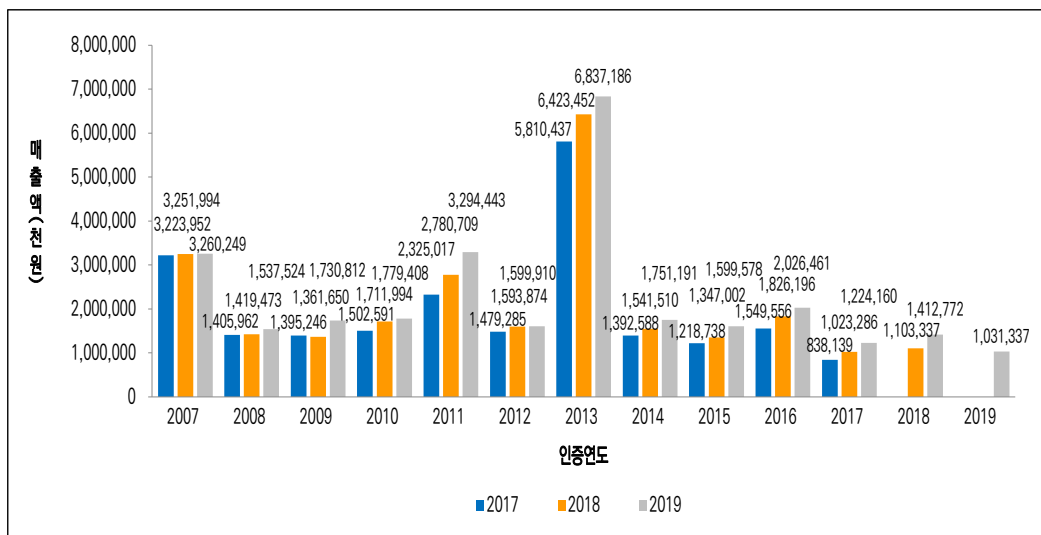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 [그림 4-19]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은 2017~2019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균값은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2013년 인증기업이 모두 고르게 높은 매출액을 보고한다기보다는 2013년에 인증받은

특정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다른 사회적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2017~2019년에 걸쳐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평균 매출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약 68억 원), 2007년(약 33억 원), 2011년(약 33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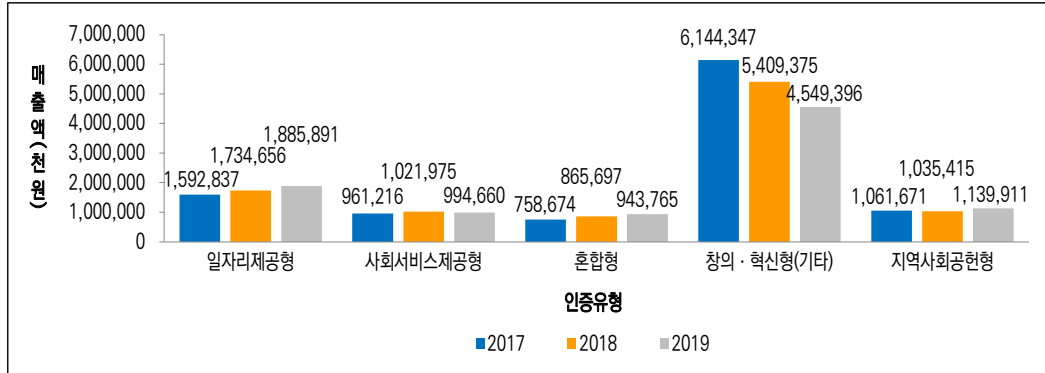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인증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내용은 [그림 4-20]과 같다.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은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혼합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년간 일자리제공형, 혼합형의 평균 매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서비스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의 평균 매출액은 약 10억 원 내외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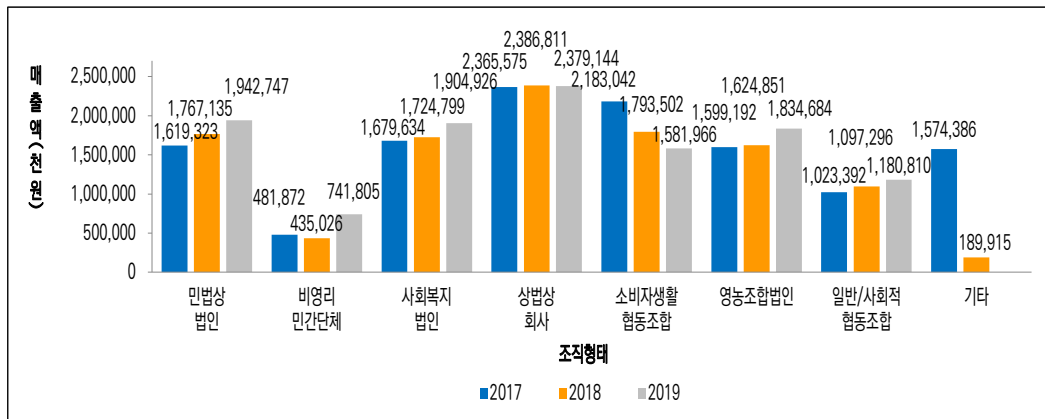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연도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내용을 아래 [그림 4-21]에서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상법상회사의 경우 2018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2018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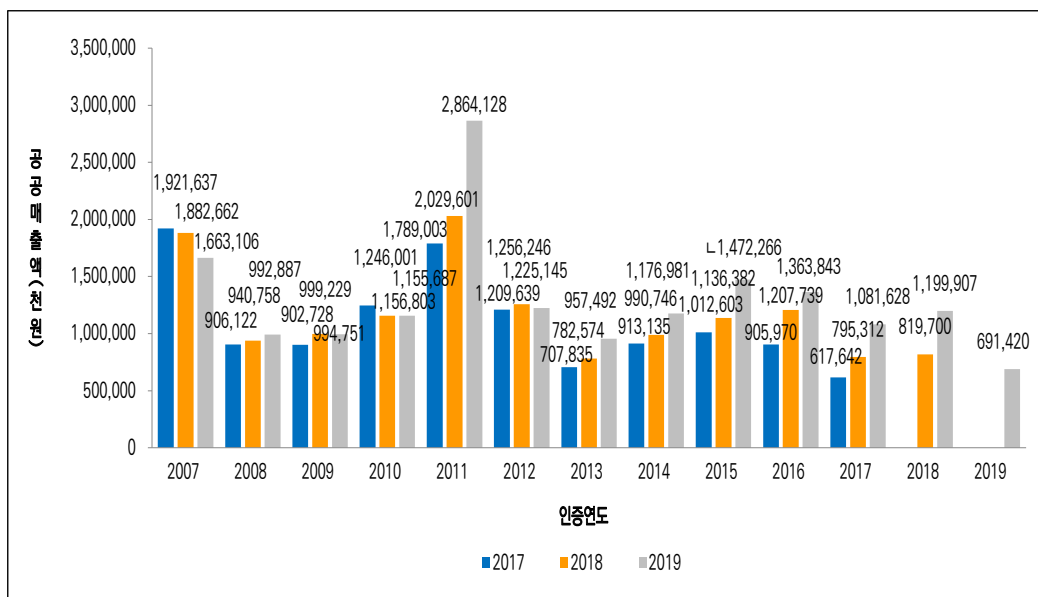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리고 [그림 4-22]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공매출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2007년과 2011년의 인증기업이 2017~2019년에 걸쳐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9년, 2010년, 2012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공공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2011년(약 28억 6천만 원)과 2007년(약 16억 6천만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2013년(약 9억 6천만 원)과 2019년(약 6억 9천만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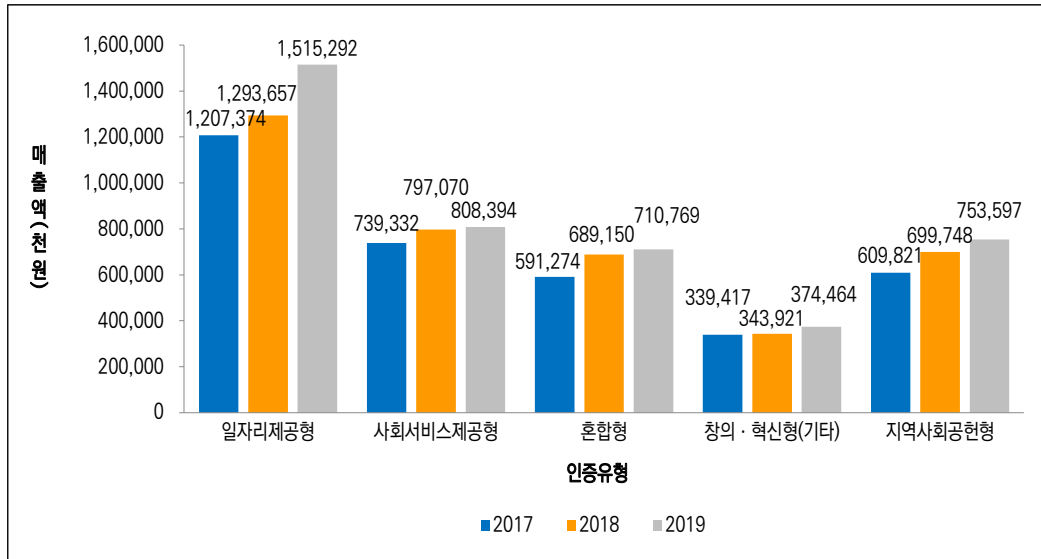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인증유형별로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를 아래 [그림 4-23]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높았고,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공공매출액 평균이 가장 낮았다. 3년간 모든 유형에서 평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매출액 수준도 가장 높고 공공매출액 상승 추세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4-23]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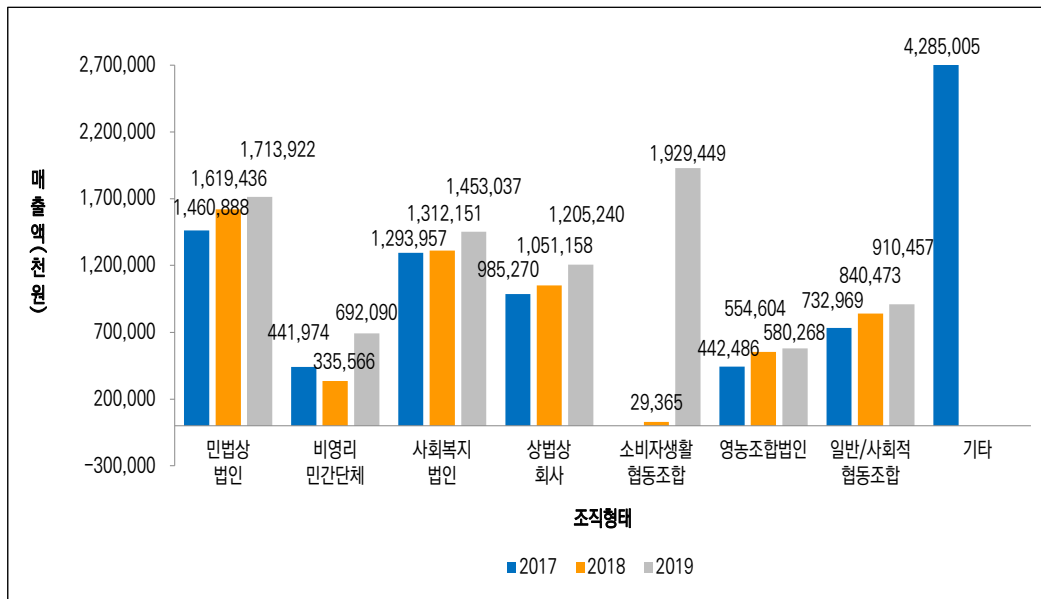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24]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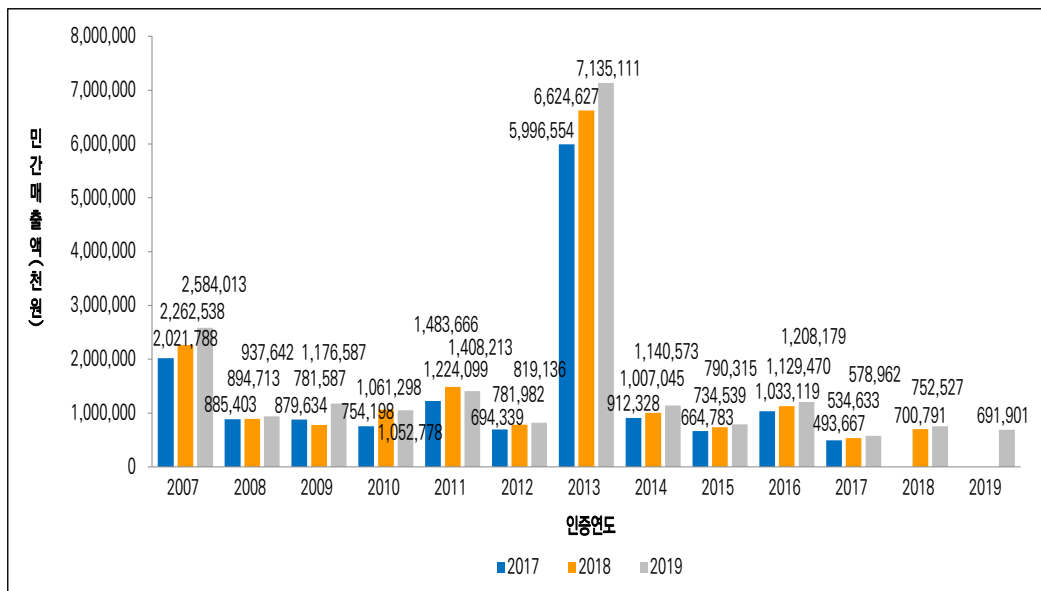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리고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는 [그림 4-24]에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 단체를 제외하면 모든 조직형태에서 최근 3년간 공공매출액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7년 공공매출액 기준으로 기타(창의·혁신)형은 약 42억 9천만 원의 공공매출액을 보고하여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월등한 액수를 나타내었으나, 2018년부터는 공공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민간매출액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 4-25]에서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의 민간매출액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큰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 인증연도의 사회적기업의 민간매출액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4-25]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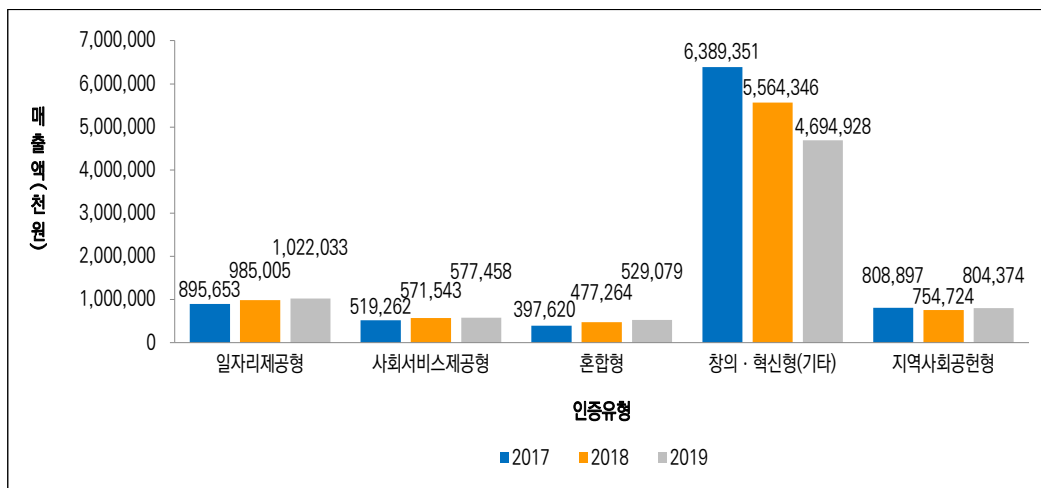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인증유형별로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6]과 같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평균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높고, 3년간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민간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특정 사회적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인증되어 있어 극단값이 유형별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형이 다른 인증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년간 민간매출액 평균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의 평균 민간매출액은 최근 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지역사회공헌형의 평균 민간매출액은 큰 차이는 없으나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6]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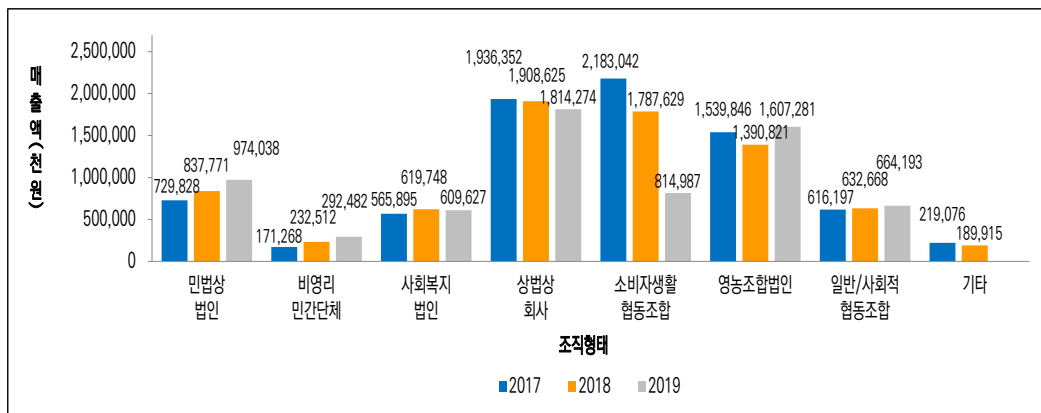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27]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의 민간매출액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17년 이후 민간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에 2017년 민간매출액 평균보다 증가하였다.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최근 3년간 민간매출액 평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민간매출액 수준이 약 6억 원 내외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7]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2. 영업이익(손실)

다음으로 2019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회계처리기준 변화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2016년 이전 인증 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제17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지원 항목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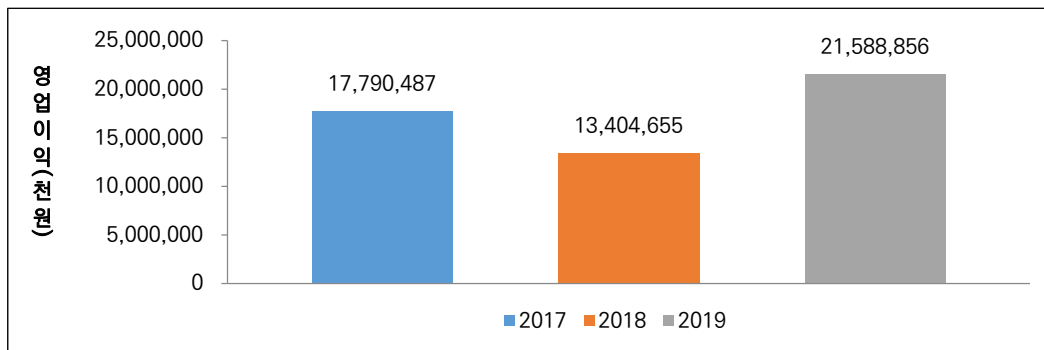
〈참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음의 [그림 4-28]은 2017~2019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17년 약 178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44억 원이 감소하여 약 13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2019년에는 약 2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하여 2018년 감소분을 회복한 것은 물론, 2017년 영업이익 수준보다 더 큰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이다.

[그림 4-28]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전체 2,351개소,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이러한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회복 및 증가는 2018년에 있었던 외부적 경영환경 악화가 회복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2018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고²⁾, 인증 사회적기업 또한 이러한 외부적 경영환경의 충격으로 인해 2018년에는 일시적인 영업활동 위축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회계처리기준 변화에 따라 영업이익 항목에 정부 지원금을 반영하면서 생기는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연도별 변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외부 경영환경 및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후 사업보고서 제출 및 집계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기준변경의 영향과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산업·글로벌센터(2019)에 따르면, 2018년 잠정영업실적을 발표한 1,549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고, 반도체 업종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13.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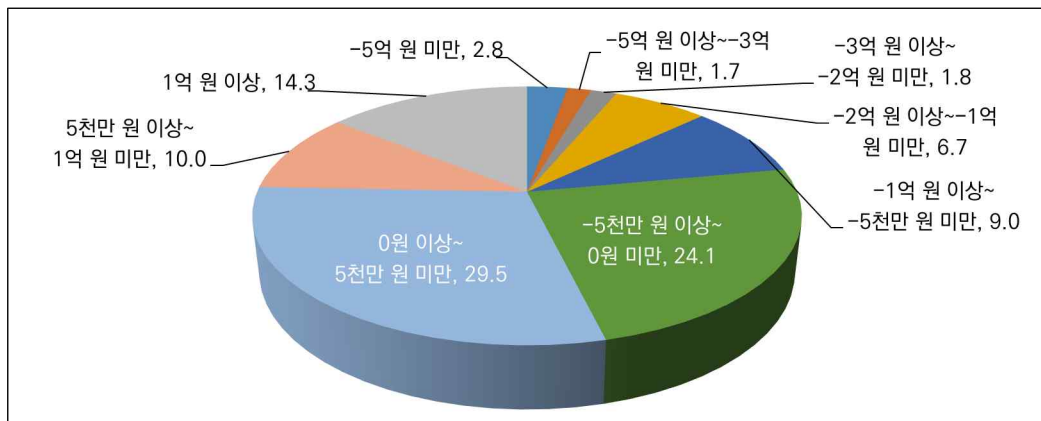
필요가 있다.

[그림 4-29]와 [그림 4-30]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전체 2,352개의 사회적기업 중 53.9%인 1,267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46.1%(1,085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51.0%(1,048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49.0%(1,007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비율이 2.9%p 증가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 영업이익이 0~5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기업이 29.5%(694개소)로 가장 많았고,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4.1%(567개소)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5천만 원~1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10.0%(236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14.3%(337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9.0%(212개소)로 나타났고, -5억 원 미만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도 2.8%(67개소)에 달했다. 이러한 분포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대체로 5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소규모인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과 1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각각 337개소(14.3%), 306개소(13.0%)로 나타나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4-29] 영업이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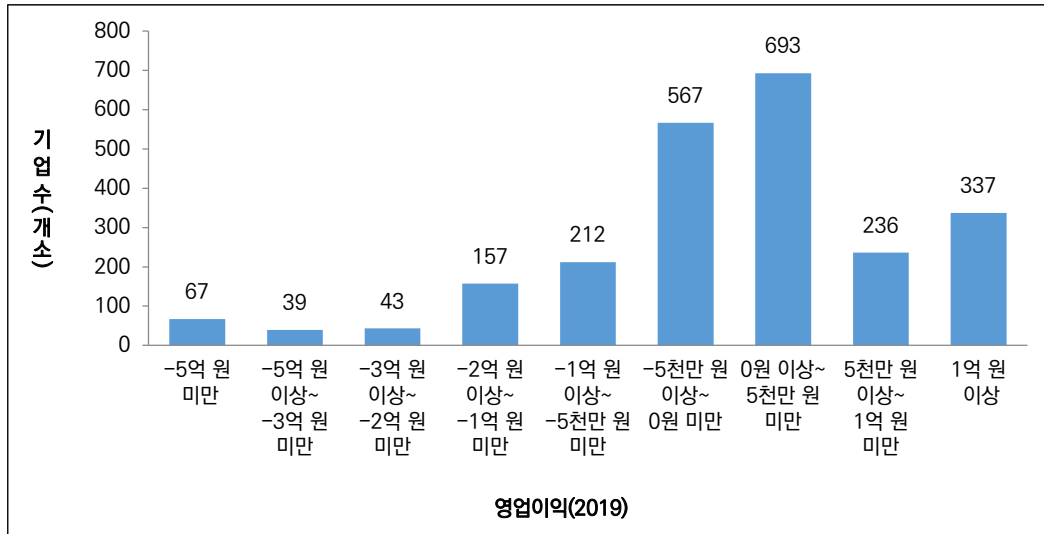
(전체 2,351개소, 단위: %)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30]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351개소, 단위: 개소)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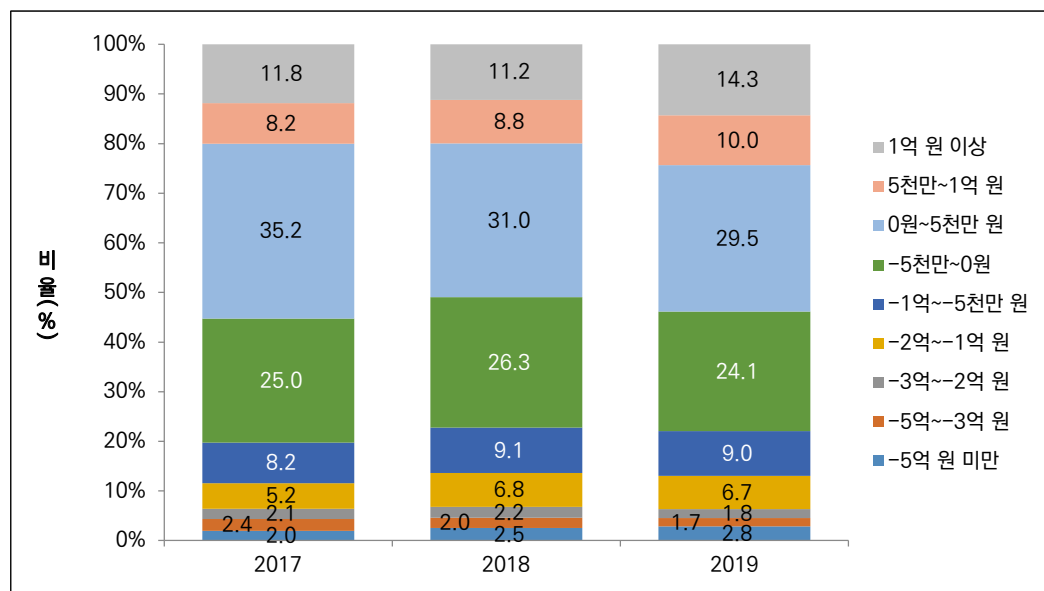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31]과 [그림 4-32]는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의 규모는 2018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림 4-32]를 보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억 원 이상 구간, 5천만~1억 원 구간에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0~5천만 원 구간에서는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9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의 분포 비율을 [그림 4-32]를 통해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구간은 2017~2018년 약 11%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14%로 증가하고, 5천만 원~1억 원 구간 또한 2017~2018년 약 8%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10%로 증가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0~5천만 원 구간의 경우 2017년 35.2%에서 2018년 31.0%로 4.2%p 감소하고, 다시 2019년에 29.5%로 1.5%p 감소하였다.

반면,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7년 25.0%에서 2018년에 26.3%로 1.3%p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24.1%로 약 2.2%p 다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도 2017년 8.2%에서 2018년 9.1%로 0.9%p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9년 9.0%로 약 0.1%p 감소하였다. 나머

지 구간의 사회적 기업의 비율은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5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수는 최근 3년간 36개소(1.97%)에서 52개소(2.53%), 67개소(2.85%)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의 분포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31]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분포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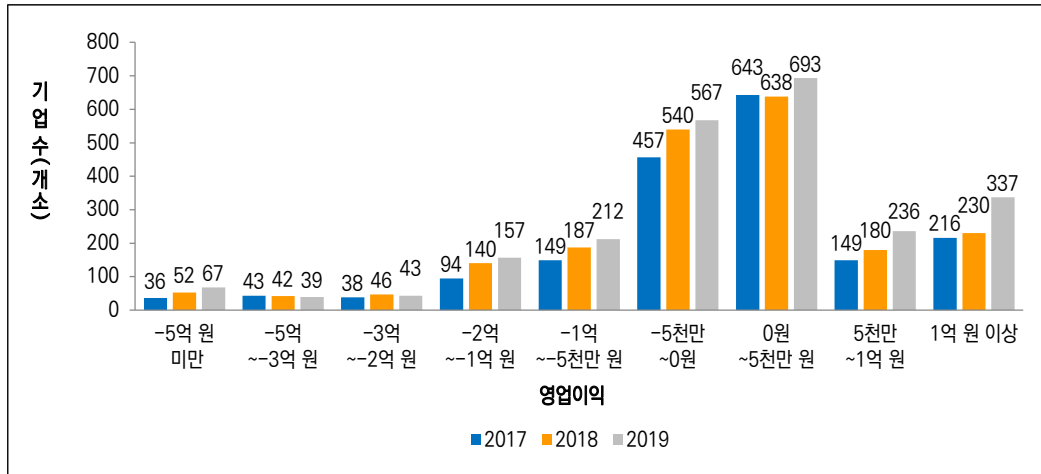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앞서 영업이익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18년에 다소 둔화되었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영업이익 평균과 중위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33]과 같이, 평균 영업이익은 2017년 약 9백7십만 원에서 2018년 약 6백5십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약 9백2십만 원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 또한 2017년에 약 3백7십만 원, 2018년에 약 47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가, 2019년 약 3백만 원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32]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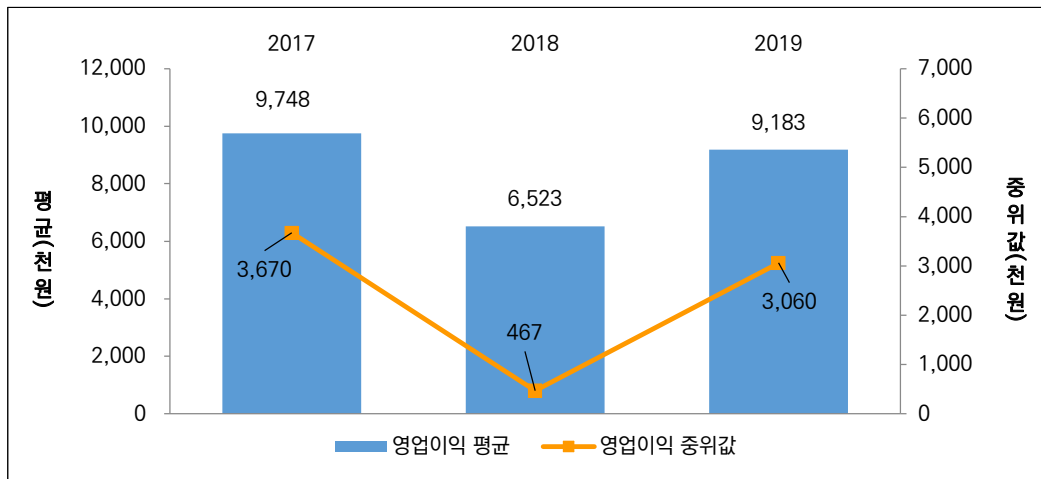
(단위: 개소)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33]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한편, <표 4-2>는 영업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손실)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1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분포된 세종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년도보다 1개

지역이 늘어나 전북(약 6천만 원, 139개소), 서울(약 3천 9백만 원, 449개소), 경기(약 3천2백만 원, 400개소), 경남(약 2천7백만 원, 113개소), 전남(약 1천9백만 원, 123개소), 경북(약 1천 1백만 원, 146개소), 충북(약 6백만 원, 101개소), 부산(약 6백만 원, 112개소)의 8개 지역만이 0보다 큰 평균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평균 영업손실이 가장 큰 지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제주(약 - 9천5백만 원, 52개소), 인천(약 - 4천5백만 원, 144개소), 대구(약 - 4천만 원, 81개소), 강원(약 - 2천8백만 원, 125개소), 울산(약 - 2천4백만 원, 83개소), 광주(약 - 2천4백만 원, 108개소), 대전(약 - 1천 8백만 원, 65개소), 충남(약 - 2백만 원, 98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 0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그 외 지역은 영업손실의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표 4-2>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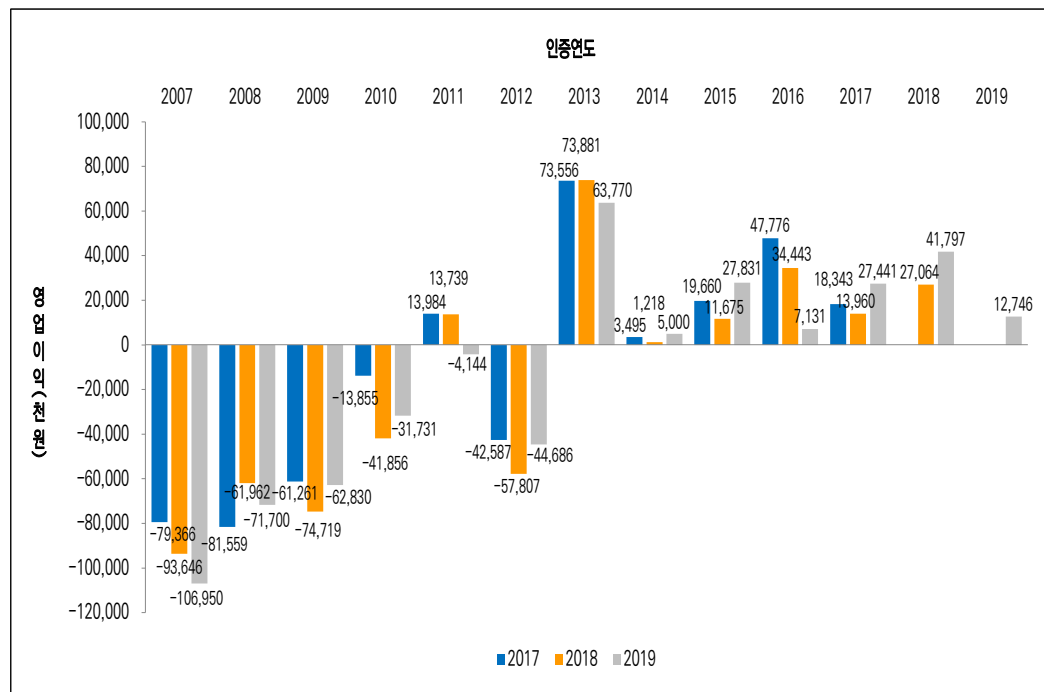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39,485	449	-2,065
부산	6,375	112	-2,842
대구	-40,067	81	-5,587
인천	-45,264	144	1,509
광주	-23,560	108	7,601
대전	-17,686	65	2,870
울산	-23,781	83	160
세종	-123,645	12	-83,548
경기	31,799	400	15,016
강원	-28,175	125	-7,019
충북	6,396	101	-4,427
충남	-2,301	98	2,227
전북	60,286	139	5,678
전남	18,857	123	7,530
경북	11,101	146	5,111
경남	27,132	113	8,753
제주	-95,062	52	-18,693
전체	9,183	2,351	3,060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아래 [그림 4-34]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손실)이다. 전반적으로 2007~2010년, 2012년 등 초창기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은 모두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2017~2019년 최근 3년간 약 7천만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2013년에 인증을 받은 특정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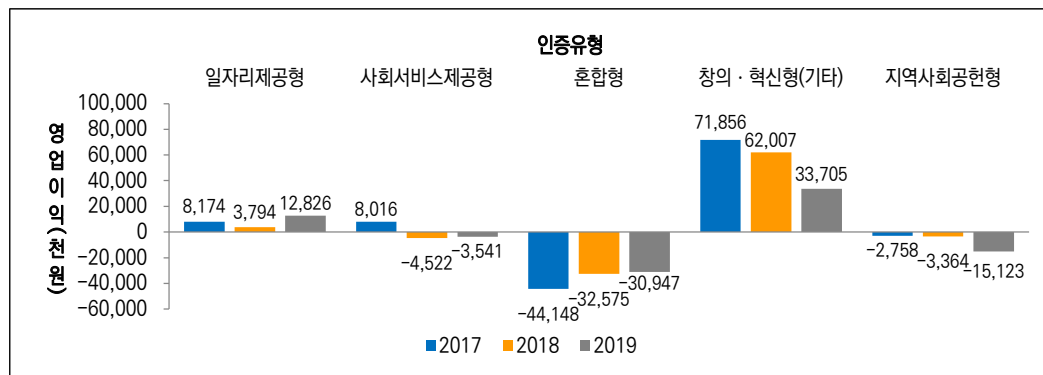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35]는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혼합형의 영업손실과 기타(창의·혁신)형의 영업이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혼합형의 영업손실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특정기업의 월등히 큰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다른 유형과 달리 영업이익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사회공헌형의 영업손실 평균은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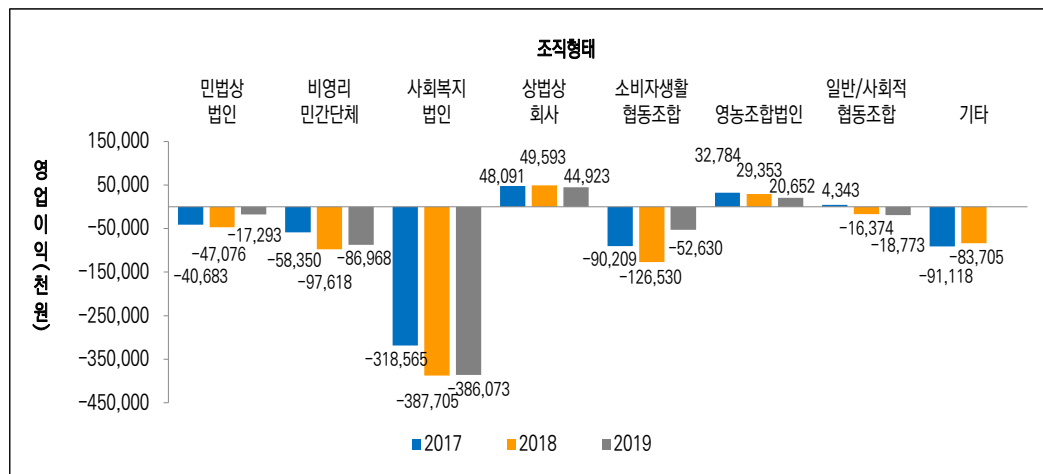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36]은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상법상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영업손실은 2018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다소 회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2017년에 약 4천8백만 원에서 2018년 약 5천만 원, 2019년 약 4천5백만 원으로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익 또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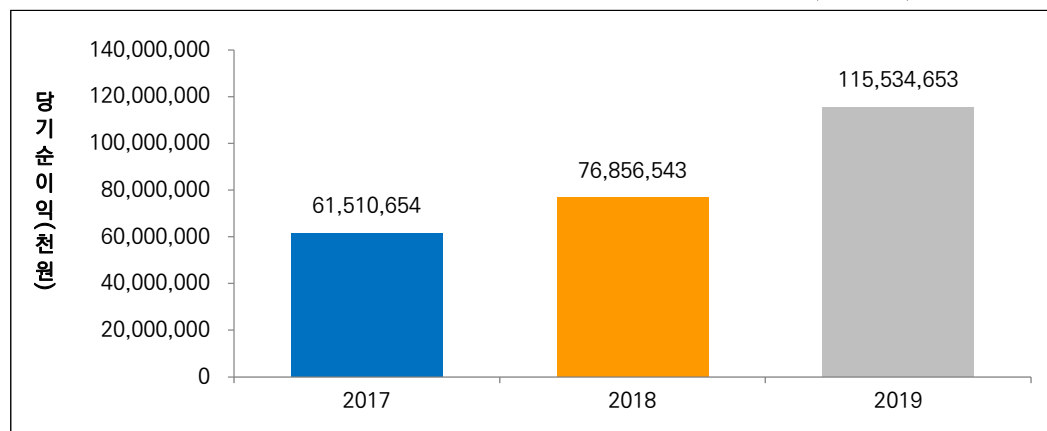
년 약 3천3백만 원, 2018년 약 2천9백만 원, 2019년 약 2천1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머지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는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영업이익(손실)은 2018년에 영업손실이 더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다소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가장 컸는데, 2017년 약 -3억 2천만 원, 2018년과 2019년 -3억 9천만 원으로 변화되었다.

3. 당기순이익(손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37]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9년 사회적기업은 전년에 비하여 50.3% 증가한 1,15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전체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전체 2,341개소,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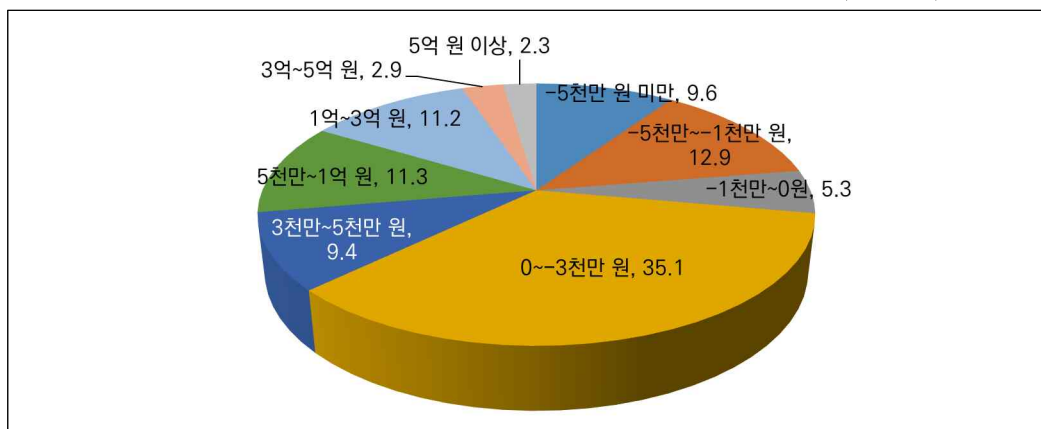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38]과 [그림 4-39]는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2,341개소 중 0~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35.1%(821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만~-1천

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12.9%(302개소), 1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도 16.4%(384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72.2%(1,690개소)인 반면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27.8%(651개소)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1,405개소, 68.7%)보다 그 수와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그림 4-38]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전체 2,341개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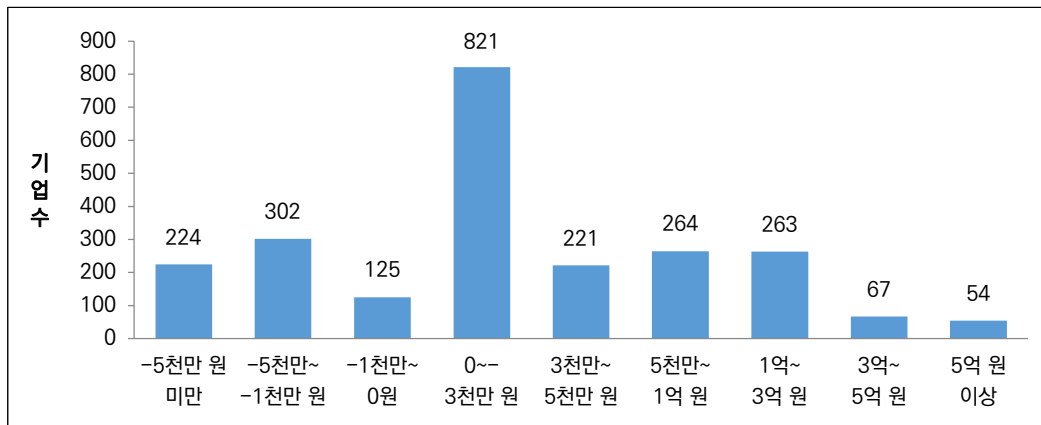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39]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341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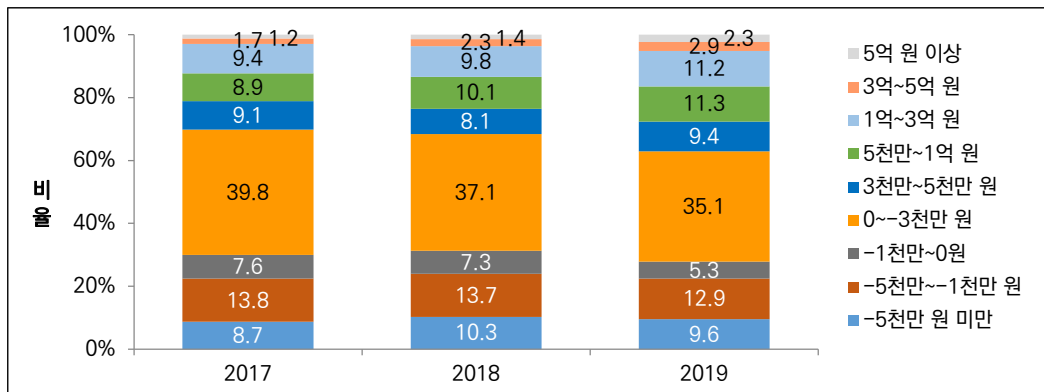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손실)의 기업별 분포의 변화를 다음 [그림 4-40]과 [그림 4-4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나, 3천만~5천만 원, 5천만~1억 원, 1억~3억 원, 3억~5억 원, 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구간이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가장 많은 분포 구간인 0~3천만 원 구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의 분포별 기업 수 또한 각 구간별로 대체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이익의 폭이 증가하여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0]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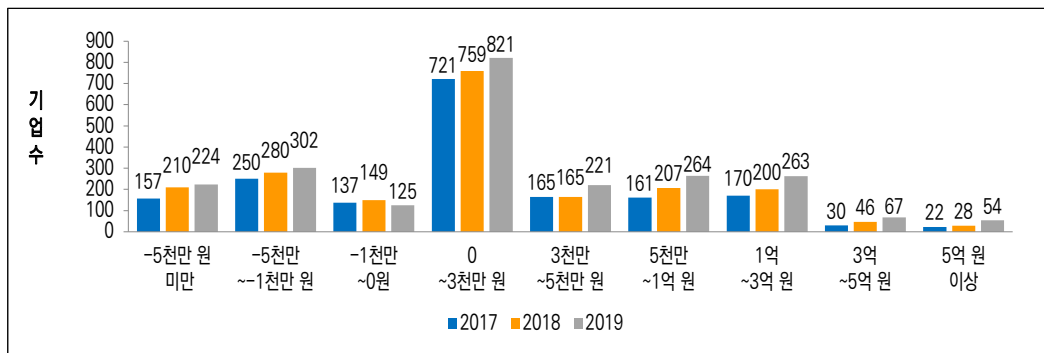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4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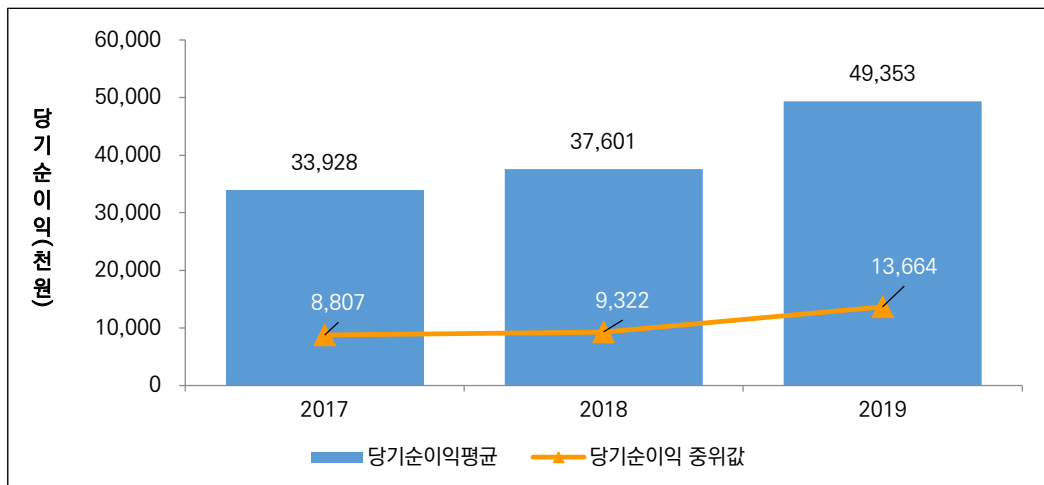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아래 [그림 4-42]는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 및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에 약 3천8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약 4천9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당기순이익의 중위값 또한 2018년 약 9백3십만 원에서 2019년 약 1천3백6십만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4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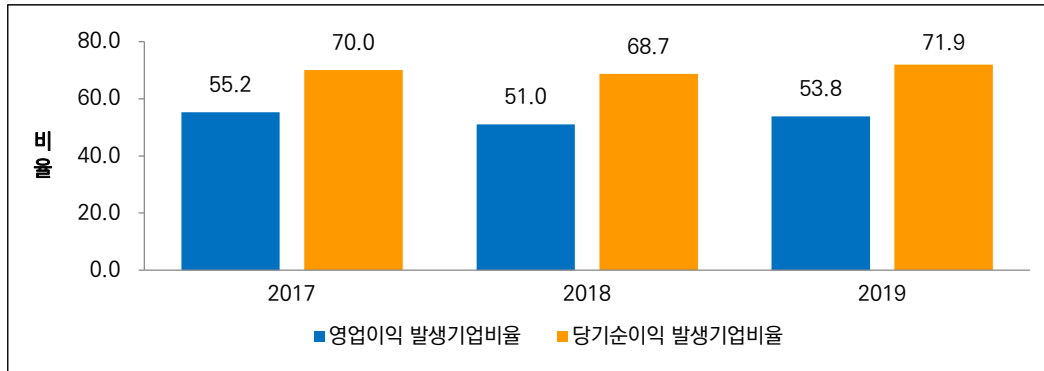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아래 [그림 4-4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당기순이익(손실)의 발생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2017년 70.0%에서 2018년에 68.7%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다시 71.9%로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 또한 2017년 55.2%에서 2018년 51.0%로 4.2%p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9년 53.8%로 회복하였다. 이러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2016년부터 정부지원금의 일부가 영업외수익에서 제외되고 지출에 대한 상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환경 및 성과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의 안정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4-4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4-3>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81,556	448	14,288
부산	35,864	111	7,503
대구	5,338	80	6,411
인천	-49,634	143	7,871
광주	42,875	105	15,785
대전	36,943	65	6,051
울산	18,825	83	9,707
세종	45,327	12	24,402
경기	89,876	398	22,882
강원	27,661	125	6,371
충북	32,637	101	11,323
충남	30,054	98	11,251
전북	80,827	138	12,401
전남	50,577	123	20,377
경북	32,844	146	16,275
경남	43,001	113	16,715
제주	3,431	52	10,707
전체	49,353	2,341	13,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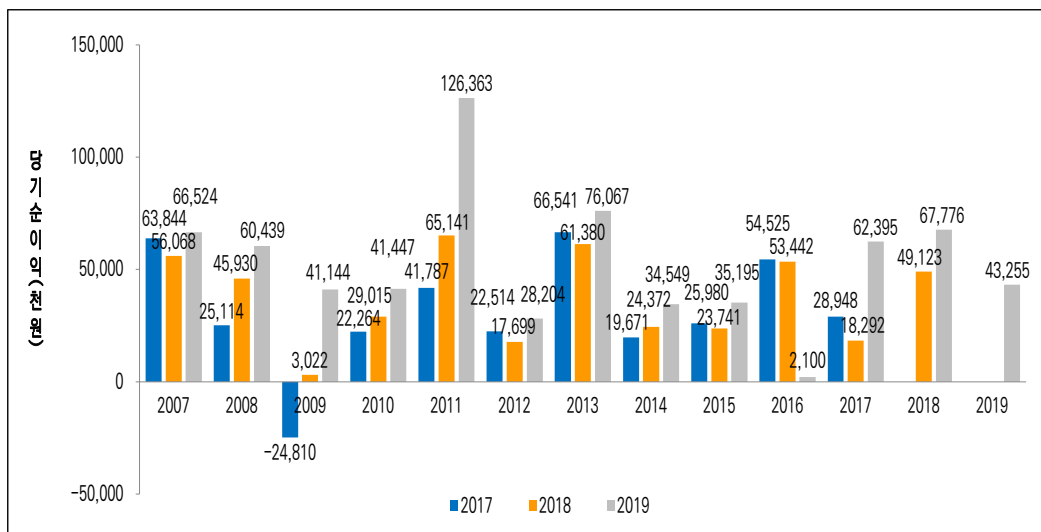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한편, 앞의 <표 4-3>은 2016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인천(당기순손실 약 5천만 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9천만 원), 서울(약 8천2백만 원), 전북(약 8천1백만 원), 전남(약 5천1백만 원), 경남(약 4천 3백만 원), 광주(약 4천2백만 원) 등이 당기순이익 평균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약 2천3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약 2천만 원), 경남(약 1천6백만 원), 경북(약 1천6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면에 강원과 대전, 대구가 각각 약 6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다음 [그림 4-44]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인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2009년 인증기업이 2017년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의 인증 기업이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인증연도에 따른 추세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인증기업들이 2019년에 당기순이익 평균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 인증기업들은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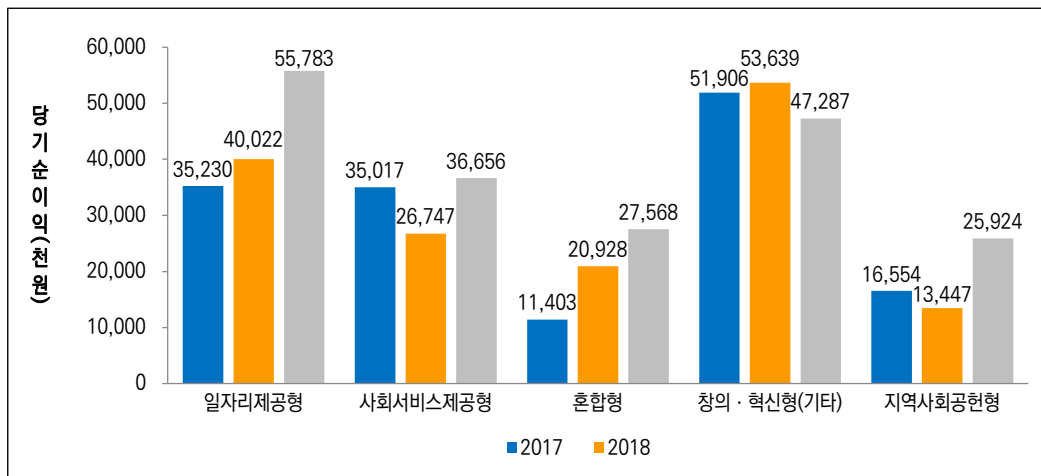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의 [그림 4-45]는 최근 3년간의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고, 2019년은 일자리제공형의 당기순이익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은 2018년에 당기순이익 평균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2017년보다 더 증가하였다. 기타(창의·혁신)형은 2019년 당기순이익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4-4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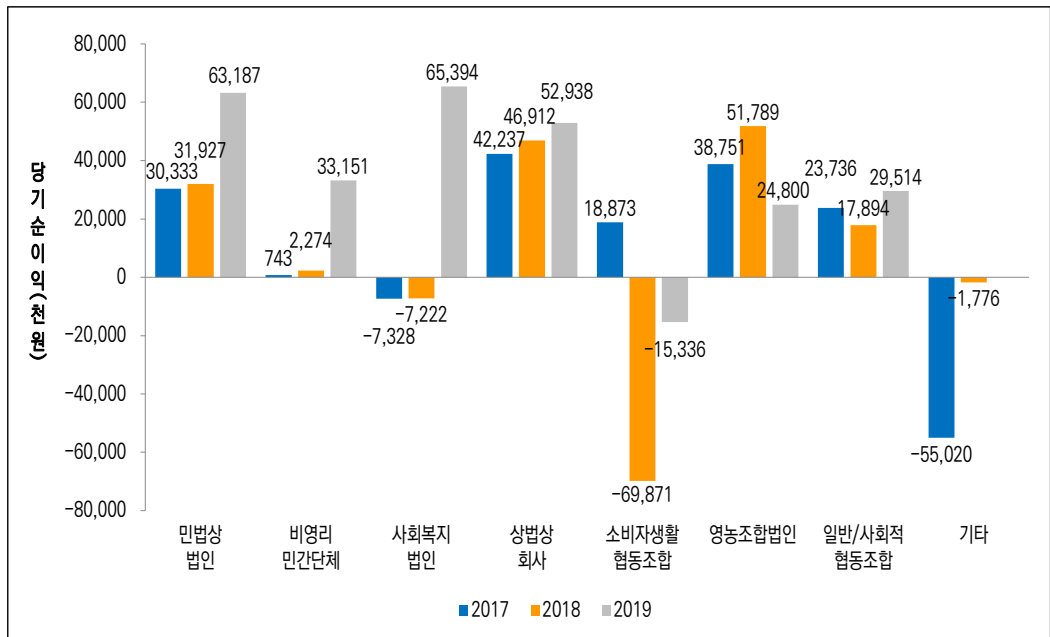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46]은 최근 3년간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과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당기순이익이 적다가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8년에 당기순손실을 크게 보고하였다가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 폭을 줄였다. 사회복지법인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약 7백만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다가, 2019년에 약 6천 5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1>과 <표 부가분석 4-2>에서는 앞서 정리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총액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4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재정성과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17	2018	2019
매출액	전체총액	3,553,058,617	4,117,495,050	4,817,046,340
	인증연도	2007	112,838,315	113,819,791
		2008	157,467,705	151,883,589
		2009	80,924,241	77,614,025
		2010	222,383,513	241,391,160
		2011	272,026,960	297,535,859
		2012	181,952,079	189,670,948
		2013	1,266,675,279	1,316,807,630
		2014	323,080,324	332,966,234
		2015	331,496,774	344,832,580
		2016	390,488,073	451,070,481
		2017	213,725,354	257,868,161
		2018	-	342,034,592
		2019	-	401,190,04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994,231,726	2,399,029,050
		사회서비스제공형	108,617,450	126,724,866
		혼합형	128,974,561	158,422,529
		기타형	1,228,869,474	1,309,068,763
		지역사회공헌형	92,365,406	124,249,84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87,018,229	475,359,441
		비영리민간단체	58,788,432	45,242,716
		사회복지법인	117,574,360	113,836,723
		상법상회사	2,680,196,501	3,090,920,7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732,167	8,967,512
		영농조합법인	108,745,043	125,113,55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7,280,728	257,864,472
		기타	4,723,157	189,915

항목			2017	2018	2019
공공 매출	전체총액		1,216,511,285	1,472,088,476	1,887,083,694
	인증 연도	2007	46,119,297	41,418,572	36,588,321
		2008	71,583,630	68,675,324	76,452,308
		2009	34,303,653	36,971,484	35,811,046
		2010	125,846,117	109,790,251	119,150,705
		2011	152,065,273	168,456,888	223,402,001
		2012	107,657,838	106,780,900	95,561,322
		2013	103,343,894	111,125,457	119,686,492
		2014	131,491,444	144,648,893	155,361,542
		2015	181,255,864	192,048,538	229,673,487
		2016	162,168,669	198,069,251	227,761,849
		2017	100,675,606	139,179,568	173,060,401
		2018	-	154,923,350	232,781,925
		2019	-	-	161,792,29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004,535,210	1,216,037,572	1,571,357,841
		사회서비스제공형	61,364,560	70,142,117	75,989,035
		혼합형	74,500,570	86,832,951	96,664,544
		기타형	46,839,524	57,090,937	78,262,911
		지역사회공헌형	29,271,421	41,984,899	64,809,36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48,350,987	304,454,056	368,493,192
		비영리민간단체	39,777,659	23,154,055	56,059,320
		사회복지법인	80,225,322	74,792,581	82,823,096
		상법상회사	741,908,485	920,814,410	1,163,056,1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9,365	7,717,797
		영농조합법인	13,274,576	19,411,156	16,827,77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8,689,251	129,432,853	192,106,388
		기타	4,285,005	-	-
민간 매출	전체총액		2,336,547,299	2,645,406,574	2,929,962,644
	인증 연도	2007	66,719,020	72,401,219	77,520,377
		2008	85,884,067	83,208,265	83,450,154
		2009	46,620,590	40,642,541	57,652,777
		2010	96,537,392	131,600,909	121,069,436
		2011	119,961,686	129,078,971	122,514,544
		2012	74,294,240	82,890,048	86,828,430
		2013	1,163,331,380	1,205,682,173	1,227,239,137
		2014	191,588,878	188,317,341	201,881,376

항목			2017	2018	2019
민간 매출	인증 연도	2015	150,240,902	152,784,042	144,627,678
		2016	228,319,405	253,001,230	252,509,371
		2017	113,049,739	118,688,593	125,634,696
		2018	-	187,111,242	189,636,922
		2019	-	-	239,397,74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989,696,494	1,182,991,478	1,383,832,808
		사회서비스제공형	47,252,883	56,582,749	65,252,742
		혼합형	54,473,991	71,589,578	83,594,548
		기타형	1,182,029,947	1,251,977,826	1,291,105,194
		지역사회공헌형	63,093,984	82,264,943	106,177,35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38,667,241	170,905,385	229,872,907
		비영리민간단체	19,010,772	22,088,661	29,248,218
		사회복지법인	37,349,039	39,044,142	37,187,226
		상법상회사	1,938,287,991	2,170,106,311	2,329,527,6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732,167	8,938,147	6,519,899
		영농조합법인	95,470,465	105,702,394	118,938,81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8,591,472	128,431,619	178,667,977
		기타	438,152	189,915	-
영업 이익	전체총액		17,790,487	13,404,655	21,588,856
	인증 연도	2007	-2,777,799	-3,277,618	-3,743,233
		2008	-9,134,655	-6,629,969	-7,456,782
		2009	-3,614,414	-4,258,983	-3,329,976
		2010	-2,064,454	-5,943,482	-4,283,728
		2011	1,636,136	1,470,050	-439,286
		2012	-5,238,170	-6,878,980	-5,094,201
		2013	16,108,740	15,219,587	12,562,782
		2014	810,734	263,101	1,019,930
		2015	5,347,427	2,977,129	6,512,398
		2016	12,039,495	8,541,969	1,690,025
		2017	4,677,447	3,531,996	6,695,495
		2018	-	8,389,855	12,497,241
		2019	-	-	4,958,19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0,258,613	5,258,113	20,098,492
		사회서비스제공형	905,780	-556,267	-506,372
		혼합형	-7,505,209	-5,961,205	-5,880,004
		기타형	14,371,289	15,067,675	10,145,153
		지역사회공헌형	-239,986	-403,661	-2,268,414

항목			2017	2018	2019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9,763,975	-12,757,536	-5,326,131
		비영리민간단체	-7,118,735	-10,152,233	-9,914,352
		사회복지법인	-22,299,537	-25,588,556	-24,322,587
		상법상회사	54,582,923	64,223,376	65,992,09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0,834	-632,651	-473,667
		영농조합법인	2,229,316	2,260,182	1,528,26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94,684	-3,864,222	-5,894,767
		기타	-273,355	-83,705	-
당기 순이익	전체총액		61,510,654	76,856,543	115,534,653
	인증 연도	2007	2,234,530	1,962,370	2,328,341
		2008	2,737,378	4,776,759	6,104,308
		2009	-1,438,966	172,230	2,180,606
		2010	3,295,144	4,091,177	5,553,914
		2011	4,847,289	6,970,092	13,394,452
		2012	2,769,240	2,106,132	3,215,310
		2013	14,372,946	12,521,578	14,832,970
		2014	4,504,619	5,166,871	6,978,955
		2015	7,066,445	6,077,700	8,200,383
		2016	13,740,218	13,253,609	497,792
		2017	7,381,811	4,628,000	15,224,349
		2018	-	15,130,025	20,197,172
		2019	-	-	16,826,10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43,932,396	55,190,505	87,021,267
		사회서비스제공형	3,886,940	3,289,871	5,205,131
		혼합형	1,938,437	3,808,825	5,237,990
		기타형	10,329,279	12,980,647	14,233,449
		지역사회공헌형	1,423,602	1,586,695	3,836,81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7,219,225	8,524,500	19,335,219
		비영리민간단체	89,850	234,259	3,746,106
		사회복지법인	-476,312	-447,758	3,858,271
		상법상회사	47,812,457	60,703,859	77,660,0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5,491	-349,356	-138,028
		영농조합법인	2,635,068	3,987,734	1,835,23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319,935	4,205,081	9,237,827
		기타	-165,060	-1,776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19)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공공민간매출 추가

(단위 : 천 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매출액	2,152,715,232	105,084,532	71,416,232	142,280,046	111,080,235	79,651,186	75,085,042	25,152,336	816,896,333	155,817,371	151,497,715	129,523,687	198,030,292	143,385,990	275,472,455	122,656,686	670,783,861	-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림,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O)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J)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서비스업(S)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S)	
	149,238,548	241,339	133,864,473	446,072	54,413,298	1,692,010,577	388,198,839	6,014,460	341,336,325	53,977,455	103,019,002	341,236,403	21,871,137	39,232,420	1,628,554,835	88,000,294	152,388,686	14,431,167	
공공매출	623,516,922	61,700,391	37,012,365	63,754,815	54,509,498	27,065,088	28,350,701	12,131,482	530,663,697	94,845,534	65,718,919	61,376,689	72,670,836	46,735,922	49,173,213	38,914,533	19,883,099	-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림,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O)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J)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서비스업(S)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S)	
	111,021,077	80,600,632	388,188	103,12,224	178,356,800	18,889,713	-	153,714,338	6,386,397	41,080,714	23,351,091	667,800	16,999,901	930,079,821	24,594,691	113,553,400	4,942,917	-	
민간매출	1,529,198,327	45,223,911	34,403,827	78,453,231	55,570,857	52,381,088	46,734,341	13,021,554	286,882,975	61,971,886	84,778,736	68,146,888	120,359,396	96,830,009	226,299,222	83,141,113	471,191,762	-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림,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O)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J)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서비스업(S)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S)	
	38,307,471	241,339	532,038,940	77,894	44,100,974	1,463,653,777	183,307,124	6,014,460	182,788,787	52,300,459	61,938,287	102,723,312	1,519,247	22,252,519	688,475,014	63,465,683	38,355,296	9,488,250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제2절 지출 : 비용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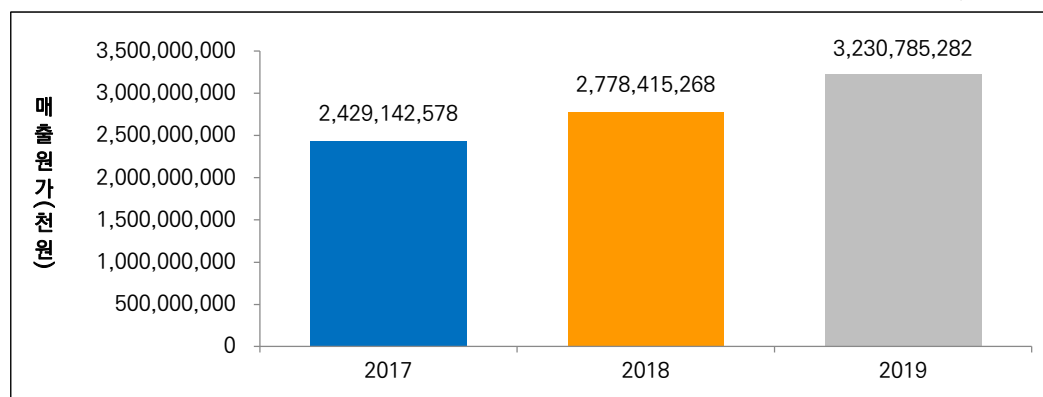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회적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보고서 양식에서 비용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은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영업외비용, 인건비(노무비 포함)가 있다.

1. 매출원가

다음 [그림 4-47]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19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3조 2천3백억 원의 매출원가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천5백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2017~2018년 사이의 매출원가 증가액인 약 3천5백억 원보다 더 늘어난 것이며,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일치한다.

[그림 4-4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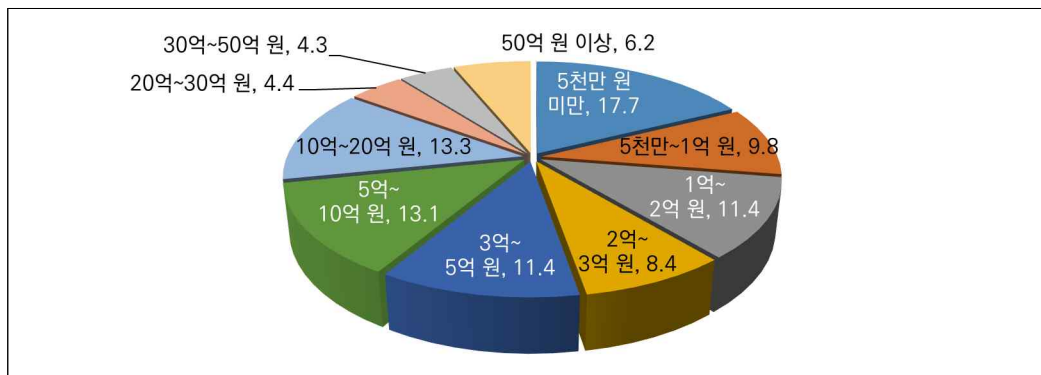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아래의 [그림 4-48]과 [그림 4-49]는 매출원가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매출원가를 보고한 전체 1,636개소 중 2019년도에 매출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17.7%(290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는 10억~20억 원이 13.3%(217개소), 5억~10억 원이 13.1%(215개소)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매출원가가 50억 원 이상 사회적기업도 6.2%(10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3억 원 미만의 매출원가를 보고한 경우가 47.2%(773개소), 3억 원 이상이 52.8%(863개소)로 절반씩 차지하였다.

[그림 4-48] 매출원가 분포

(전체 1,636개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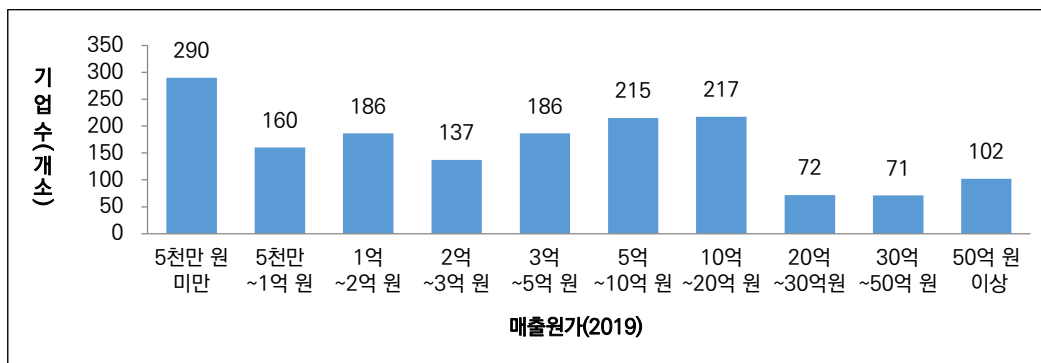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49]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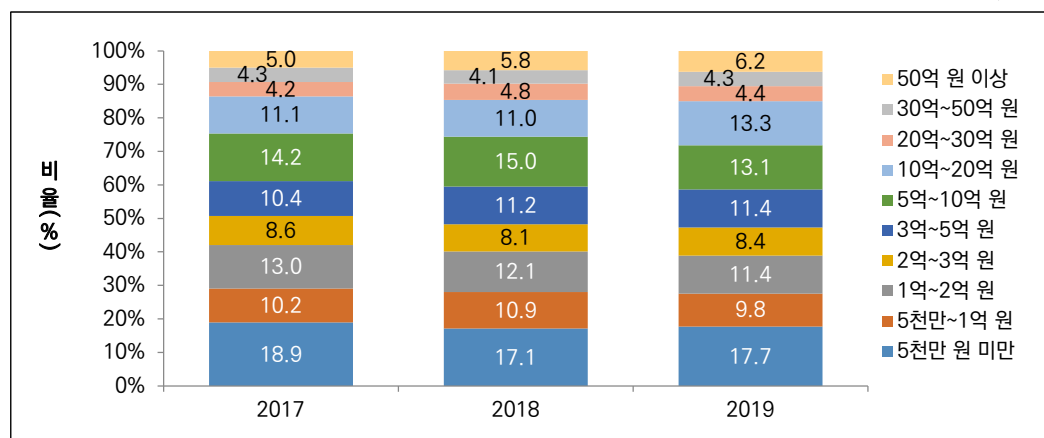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50]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원가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각 항목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지만, 매출원가가 50억 원인 구간은 각각 5.0%, 5.8%, 6.2%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분포 구간은 5천만 원 미만, 2억~3억 원, 3억~5억 원 구간에서 나타났다.

[그림 4-50] 연도별 매출원가 분포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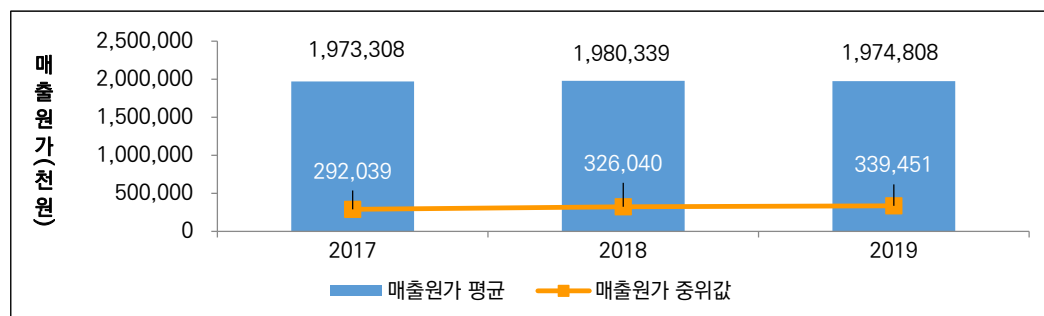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8년 1,23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리고 아래 [그림 4-51]은 최근 3년간의 매출원가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매출원가 평균은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약 19억 7천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해서 2019년에는 약 3억 4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그림 4-51]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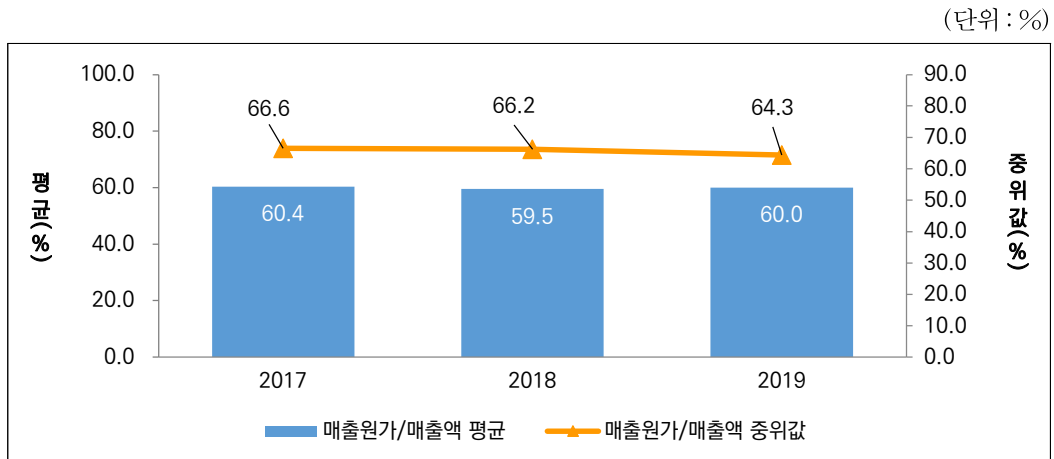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52]는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 기준일 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7년 60.4%, 2018년 59.5%, 2019년 60.0%로 매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위값 기준으로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7년 66.6%, 2018년 66.2%, 2019년 64.3%로 매년 65% 내외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완만하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최근 3년 간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개선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52]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4-4>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평균/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매출원가의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약 57억 원), 평균 매출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약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 평균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105.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이 4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약 6억 6천만 원), 경기(약 5억 원), 서울(약 4억 6천만 원), 경북(약 4억 3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약 2억 원)과 강원(약 1억 9천만 원)은 2억 원 미만으로 낮았다.

<표 4-4>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원가	5,672,706	298	459,328
	매출원가 비중	56.3	298	61.3
부산	매출원가	655,118	73	199,880
	매출원가 비중	47.0	73	47.2
대구	매출원가	842,727	52	282,280
	매출원가 비중	62.5	52	67.2
인천	매출원가	790,374	101	260,413
	매출원가 비중	57.1	101	60.7
광주	매출원가	922,024	68	313,589
	매출원가 비중	50.7	68	54.7
대전	매출원가	1,080,823	47	297,959
	매출원가 비중	57.8	47	66.7
울산	매출원가	739,016	59	272,866
	매출원가 비중	60.1	59	73.5
세종	매출원가	1,312,702	7	1,085,762
	매출원가 비중	76.2	7	80.4
경기	매출원가	1,489,311	273	502,828
	매출원가 비중	57.9	273	64.4
강원	매출원가	1,246,316	84	186,067
	매출원가 비중	53.0	84	55.6
충북	매출원가	1,252,875	75	354,238
	매출원가 비중	57.8	75	67.2
충남	매출원가	1,068,540	74	311,843
	매출원가 비중	56.7	74	65.1
전북	매출원가	1,029,776	98	323,508
	매출원가 비중	55.6	98	65.0
전남	매출원가	977,860	104	340,037
	매출원가 비중	105.4	104	68.8
경북	매출원가	1,826,296	115	428,689
	매출원가 비중	62.0	115	67.1
경남	매출원가	923,943	74	332,591
	매출원가 비중	57.9	74	67.5
제주	매출원가	1,095,208	34	662,802
	매출원가 비중	61.9	34	66.6
전체	매출원가	1,974,808	1,636	339,451
	매출원가 비중	60.0	1,636	64.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5>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인증연도가 2013년, 기타(창의·혁신)형의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이 큰 특정 기업의 극단값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다. 그 외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증기업의 매출원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07년, 2008년, 2012년, 2014년, 2015년 인증기업이 최근 3년간 감소하였다.

<표 4-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2017		2018		2019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인증연도	2007	1,917,668	65.1	1,716,466	63.5	1,795,839	61.8
	2008	1,218,454	64.8	1,155,974	62.8	1,189,741	60.7
	2009	992,666	55.9	928,450	56.5	961,125	59.7
	2010	1,471,318	62.5	1,823,679	65.5	1,817,910	63.4
	2011	1,957,862	66.4	2,386,130	70.9	3,017,800	73.5
	2012	1,318,600	79.7	1,453,836	55.4	1,387,901	51.6
	2013	7,209,021	59.6	7,977,818	59.8	8,398,876	60.7
	2014	1,105,465	55.8	1,178,898	54.9	1,351,946	54.6
	2015	888,864	58.0	980,301	56.9	1,178,326	54.5
	2016	1,564,917	57.8	1,766,951	54.6	2,011,778	54.7
	2017	725,687	56.0	887,596	63.8	1,093,008	83.3
	2018	-	-	916,616	59.1	1,138,846	58.7
	2019	-	-	-	-	856,047	52.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332,230	64.6	1,451,421	63.9	1,593,239	65.7
	사회서비스제공형	520,367	46.7	408,175	45.7	518,803	40.8
	혼합형	359,757	46.4	419,163	44.7	410,690	41.8
	기타(창의·혁신)형	9,880,378	42.9	9,247,249	43.0	7,058,461	39.1
	지역사회공헌형	944,991	56.5	885,887	54.9	947,996	56.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738,612	65.7	1,731,540	67.5	1,971,974	62.2
	비영리민간단체	554,197	56.6	531,504	51.2	970,508	59.2
	사회복지법인	1,548,249	81.4	1,612,132	85.1	1,726,856	84.9
	상법상회사	2,396,535	59.3	2,362,976	58.1	2,294,383	55.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69,532	76.8	1,608,617	75.8	1,286,948	71.3
	영농조합법인	1,229,976	66.2	1,289,276	68.1	1,494,126	71.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01,299	48.4	790,972	48.1	816,743	70.0
	기타	2,033,232	56.8	53,881	28.4	-	-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2017년 약 99억 원, 2018년도 약 92억 원, 2019년 약 71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보고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은 일자리제공형이 최근 3년간 63.9~6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분류를 살펴보자면, 최근 3년간 상법상 회사가 약 23억 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안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비중은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약 85%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매출원가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매년 매출원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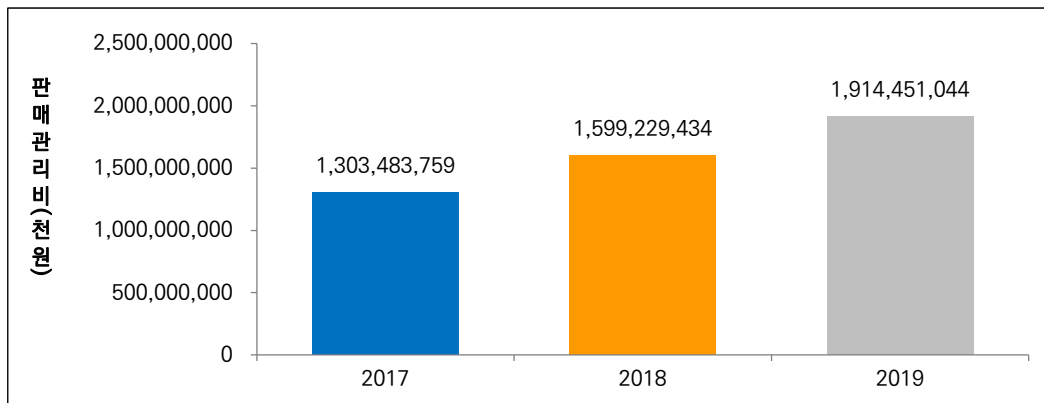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 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 및 관리비 외에 제조원가의 경비가 존재하는 경우 경비를 포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4-53]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19년 사회적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천1백5십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53]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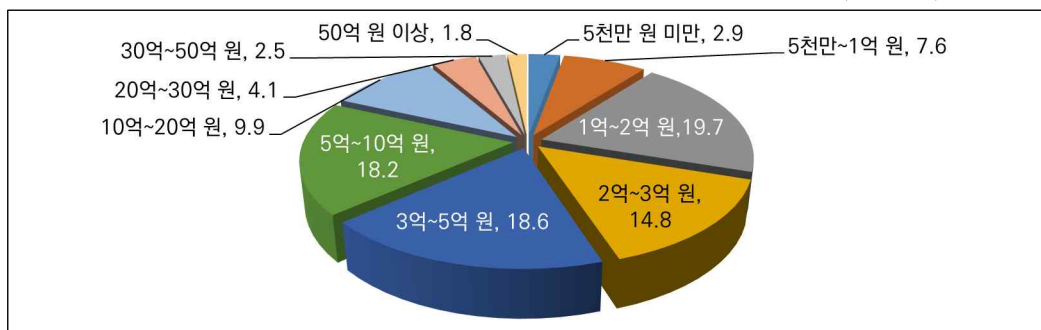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54]와 [그림 4-55]는 사회적기업의 2019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도와 분포별 기업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2,352개소 중 3억~5억 원 사이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한 사회적기업이 18.6%, 463개소로 가장 많았고, 1억~2억 원(19.7%, 427개소), 5억~10억 원(18.2%, 421개소), 2억~3억 원(14.8%, 351개소)의 판매비 지출을 보고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4]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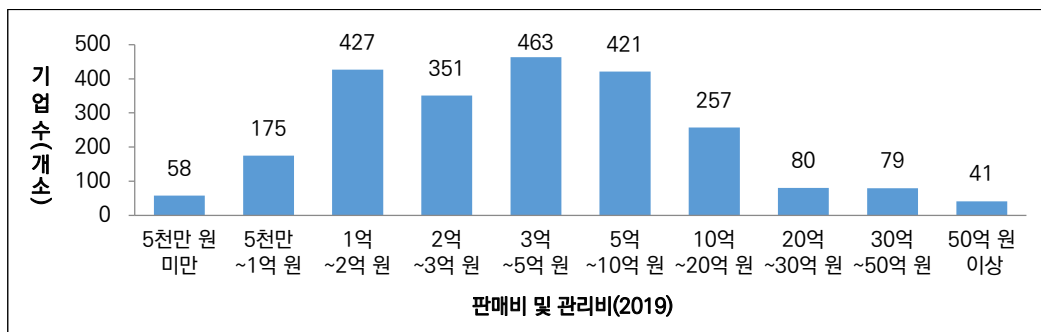
(전체 2,352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55]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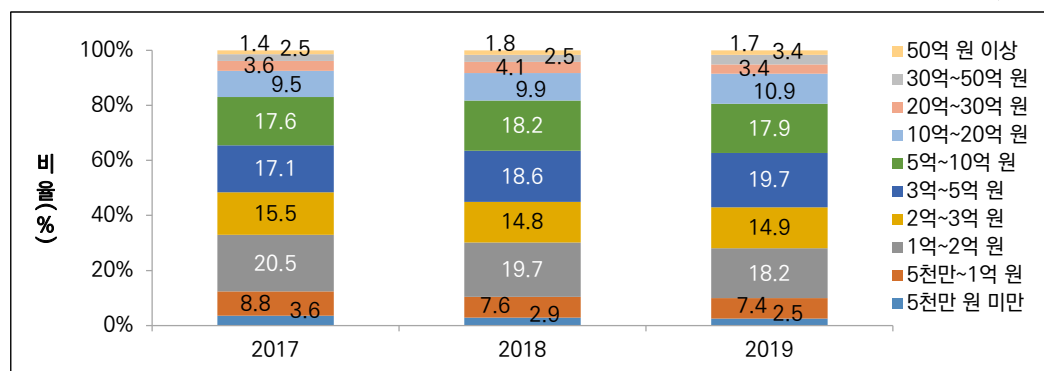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한편, [그림 4-56]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판매비 및 관리비가 10억~20억 원인 구간의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고(각각 9.5%, 9.9%, 10.9%), 3억~5억 원인 구간의 비율 또한 해마다 소폭 증가하였다(각각 17.1%,

18.6%, 19.7%). 반면, 1억~2억 원인 구간(각각 20.5%, 19.7%, 18.2%)과 5천만~1억 원인 구간(각각 8.8%, 7.6%, 7.4%)의 비율은 해마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56]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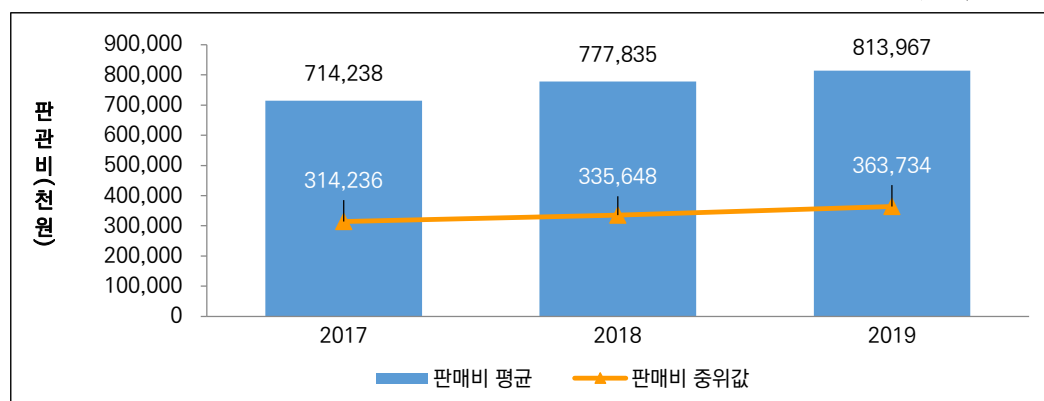


주: 관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2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의 [그림 4-57]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균값은 2018년에 약 7억 8천만 원, 2019년 약 8억 1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위값 또한 2018년에 약 3억 4천만 원, 2019년에 약 3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57]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관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아래 <표 4-6>은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약 12억 6천만 원), 경기(약 11억 4천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약 4억 5천만 원), 대구(약 4억 6천만 원)와 울산(약 4억 9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5억 1천만 원), 제주(약 4억 9천만 원), 서울(약 4억 8천만 원)은 4억 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이는 반면, 강원(약 2억 5천만 원)과 경북(약 2억 3천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여 지역별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257,639	450	481,273
부산	587,454	112	294,742
대구	456,398	81	273,775
인천	585,274	144	272,651
광주	545,272	108	391,859
대전	526,644	65	357,026
울산	493,502	83	277,083
세종	1,601,686	12	605,875
경기	1,136,453	400	506,041
강원	533,684	125	252,900
충북	656,173	101	316,697
충남	613,724	98	331,485
전북	708,441	139	371,919
전남	450,035	123	233,531
경북	736,032	146	343,035
경남	545,248	113	264,068
제주	722,258	52	490,358
전체	813,967	2,352	363,734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표 4-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인증 연도	2007	2,123,601	2,356,447	2,346,777
	2008	782,748	830,837	908,033
	2009	904,195	936,088	1,287,412
	2010	765,225	952,141	1,026,057
	2011	1,067,243	1,210,138	1,253,344
	2012	759,518	828,543	802,764
	2013	708,661	769,458	831,900
	2014	699,246	809,229	904,624
	2015	736,227	801,157	916,728
	2016	535,946	741,171	806,766
	2017	404,322	495,392	585,102
	2018	-	527,965	672,430
	2019	-	-	533,43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733,077	799,281	848,907
	사회서비스제공형	774,687	881,620	804,966
	혼합형	653,700	711,386	779,686
	기타(창의·혁신)형	748,383	771,227	780,518
	지역사회공헌형	403,755	537,609	568,32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911,153	1,037,609	967,299
	비영리민간단체	335,353	338,862	454,954
	사회복지법인	773,550	892,369	1,006,556
	상법상회사	740,974	783,813	824,55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96,102	633,140	502,720
	영농조합법인	437,392	427,601	481,2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19,602	727,826	794,211
	기타	808,635	219,739	-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2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4-7>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인증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7년 인증기업과 2011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고, 2007년과 2012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의 기업이 판매비 및 관리비가 매

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약 8억 원)과 일자리제공형(약 8억 5천만 원), 기타(창의·혁신)형(약 7억 8천만 원), 혼합형(약 7억 8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민법상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평균이 2019년 약 9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4억 5천만 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약 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와 관리비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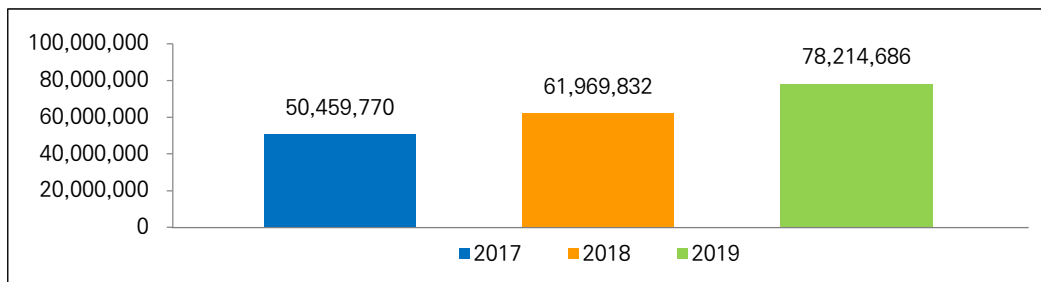
3. 영업외비용

다음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이자 포함),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www.hometax.go.kr).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c).

먼저, 최근 3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4-58]과 같다. 2019년 영업외비용 총액은 약 782억 원으로, 2017년의 약 505억 원, 2018년의 620억 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58] 영업외비용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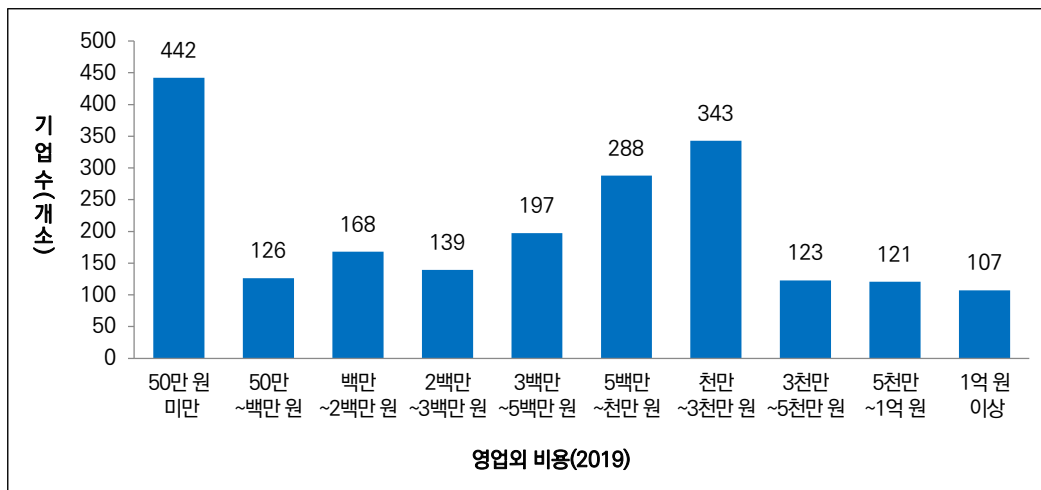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 [그림 4-59]는 영업외비용의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2,352개소의 인증기업 중 2,156개소에서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 중 2019년도에 영업외비용이 5십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42개소(11.4%)이며, 1천만~3천만 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343개소(21.2%), 5백~1천만 원이 288개소(16.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9]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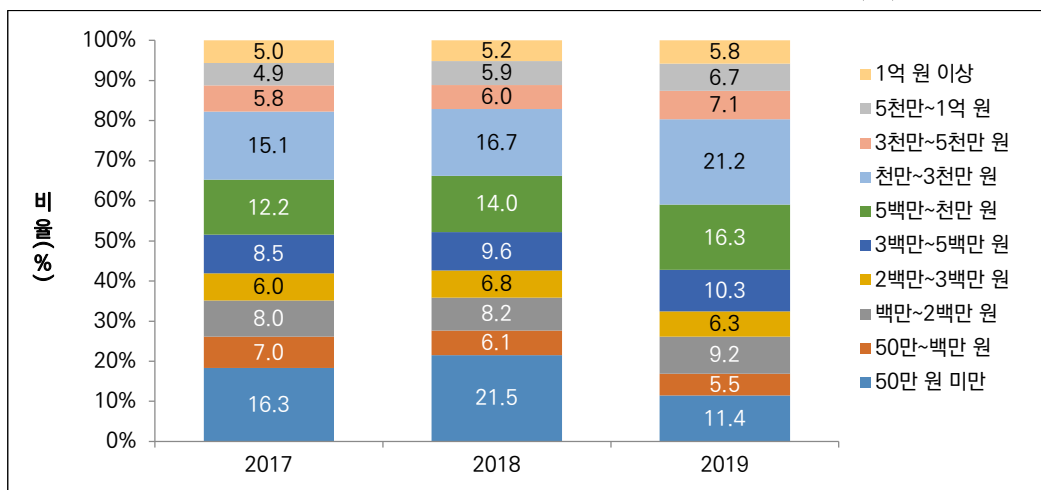
(단위: 개소, 2,15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60]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비율

(단위: %, 2,156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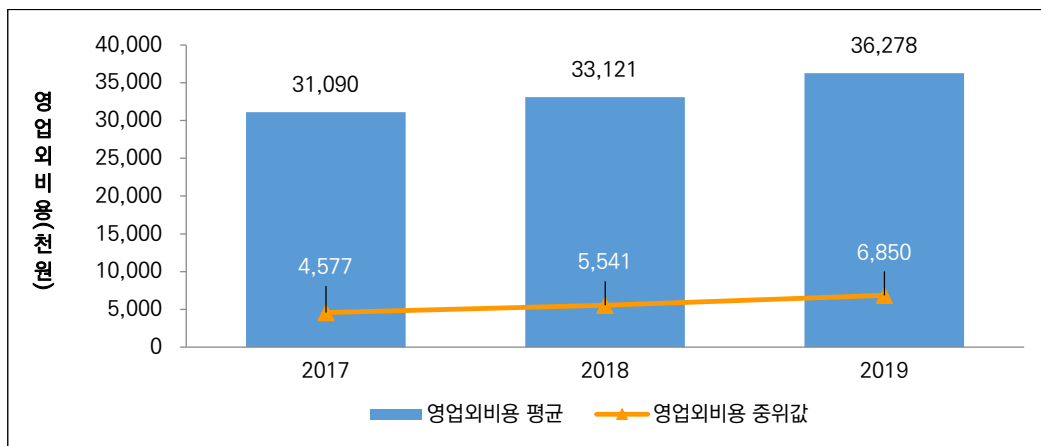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60]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영업외비용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각 항목의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영업외비용이 1천만~3천만 원 구간이 각각 15.1%, 16.7%에서 21.2%로 크게 증가하고, 1억 원 이상, 5천만~1억 원, 3천만~5천만 원, 5백만~1천만 원, 3백만~5백만 원 구간의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반대로 영업외비용의 액수 규모가 작은 구간의 비율은 대체로 줄어들어, 5십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은 각각 16.6%, 21.5%에서 11.4%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아래 [그림 4-61]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영업외비용의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9년 영업외비용 기업별 평균은 약 3천 6백만 원으로 2017년 3천1백만 원, 2018년 약 3천3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중위값 또한 2017년 약 4백6십만 원에서 2018년 약 5백5십만 원, 2019년 약 6백9십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1]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8>과 같다. 평균 영업외비용의 경우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약 6천만 원), 충북(약 5천2백만 원), 인천(약 4천3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 평균을 보고하는 지역은 대구(약 1천4백만 원), 울산과 강원(약 1천8백만 원) 순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영업외비용이 차이가 있었다. 중위값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약 1천5백만 원), 전

북(약 8백6십만 원), 충남과 경기(약 8백4십만 원)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약 3백6십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8>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0,114	411	7,220
부산	31,943	103	4,976
대구	13,809	73	5,445
인천	42,956	139	4,682
광주	26,921	95	7,955
대전	21,654	56	3,612
울산	17,892	78	6,425
세종	56,649	11	18,325
경기	37,306	379	8,383
강원	17,974	114	4,869
충북	52,380	91	5,713
충남	24,708	89	8,386
전북	25,714	120	8,555
전남	20,408	110	6,538
경북	37,172	133	7,457
경남	23,426	104	5,449
제주	31,714	50	15,530
계	36,278	2,156	6,85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마지막으로 <표 4-9>는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외비용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에는 2013년과 2011년에 인증받은 기업의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9년과 2017년, 2019년, 2012년에 인증받은 기업이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7년, 2009년 인증기업은 영업외비용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13~2016년 인증기업은 매년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4-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단위: 천 원)

구분		영업외비용		
		2017	2018	2019
인증연도	2007	37,427	35,799	28,546
	2008	42,207	30,752	37,373
	2009	44,444	35,599	21,118
	2010	34,170	37,923	22,094
	2011	54,636	42,026	51,134
	2012	21,341	21,344	27,324
	2013	58,460	68,413	79,078
	2014	24,386	27,929	35,511
	2015	23,431	25,133	28,999
	2016	24,274	31,452	62,039
	2017	13,345	34,865	23,012
	2018	-	19,708	28,282
	2019	-	-	24,88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9,160	33,862	35,829
	사회서비스제공형	12,820	15,936	18,723
	혼합형	14,478	14,209	11,958
	기타(창의·혁신)형	76,436	57,837	58,153
	지역사회공헌형	9,901	19,173	41,375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6,528	27,990	25,730
	비영리민간단체	28,096	15,387	26,275
	사회복지법인	79,768	49,401	36,309
	상법상회사	31,701	35,183	40,67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278	10,111	20,556
	영농조합법인	25,834	57,518	30,25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9,855	22,239	29,468
	기타	7,717	1,268	-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기타(창의·혁신)형이 상대적으로 영업외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혼합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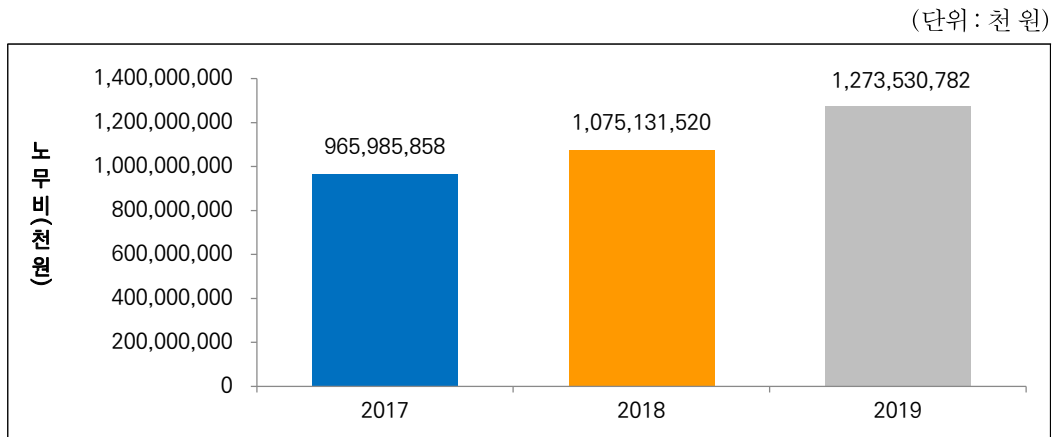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상법상회사와 사회복지법인이 약 4천만 원의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낮은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영업외비용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 상법상회사의 경우 매년 영업외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지출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활용된 지표는 노무비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노무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되는 인건비 외에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노무비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62]와 같이, 2017년 약 9천7백억 원, 2018년 약 1조 8백억 원, 2019년 약 1조 2천7백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2] 연도별 노무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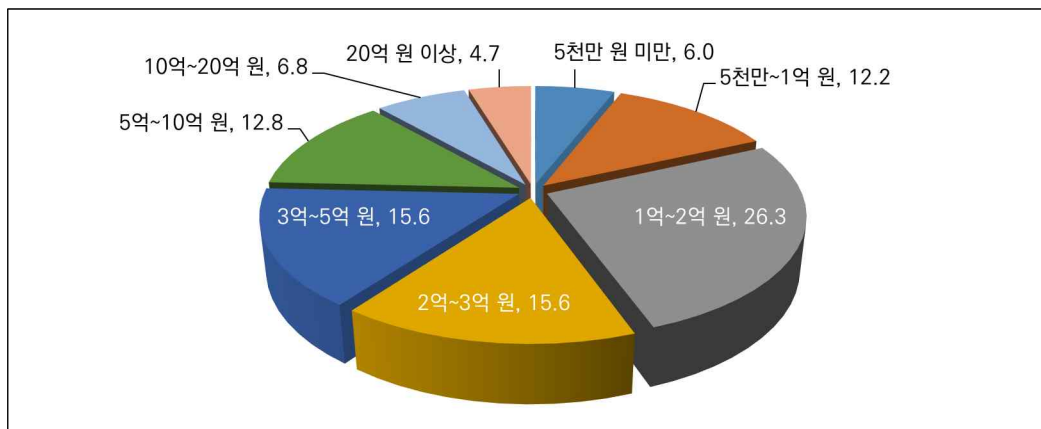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그림 4-63]과 [그림 4-64]는 2019년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비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2,351개 사회적기업 중 노무비가 1억~2억 원인 경우가 618개소(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억~3억 원(368개소, 15.7%), 3억~5억 원(367개소, 15.6%), 5천만~1억 원(288개소, 12.2%)의 순서로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140개소(6.0%)가 있었으며,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110개소(4.7%)를 차지하였다.

[그림 4-63] 노무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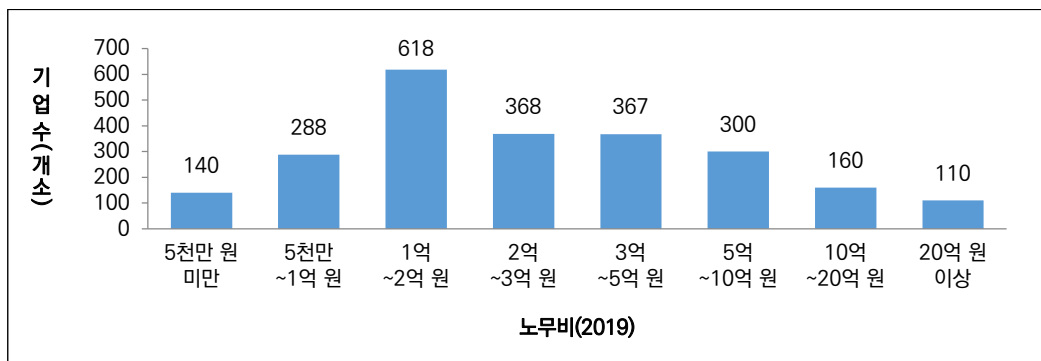
(단위 :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64]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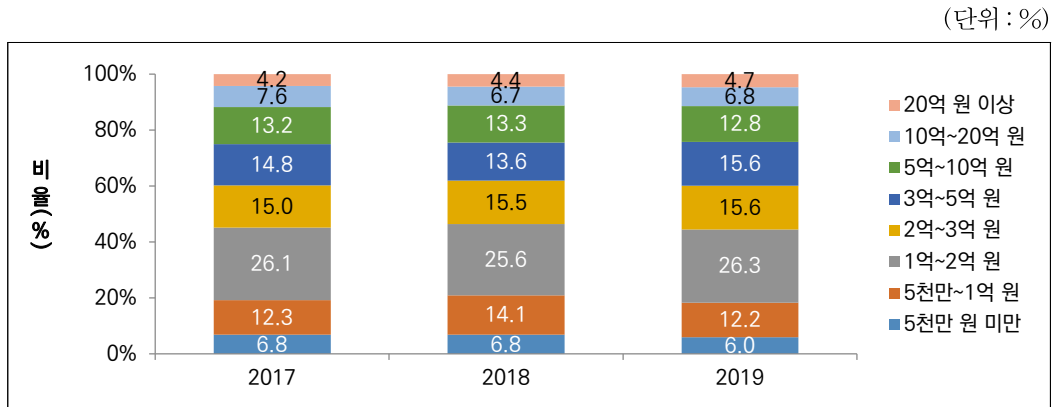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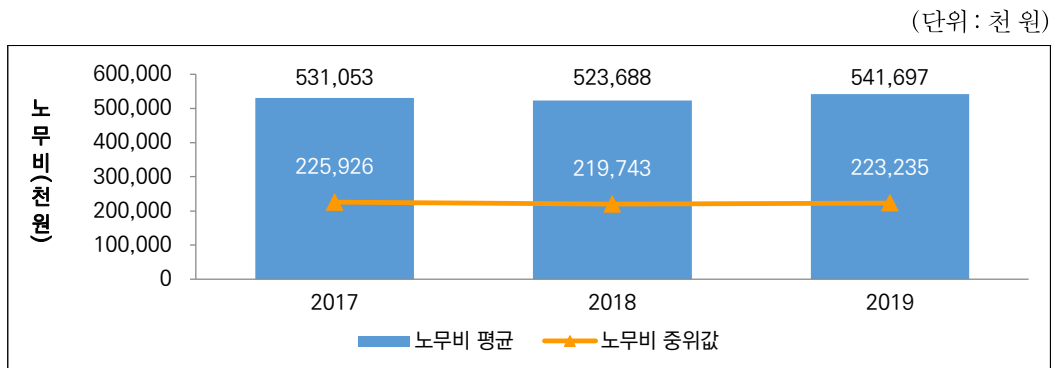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65]는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의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억 원 이상이 각각 4.2%, 4.4%, 4.7%로, 2억~3억 원 사이가 각각 15.0%, 15.5%, 15.6%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65] 노무비 분포 비교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66]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그림 4-66]은 최근 3년간 인건비의 평균 및 중위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인건비 평균은 2017년 약 5억 3천만 원에서 2018년 약 5억 2천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9년 약 5억 4천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2017년 약

2억 2천6백만 원, 2018년 약 2억 1천9백만 원, 2019년 약 2억 2천3백만 원으로 대체로 약 2억 2천만 원 내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0>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88,814	449	256,452
부산	403,905	112	195,165
대구	340,805	81	202,961
인천	364,163	144	178,518
광주	363,256	108	233,538
대전	359,533	65	223,137
울산	385,708	83	207,368
세종	1,025,719	12	340,606
경기	819,330	400	332,628
강원	567,575	125	170,000
충북	392,091	101	215,236
충남	424,068	98	208,802
전북	444,228	139	232,015
전남	314,967	123	180,835
경북	574,856	146	255,342
경남	392,901	113	189,458
제주	449,871	52	279,420
전체	541,697	2,351	223,235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한편, <표 4-10>에서는 지역별로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노무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8억 2천만 원)이고, 서울(약 6억 9천만 원), 경북(약 5억 7천4백만 원), 강원(약 5억 6천7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무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3억 1천만 원)과 대구(약 3억 4천만 원)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3억 3천만 원)가 가장 높았고, 제주

가 약 2억 8천만 원, 서울이 약 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무비 수준이 높았다. 반면, 노무비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약 1억 7천만 원), 인천과 전남(약 1억 8천만 원), 경남(약 1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인증 연도	2007	1,633,906	1,368,801	1,717,371
	2008	627,176	622,025	676,605
	2009	641,927	703,118	937,172
	2010	538,468	727,291	779,672
	2011	887,064	898,685	840,486
	2012	603,838	519,257	493,361
	2013	461,598	529,947	534,272
	2014	481,919	499,347	550,265
	2015	642,279	651,466	742,852
	2016	370,234	411,660	452,349
	2017	254,648	291,983	349,019
	2018	-	326,960	433,254
	2019	-	-	332,63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569,104	577,934	600,256
	사회서비스제공형	624,334	586,703	527,167
	혼합형	529,922	469,458	567,293
	창의·혁신형(기타)	359,882	370,046	370,497
	지역사회공헌형	254,521	226,305	253,62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41,698	545,231	558,278
	비영리민간단체	217,208	221,405	276,078
	사회복지법인	721,176	798,066	867,896
	상법상회사	564,520	561,806	567,4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9,076	361,691	330,133
	영농조합법인	234,608	225,512	260,39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28,942	448,748	509,432
	기타	178,336	53,600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19년 2,3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위의 <표 4-11>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노무비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인증기업이 다른 연도의 인증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으며(2019년 약 17억 2천만 원), 2019년 기준으로 2009년 인증기업 또한 약 9억 4천만 원의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2019년 인증기업 약 3억 3천만 원, 2017년 인증기업 약 3억 5천만 원, 2018년 인증기업 약 4억 3천만 원).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의 노무비 평균이 약 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지역사회공헌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원으로 노무비 평균이 가장 낮았다.

조직형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고 있는데, 약 7억 2천만 원에서 약 8억 7천만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은 노무비가 약 3억 원 수준을 하회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의 총액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의 <표 부가분석 4-3>과 <표 부가분석 4-4>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출총액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17	2018	2019
매출 원가	전체총액		2,429,142,578	2,778,415,268	3,230,785,282
	인증 연도	2007	46,024,029	39,478,727	41,304,306
		2008	93,820,990	84,386,092	88,040,828
		2009	35,735,975	32,495,735	32,678,249
		2010	128,004,691	151,365,322	147,250,748
		2011	170,333,986	188,504,253	235,388,397
		2012	104,169,430	109,037,683	105,480,480
		2013	1,117,398,283	1,164,761,413	1,192,640,437
		2014	187,928,997	186,265,911	204,143,836
		2015	146,662,529	156,848,205	177,927,206
		2016	269,165,674	305,682,546	342,002,278
		2017	129,897,994	159,767,198	189,090,354
		2018	-	199,822,183	247,129,619
		2019	-	-	227,708,54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37,641,216	1,518,186,484	1,900,734,251
		사회서비스제공형	22,896,139	20,408,737	29,571,764
		혼합형	30,219,577	39,401,319	42,301,032
		기타형	1,076,961,256	1,118,917,124	1,143,470,672
		지역사회공헌형	61,424,390	81,501,604	114,707,56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27,758,220	264,925,564	376,646,940
		비영리민간단체	31,035,011	22,323,167	53,377,924
		사회복지법인	99,087,961	95,115,774	96,703,909
		상법상회사	1,898,055,897	2,176,301,215	2,427,457,0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908,595	6,434,466	10,295,580
		영농조합법인	81,178,432	95,406,423	104,588,84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2,051,999	117,854,778	161,715,079
		기타	4,066,463	53,881	-

항목			2017	2018	2019
관관비	전체총액		1,303,483,759	1,599,229,434	1,914,451,044
	인증연도	2007	74,326,018	82,475,653	82,137,210
		2008	87,667,765	88,899,606	94,435,402
		2009	53,347,490	53,356,993	69,520,272
		2010	114,018,521	135,204,067	138,517,685
		2011	124,867,429	129,484,803	132,854,452
		2012	93,420,654	98,596,599	91,515,097
		2013	155,196,729	158,508,424	163,884,228
		2014	162,224,996	174,793,465	184,543,199
		2015	200,253,777	205,096,253	214,514,310
		2016	135,058,277	183,810,334	191,203,531
		2017	103,102,103	125,334,058	142,764,912
		2018	-	163,669,179	201,056,529
		2019	-	-	207,504,21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920,011,817	1,107,803,630	1,330,237,033
		사회서비스제공형	87,539,612	109,320,919	115,110,175
		혼합형	111,128,985	130,183,653	148,919,944
		기타형	149,676,639	187,408,106	234,935,810
		지역사회공헌형	35,126,706	64,513,126	85,248,08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18,676,672	281,192,013	297,928,204
		비영리민간단체	40,913,084	35,241,612	52,319,750
		사회복지법인	54,148,515	58,896,351	63,412,999
		상법상회사	841,005,374	1,015,821,863	1,211,267,79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84,406	3,165,700	4,524,478
		영농조합법인	29,742,687	32,925,261	35,615,60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13,387,115	171,766,895	249,382,214
		기타	2,425,906	219,739	-
노무비	전체총액		965,985,858	1,075,131,520	1,273,530,782
	인증연도	2007	57,186,702	47,908,051	60,107,992
		2008	70,243,736	65,934,623	70,366,967
		2009	37,231,769	40,077,712	50,607,268
		2010	79,154,869	102,548,061	104,476,107
		2011	102,899,387	96,159,275	89,091,568
		2012	74,272,026	61,791,592	56,243,200
		2013	100,628,267	109,169,057	105,251,620
		2014	111,805,112	107,858,863	112,253,975
		2015	174,699,975	166,775,223	173,827,328
		2016	92,928,698	101,679,953	107,206,809
		2017	64,935,317	73,871,660	85,160,714
		2018	-	101,357,450	129,542,952
		2019	-	-	129,394,283

항목			2017	2018	2019
노무비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711,949,427	799,861,338	940,600,432
		사회서비스제공형	70,549,692	72,751,178	75,384,859
		혼합형	90,086,818	85,441,368	108,353,053
		기타형	71,256,556	89,921,083	111,148,957
		지역사회공헌형	22,143,365	27,156,553	38,043,48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53,365,812	147,212,339	171,949,754
		비영리민간단체	26,064,983	23,026,097	31,748,966
		사회복지법인	50,482,340	52,672,383	54,677,428
		상법상회사	639,600,714	727,538,426	832,952,7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16,303	1,808,455	2,971,197
		영농조합법인	15,953,323	17,364,436	19,269,14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8,067,374	105,455,784	159,961,573
		기타	535,009	53,600	-
영업외 비용	전체총액		50,459,770	61,969,832	78,214,686
	인증 연도	2007	1,197,668	1,073,983	884,919
		2008	4,220,706	2,952,158	3,251,445
		2009	1,911,112	1,566,369	886,973
		2010	4,134,515	4,626,576	2,540,773
		2011	5,572,827	3,908,397	4,397,500
		2012	2,176,753	2,262,455	2,759,735
		2013	11,575,076	12,930,147	14,075,812
		2014	5,169,781	5,446,131	6,747,137
		2015	5,693,829	5,956,623	6,176,695
		2016	5,631,469	7,139,683	13,772,592
		2017	3,176,034	8,332,844	5,384,790
		2018	-	5,774,466	8,230,033
		2019	-	-	9,106,28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33,271,010	43,343,455	52,095,910
		사회서비스제공형	1,205,086	1,768,934	2,415,312
		혼합형	1,997,902	2,216,672	1,877,429
		기타형	13,223,370	12,608,478	15,992,181
		지역사회공헌형	762,402	2,032,293	5,833,85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119,846	6,381,775	6,869,786
		비영리민간단체	2,247,649	1,215,599	2,049,474
		사회복지법인	4,546,764	2,371,240	1,633,900
		상법상회사	33,635,173	43,310,523	56,782,9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111	50,553	185,005
		영농조합법인	1,550,011	3,968,730	2,147,80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76,064	4,670,144	8,545,795
		기타	23,152	1,268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19)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천 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라	제주
매출 원가	1,690,463,571	478,233,335	438,217,911	79,827,813	62,687,646	31,798,702	43,611,491	91,981,111	463,581,979	104,680,517	93,935,617	79,071,933	100,918,633	101,687,451	210,024,064	32,237,082
	건설업(F) 건설업(F)	공공행정·국 방·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H)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경 쟁·환경복원 서비스업(J)
관련비	107,178,522	25,346,236	43,821,791	913	41,335,310	1,426,254,822	40,661,400	229,663	124,651,125	30,943,530	9,963,890	26,400,738	951,557	61,872,538	1,312,830,422	32,655,896
	355,497,771	65,794,810	33,988,210	84,273,458	3,889,332	34,231,847	41,601,686	19,221,233	454,581,124	66,710,466	66,273,471	61,144,921	98,473,332	55,594,324	107,463,628	37,557,423
노무비	57,261,108	20,976	119,931,178	894,400	17,284,939	204,612,789	3,891,251,6	6,945,385	246,626,327	33,223,621	10,027,393	30,561,834	1,534,789	32,128,544	519,099,394	121,194,722
	330,277,694	45,257,409	27,655,219	32,434,458	3,923,621	23,331,655	2,013,376	12,486,633	327,732,100	70,146,881	34,601,142	41,558,675	61,747,628	38,740,886	83,929,107	23,383,319
영업비 비용	37,620,029	116,091	66,589,046	484,225	12,171,785	123,926,672	201,134,165	2,024,098	229,065,533	28,336,107	45,640,106	6,694,232	646,388	15,077,876	310,819,463	89,471,121
	241,768,822	3,200,171	1,008,042	5,970,836	2,557,519	1,222,644	1,365,568	6,231,334	14,130,100	240,019,019	4,766,576	21,019,088	3,085,621	22,448,633	493,822	1,565,720
영업이익	1,384,831	-	278,700	32,766	983,232	19,867,742	2,923,455	233,459	428,830	901,688	215,973	214,256	420,383	1,210,590	36,430,103	2,433,897
	1,886,193	-	278,700	32,766	983,232	19,867,742	2,923,455	233,459	428,830	901,688	215,973	214,256	420,383	1,210,590	36,430,103	2,433,89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제3절 기타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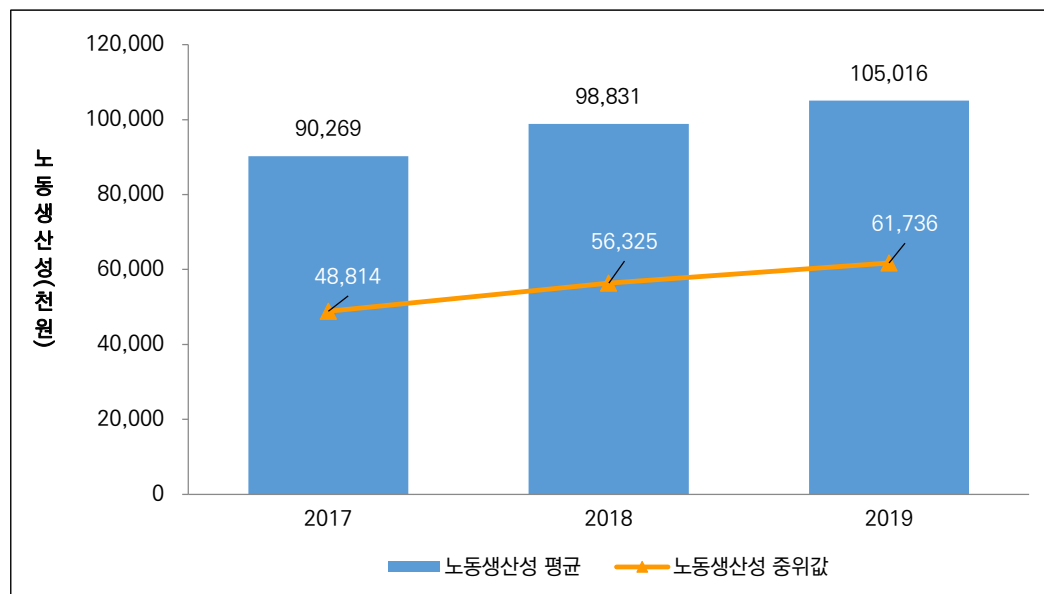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재정성과와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로 분류 가능한 노동생산성과 일반인 고용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되는데, 다음 [그림 4-67]에 평균 노동생산성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7~2019년 동안에 노동생산성의 평균값과 중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노동생산성의 평균은 약 1억 1천만 원, 중위값은 약 6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67]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아래 <표 4-12>는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약 1억 4천만 원), 전남(약 1억 2천만 원), 경북(약 1억 1천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을 제외하면 강원(약 7천6백만 원), 대구(약 8천만 원)였다. 노동생산성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약 8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약 4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지역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생산성 중위값
서울	136,019	75,493
부산	90,889	48,933
대구	80,765	48,183
인천	83,218	54,747
광주	93,582	60,687
대전	107,237	61,949
울산	78,282	50,322
세종	56,268	44,331
경기	104,513	71,727
강원	76,223	49,664
충북	114,196	80,288
충남	96,662	55,509
전북	99,849	65,381
전남	115,848	61,691
경북	113,740	56,499
경남	88,954	42,582
제주	110,749	76,771
전체	105,016	61,73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표 4-13>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단위: 천 원)

		2017	2018	2019
인증 연도	2007	77,255	69,612	76,279
	2008	72,446	81,437	77,999
	2009	69,371	70,676	74,357
	2010	90,167	86,141	81,504
	2011	95,379	115,277	124,683
	2012	81,371	96,191	100,382
	2013	122,198	118,139	127,392
	2014	90,536	106,311	124,045
	2015	78,891	91,331	101,446
	2016	104,857	120,920	140,460
	2017	76,419	85,891	93,697
	2018	-	95,641	103,885
	2019	-	-	90,50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92,080	103,892	110,438
	사회서비스제공형	73,127	76,534	85,878
	혼합형	54,971	59,236	67,127
	기타(장의·혁신)형	112,694	102,678	103,966
	지역사회공헌형	105,125	115,277	116,89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77,108	79,794	90,040
	비영리민간단체	65,655	54,028	68,714
	사회복지법인	47,446	44,706	47,286
	상법상회사	95,612	107,861	114,4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8,408	103,119	107,336
	영농조합법인	164,174	170,535	174,1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8,721	82,237	84,387
	기타	117,119	47,47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인증연도별로는 2016년 인증기업(약 1억 4천만 원)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고, 2013년 인증기업(약 1억 3천만 원), 2011년과 2014년 인증기업(약 1억 2천만 원)도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았다. 반면 2007~2009년도 인증기업이 약 7천만~8천만 원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고하였다. 한편, 2009년, 2011년, 2014~2017년 인증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별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을 제외한 모든 인증유형에서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2017년 약 1억 1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억 3백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9년에 1억 4백만 원으로 약간 향상된 노동생산성을 보고하였다. 혼합형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지만, 2019년 약 6천7백만 원으로 기타(창의·혁신)형이나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의 약 절반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약 1억 6천만 원, 2018년과 2019년 약 1억 7천만 원으로 매년 노동생산성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노동생산성은 2019년 각각 약 4천 7백만 원과 약 6천 8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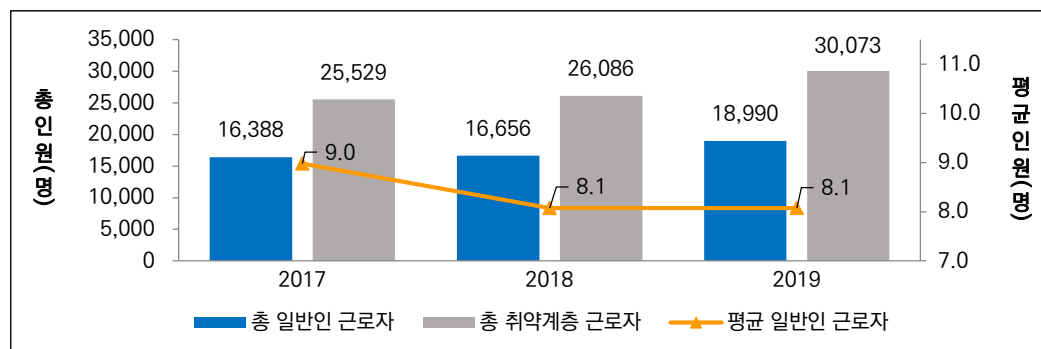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마지막 측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68]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총 일반인 근로자의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총 일반인 근로자와 총 취약계층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17년 16,388명, 2018년 16,656명, 2019년 18,990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 또한 2017년 25,529명, 2018년 26,086명, 2019년 30,073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2017년 9.0명에서 2018년 8.1명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도 8.1명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4-68]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에 제시된 <표 4-14>는 각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에서 세종지역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을 나타낸 곳은 경기(12.2명), 서울(12.0명)이었다. 반면, 전남(5.4명)과 대구(5.5명), 인천(5.6명), 울산(5.9명)은 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보고하였다.

<표 4-14>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단위: 명)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서울	12.0
부산	6.4
대구	5.5
인천	5.6
광주	6.0
대전	9.6
울산	5.9
세종	12.0
경기	12.2
강원	9.9
충북	7.3
충남	8.3
전북	6.6
전남	5.4
경북	9.3
경남	6.8
제주	8.2
전체	9.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의 <표 4-15>에서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근로자 수는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인증연도가 최근 기업보다 더 많고, 최근 인증 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총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군은 2015년 인증기업이었고(2,406명), 가장 적은 기업은 2009년 인증기업이었다(793명).

<표 4-15>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2007	1,165	33.3	940	26.9	946	28.7
2008	1,148	10.3	1,105	10.3	1,089	12.1
2009	754	12.8	651	11.4	793	18.4
2010	1,624	10.9	1,508	10.6	1,548	12.8
2011	1,721	14.7	1,421	13.2	1,158	12.5
2012	1,268	10.3	918	7.7	885	8.8
2013	1,812	8.3	1,705	8.2	1,764	10.3
2014	1,781	7.7	1,559	7.2	1,489	8.6
2015	2,549	9.4	2,380	9.2	2,406	11.5
2016	1,518	6.0	1,571	6.3	1,571	7.1
2017	1,048	4.1	1,152	4.6	1,258	5.5
2018	-	-	1,746	5.6	1,964	7.2
2019	-	-	-	-	2,119	6.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다음의 <표 4-16>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일자리제공형의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19년을 기준으로 12,132명이었다.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약 1천5백~2천7백 명 사이의 근로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매년 조금씩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9년 기준으로 736명에 그쳤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평균이 2017년 13.2명, 2018년에 11.7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9년에는 혼합형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6>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17		2018		2019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	10,757	8.6	10,702	7.7	12,132	8.6
사회서비스제공형	1,486	13.2	1,459	11.7	1,549	11.3
혼합형	1,825	10.7	1,701	9.2	1,902	11.8
기타(창의·혁신)형	1,910	9.6	2,267	9.3	2,671	9.8
지역사회공헌형	410	4.7	527	4.4	736	5.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조직형태에 따라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4-17>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법상회사에서 고용한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2017년 10,453명, 2018년 10,376명, 2019년 11,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9년 기준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도 각각 3,284명과 2,94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3년간 각각 36명, 41명, 64명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에서 평균 11.6명으로 가장 많은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법상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평균 약 11명에 가까운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농조합법인(5.0명), 비영리민간단체(5.1명)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17		2018		2019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민법상법인	2,667	11.1	2,554	9.4	2,948	10.7
비영리민간단체	395	3.2	392	3.8	502	5.1
사회복지법인	687	9.8	617	9.3	644	11.1
상법상회사	10,453	9.2	10,376	8.0	11,250	8.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	9.0	41	8.2	64	7.1
영농조합법인	253	3.7	268	3.5	298	5.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90	10.3	2,408	10.2	3,284	11.6
기타	7	2.3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4-18>은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28만 원, 평균근로시간은 35.6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경북(약 274만 원), 경기(약 255만 원), 제주(약 247만 원), 강원(약 229만 원), 전남(약 227만 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임금을 보고하였고, 경남(약 181만 원), 울산(약 187만 원), 대구(약 188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 평균근로시간은 전남(38.5시간), 경북(38.1시간), 강원(37.9시간), 제주(37.6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경남(33.0시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짧게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지역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서울	2,229	36.3
부산	1,899	35.0
대구	1,881	34.4
인천	1,966	34.7
광주	2,265	37.4
대전	1,980	33.4
울산	1,874	33.7
세종	2,051	34.9
경기	2,545	34.6
강원	2,289	37.9
충북	2,215	34.9
충남	1,882	33.0
전북	2,231	36.0
전남	2,267	38.5
경북	2,735	38.1
경남	1,808	33.0
제주	2,471	37.6
전체	2,275	35.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다음 <표 4-19>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을 나타낸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15년 인증기업이 일반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58만 원)을 보고하였고, 2011년 인증기업이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37.7시간)을 보고하였다.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은 2007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35시간 내외의 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4-19>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7		2018		2019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2,037	37.8	2,276	37.2	2,190	34.8
2008	2,084	35.3	2,166	35.0	2,404	34.9
2009	1,553	31.3	1,772	32.5	1,882	33.0
2010	1,885	34.8	2,430	35.6	2,469	35.0
2011	2,000	35.9	2,339	38.3	2,410	37.7
2012	1,825	34.7	1,997	35.0	2,222	34.5
2013	1,753	33.4	1,953	34.1	1,987	33.2
2014	1,934	36.2	2,134	37.1	2,222	36.5
2015	2,138	35.6	2,347	35.4	2,584	36.0
2016	2,065	37.9	2,161	38.1	2,268	37.3
2017	1,900	36.6	2,125	37.3	2,285	37.4
2018	-	-	2,078	35.8	2,217	35.5
2019	-	-	-	-	2,180	36.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4-20>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이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43만 원)을 보고한 반면에, 평균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이 38.2시간으로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0>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7		2018		2019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2,064	36.4	2,331	37.1	2,434	36.7
사회서비스제공형	1,673	31.2	1,811	32.8	1,926	30.9
혼합형	1,392	31.5	1,567	31.5	1,706	31.4
기타(창의·혁신)형	2,037	37.3	2,133	35.9	2,188	35.9
지역사회공헌형	2,017	38.3	2,137	38.7	2,183	38.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아래 <표 4-21>은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이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약 290만 원)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과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약 39.1시간)을 보고한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약 170만 원의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보고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균근로시간이 33.1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표 4-21>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7		2018		2019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867	34.3	2,017	35.4	2,082	34.7
비영리민간단체	1,832	34.3	1,843	32.4	2,142	33.1
사회복지법인	2,766	39.1	2,876	39.3	2,906	39.1
상법상회사	1,942	35.7	2,258	36.5	2,398	3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20	27.2	1,636	32.3	1,712	33.9
영농조합법인	2,154	39.8	2,152	39.7	2,193	38.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19	34.9	1,868	34.2	1,942	33.6
기타	1,914	38.6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5>와 <표 부가분석 4-6>에는 앞서 정리한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일반근로자와 취약근로자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급근로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항목		2017	2018	2019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41,917	42,742	49,063
	인증연도	2007	2,590	2,267
		2008	3,216	3,019
		2009	2,236	2,129
		2010	4,160	3,711
		2011	4,058	3,605
		2012	3,174	2,369
		2013	4,646	4,219
		2014	4,877	4,391
		2015	6,187	5,578
		2016	4,019	3,999
		2017	2,754	3,071
		2018	-	4,384
		2019	-	-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1,087	30,661
		사회서비스제공형	2,808	3,118
		혼합형	4,733	4,989
		기타(창의·혁신)형	2,482	2,974
		지역사회공헌형	807	1,000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6,071	6,717
		비영리민간단체	1,146	1,112
		사회복지법인	2,564	2,530
		상법상회사	27,578	26,49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3	161
		영농조합법인	626	67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762	5,053
		기타	27	4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평균임금	1,623	1,827	1,917
	인증연도	2007	1,755	1,977
		2008	1,479	1,607
		2009	1,286	1,454
		2010	1,567	2,028
		2011	1,696	1,925

항목			2017	2018	2019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2012	1,513	1,676	1,852
		2013	1,433	1,606	1,631
		2014	1,568	1,739	1,762
		2015	1,938	2,160	2,348
		2016	1,691	1,814	1,918
		2017	1,656	1,842	1,996
		2018	-	1,792	1,889
		2019	-	-	1,84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58	1,887	1,972
		사회서비스제공형	1,446	1,554	1,692
		혼합형	1,295	1,474	1,539
		기타(창의·혁신)형	1,939	2,033	2,104
		지역사회공헌형	1,841	1,994	2,05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558	1,689	1,760
		비영리민간단체	1,343	1,382	1,602
		사회복지법인	1,493	1,581	1,672
		상법상회사	1,670	1,946	2,04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06	1,262	1,514
		영농조합법인	1,802	1,897	2,00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49	1,617	1,710
		기타	1,208	1,213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시간		34.1	34.1	33.1
	인증연도	2007	36.8	36.1	33.7
		2008	32.2	31.4	31.0
		2009	29.3	29.5	30.3
		2010	33.6	33.9	33.4
		2011	35.6	36.5	35.1
		2012	32.5	32.6	32.2
		2013	31.7	31.8	30.4
		2014	33.6	34.0	32.1
		2015	36.8	36.0	35.5
		2016	35.4	35.3	34.7
		2017	35.2	35.2	35.3
		2018	-	33.8	32.9
		2019	-	-	32.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4.6	34.8	33.8
		사회서비스제공형	30.4	30.4	28.6
		혼합형	30.8	30.3	29.2
		기타(창의·혁신)형	36.8	35.3	35.3
		지역사회공헌형	38.1	38.4	37.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3.4	33.3	32.2
		비영리민간단체	32.7	30.4	30.0
		사회복지법인	34.1	33.4	32.4
		상법상회사	34.4	34.8	33.9

항목			2017	2018	2019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조직형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8.5	29.2	31.2
		영농조합법인	38.9	38.4	37.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3.0	32.1	31.2
		기타	28.9	30.0	-
		전체	25,529	26,086	30,073
취약 근로자 수	인증연도	2007	1,425	1,327	1,314
		2008	2,068	1,914	1,959
		2009	1,482	1,478	1,747
		2010	2,536	2,203	2,270
		2011	2,337	2,184	1,992
		2012	1,906	1,451	1,329
		2013	2,834	2,514	2,709
		2014	3,096	2,832	2,920
		2015	3,638	3,198	3,324
		2016	2,501	2,428	2,436
		2017	1,706	1,919	1,900
		2018	-	2,638	3,154
		2019	-	-	3,01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330	19,959	23,288
		사회서비스제공형	1,322	1,659	1,857
		혼합형	2,908	3,288	3,493
		기타(창의·혁신)형	572	707	908
		지역사회공헌형	397	473	527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404	4,163	4,442
		비영리민간단체	751	720	956
		사회복지법인	1,877	1,913	1,908
		상법상회사	17,125	16,118	18,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7	120	87
		영농조합법인	373	403	38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72	2,645	4,062
		기타	20	4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전체	1,414	1,605	1,690
		2007	1,524	1,766	1,753
		2008	1,143	1,285	1,476
		2009	1,150	1,314	1,494
		2010	1,364	1,753	1,882
		2011	1,473	1,656	1,709
		2012	1,305	1,473	1,605
		2013	1,229	1,370	1,400
		2014	1,357	1,522	1,528
		2015	1,798	2,021	2,176
		2016	1,464	1,590	1,692
		2017	1,507	1,671	1,805
		2018	-	1,602	1,684
		2019	-	-	1,613

항목			2017	2018	2019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443	1,648	1,732
		사회서비스제공형	1,191	1,328	1,496
		혼합형	1,234	1,425	1,448
		기타(창의·혁신)형	1,610	1,713	1,857
		지역사회공헌형	1,659	1,835	1,868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317	1,487	1,546
		비영리민간단체	1,086	1,131	1,318
		사회복지법인	1,027	1,163	1,256
		상법상회사	1,504	1,745	1,8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34	1,134	1,368
		영농조합법인	1,563	1,728	1,86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76	1,389	1,522
		기타	961	1,213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33.2	32.9	31.6
	인증연도	2007	36.1	35.3	32.8
		2008	30.5	29.4	28.8
		2009	28.2	28.2	28.8
		2010	32.8	32.9	32.7
		2011	35.5	35.4	33.8
		2012	31.0	31.3	30.8
		2013	30.6	30.3	28.7
		2014	32.2	32.3	29.8
		2015	37.6	36.6	35.1
		2016	33.9	33.6	33.2
		2017	34.3	34.0	33.8
		2018	-	32.5	31.3
		2019	-	-	30.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3.7	33.6	32.3
		사회서비스제공형	29.5	28.6	26.5
		혼합형	30.4	29.7	28.1
		기타(창의·혁신)형	35.3	33.1	33.6
		지역사회공헌형	37.9	38.3	36.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2.7	32.0	30.6
		비영리민간단체	31.9	29.5	28.6
		사회복지법인	32.3	31.6	30.3
		상법상회사	33.6	33.7	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0	28.1	29.6
		영농조합법인	38.3	37.8	37.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1.0	30.2	29.0
		기타	25.5	30.0	-
일반인 근로자 수	전체		16,388	16,656	18,990
	인증연도	2007	1,165	940	946
		2008	1,148	1,105	1,089

항목			2017	2018	2019
일반인 근로자 수	인증연도	2009	754	651	793
		2010	1,624	1,508	1,548
		2011	1,721	1,421	1,158
		2012	1,268	918	885
		2013	1,812	1,705	1,764
		2014	1,781	1,559	1,489
		2015	2,549	2,380	2,406
		2016	1,518	1,571	1,571
		2017	1,048	1,152	1,258
		2018	-	1,746	1,964
		2019	-	-	2,11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757	10,702	12,132
		사회서비스제공형	1,486	1,459	1,549
		혼합형	1,825	1,701	1,902
		기타(창의·혁신)형	1,910	2,267	2,671
		지역사회공헌형	410	527	736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667	2,554	2,948
		비영리민간단체	395	392	502
		사회복지법인	687	617	644
		상법상회사	10,453	10,376	11,2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	41	64
		영농조합법인	253	268	29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90	2,408	3,284
		기타	7	0	-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1,950	2,175	2,275
	인증연도	2007	2,037	2,276	2,190
		2008	2,084	2,166	2,404
		2009	1,553	1,772	1,882
		2010	1,885	2,430	2,469
		2011	2,000	2,339	2,410
		2012	1,825	1,997	2,222
		2013	1,753	1,953	1,987
		2014	1,934	2,134	2,222
		2015	2,138	2,347	2,584
		2016	2,065	2,161	2,268
		2017	1,900	2,125	2,285
		2018	-	2,078	2,217
		2019	-	-	2,18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64	2,331	2,434
		사회서비스제공형	1,673	1,811	1,926
		혼합형	1,392	1,567	1,706
		기타(창의·혁신)형	2,037	2,133	2,188
		지역사회공헌형	2,017	2,137	2,183

항목			2017	2018	2019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867	2,017	2,082
		비영리민간단체	1,832	1,843	2,142
		사회복지법인	2,766	2,876	2,906
		상법상회사	1,942	2,258	2,3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20	1,636	1,712
		영농조합법인	2,154	2,152	2,19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19	1,868	1,942
		기타	1,914	-	-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전체		35.5	36.1	35.6
	인증연도	2007	37.8	37.2	34.8
		2008	35.3	35.0	34.9
		2009	31.3	32.5	33.0
		2010	34.8	35.6	35.0
		2011	35.9	38.3	37.7
		2012	34.7	35.0	34.5
		2013	33.4	34.1	33.2
		2014	36.2	37.1	36.5
		2015	35.6	35.4	36.0
		2016	37.9	38.1	37.3
		2017	36.6	37.3	37.4
		2018	-	35.8	35.5
		2019	-	-	36.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6.4	37.1	36.7
		사회서비스제공형	31.2	32.8	30.9
		혼합형	31.5	31.5	31.4
		기타(창의·혁신)형	37.3	35.9	35.9
		지역사회공헌형	38.3	38.7	38.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4.3	35.4	34.7
		비영리민간단체	34.3	32.4	33.1
		사회복지법인	39.1	39.3	39.1
		상법상회사	35.7	36.5	3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7.2	32.3	33.9
		영농조합법인	39.8	39.7	38.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4.9	34.2	33.6
		기타	38.6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7, 2018, 2019).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체 유급 근로자 수	12,424	1,929	983	2,200	1,536	929	1,242	502	12,400	2,461	1,502	1,728	2,122	1,361	2,866	1,932	936	-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하수·폐기 물처리·원 료채광·환 기인 서비스업(S)	-
	954	3	2,434	12	475	3,935	13,835	62	8,211	1,153	1,686	229	24	55	12,139	1,683	1,744	536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인급	1,81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628	1,628	1,716	1,665	1,843	1,809	1,638	1,612	2,103	2,076	1,735	1,745	1,925	1,988	2,405	1,647	1,981	-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하수·폐기 물처리·원 료채광·환 기인 서비스업(S)	-
지역	2,124	2,674	1,678	2,335	1,835	2,083	1,549	2,519	2,000	1,709	1,737	2,002	2,207	2,289	1,891	2,009	4,526	1,7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26	316	332	319	336	335	322	321	328	359	321	325	335	366	363	318	330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I)	하수·폐기 물처리·원 료채광·환 기인 서비스업(S)	-
	364	400	307	400	370	365	287	350	345	331	330	385	388	362	343	380	396	344
	364	400	307	400	370	365	287	350	345	331	330	385	388	362	343	380	396	344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체 취약 근로자 수	7,423	1,304	543	1,631	914	451	804	418	7,309	1,445	885	1,011	1,250	791	1,441	1,249	514	-
	건설회사(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 업(I)	하수·폐기 물처리·원 료채광·환 경복원업(E)	협회·단체 · 수리· 개인 서비스업(S)
	542	1	1,053	1	297	1,855	9,176	17	6,078	632	689	146	20	212	7,810	307	935	332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인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543	1,498	1,588	1,544	1,589	1,627	1,540	1,461	1,855	1,927	1,485	1,647	1,712	1,787	2,155	1,557	1,607	-
	건설회사(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 업(I)	하수·폐기 물처리·원 료채광·환 경복원업(E)	협회·단체 · 수리· 개인 서비스업(S)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1,937	2,730	1,567	2,600	1,671	1,881	1,446	1,470	1,916	1,567	1,507	1,933	2,195	1,986	1,548	1,930	4,257	1,38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00	301	325	309	313	335	315	311	318	346	303	324	318	354	352	310	297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건설회사(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 업(I)	하수·폐기 물처리·원 료채광·환 경복원업(E)	협회·단체 · 수리· 개인 서비스업(S)
	353	400	302	400	360	358	276	319	336	311	304	382	383	346	321	358	395	33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일반인 근로자 수	501	65	40	69	52	48	48	14	491	106	67	77	82	50	78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J)
	42	2	138	11	178	2140	4639	45	2133	524	1017	83	4	238	786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2229	1889	1881	1936	2235	1880	1874	2051	2545	2289	2215	1882	2231	2237	1888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J)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2371	2637	1770	2311	2108	2221	1751	2096	2564	2100	1889	2230	2236	2510	216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63	350	344	347	374	334	337	349	346	379	349	330	360	385	330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건설업(F)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J)
	380	400	313	400	386	372	308	362	374	359	348	392	405	376	389
	-	-	-	-	-	-	-	-	-	-	-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7~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최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구분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018년에 비해 290개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해, 2019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352개소. • 인증연도별로는 2019년(389개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6.6%),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62.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전체의 지원금 총액은 339,135,169천 원으로 2018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지원금 총액 중 정부지원금이 76.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전체평균은 150,326천 원이고 중위값 72,109천 원임.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평균 128,949천 원이고 중위값은 68,477천 원임. 평균 및 중위값을 기준으로 총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둘 다 증가하고 있음.
취약계층 및 일 반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19년 기준 30,07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12.9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일자리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근로자가 많음.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19년 기준 18,990명.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8.1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혼합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에서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많음. •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1,690천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1.6시간으로 감소했음. 일반인 평균임금 또한 약 2,275천 원으로 2018년에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5.6시간으로 2018년에 비해 감소. 일반인 평균임금대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2018년에 비해 약간 증가(74.3%).

<표 5-1>의 계속

구분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9년 1,332개소로 2018년에 비해 증가함.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전체 인원 5,407,514명, 중위값 369명으로 2018년에 비해 전체 수혜인원은 증가했으나 중위값은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의 2019년 총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2,025,216명, 중위값은 1,262명으로 나타남. 2018년에 비해 총 수혜인원과 중위값은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시계열자료 기술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2,078개소, 기타회의체(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활용하는 주체는 765개소임. 2019년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1.0%, 수혜자 참여비율은 2.3%,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은 18.5%로 나타났고, 기타 회의체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18.8%, 수혜자 참여비율은 9.8%,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비율은 17.6%로 나타남. 2018년과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
사회적 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중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은 총 1,279개소이며, 전체 재투자액은 116,173,160천 원으로 나타남. • 기업 수로는 구성원성과급과 지역사회재투자, 총금액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과 구성원성과급이 가장 높게 나타남.
수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817,046,340천 원을 보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2,048,935천 원, 중위값은 566,396천 원으로, 평균 및 중위값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민간시장매출의 비중이 공공시장매출에 비해 높음. • 2019년 영업이익 총액 21,588,856천 원, 평균 및 중위값은 각각 9,183천 원, 3,060천 원임. 2018년과 비교 했을 때 총액이나 평균, 중위값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의 감소를 일정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총액은 115,534,653천 원, 평균 49,353천 원, 중위값은 13,664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71.9%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함.
지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원가 총액은 3,230,785,28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매출원가 평균(1,974,808천 원)과 중위값(339,451천 원)은 모두 2018년 수준을 유지함. • 판매관리비(경비 포함) 총액은 1,914,451,044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평균(813,967천 원)과 중위값(363,734천 원) 모두 2018년에 비해 증가함. • 영업외비용 총액은 78,214,686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영업외비용 평균(36,278천 원) 및 중위값(6,850천 원) 모두 2018년에 비해 증가함. • 노무비 총액은 1,273,530,78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노무비 평균(541,697천 원) 및 중위값(223,235천 원) 모두 2018년에 비해 증가함.
노동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 평균 105,016천 원, 중위값 61,736천 원을 나타냄.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이나 성과는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성에 있어 상법상회사와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금 총액은 지난해와 같이 민간 및 정부지원금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급근로자 총인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근로자 수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고, 평균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또한 그 특성에 있어 지난해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도 총 매출액, 평균매출액, 매출액 중위값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일부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2018년 대폭 감소한 영업이익이 2019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성과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길현중 외, 2019), 영업이익은 2018년 총액, 평균, 중위값 모두에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2019년에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2018년의 감소를 상당 정도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적어도 올해 분석결과만으로 이러한 경향을 이해해 본다면, 2018년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018년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전체 지원금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2017~2018년과는 달리 약간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원금액 증가에 비해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등으로 구성된 민간지원금액의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민간지원의 영역은 일반영리기업들이 보유하지 못한, 즉, 일반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사회적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자원임을 고려한다면, 민간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중요성은 특히 2020년과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가 도래한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정부 양측에서 사회적기업에 민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확장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제공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와 관련한 자료의 신뢰성 제고, 이와 관련한 추후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본 성과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시계열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중위값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 2019년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자료의 경우 자료작성에 있어 기준이 모호한 본질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아무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도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본문의 분석결과가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지 혹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재검증하는 후속 정기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성과분석의 후속연구로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초점을 두어 실제 이들 기업의 성과를 재검증하여 사업보고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이 두 영역의 성과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현황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표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부표 1> 표준산업분류별 일반회계(2019)

구분	간접업 (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 (P)	금융 및 보험업 (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 (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숙박 및 음식점업 (I)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운수업 (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I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제조업 (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하수, 폐기물, 폐기물 처리, 및 환경 서비스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S)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개소)	123	1	254	1	59	269	195	6	214	75	224	14	3	45	680	90	61	38	2,352
사회적기업 비율(%)	5.2	0.0	10.8	0.0	2.5	11.4	8.3	0.3	9.1	3.2	9.5	0.6	0.1	1.9	28.9	3.8	2.6	1.6	100.0
정부지원금 평균(천 원)	59,909	76,385	95,515	31,623	126,859	93,909	163,159	64,044	94,633	110,521	106,475	114,130	180,570	98,017	187,001	101,140	74,653	136,597	128,949
정부지원금 중위값(천 원)	35,700	76,385	61,167	31,623	82,651	61,974	80,958	73,007	61,253	61,646	62,888	109,888	180,570	57,800	84,272	67,978	26,738	77,110	68,477
기업후원금 평균(천 원)	9,682	-	30,148	-	33,460	287,807	92,550	5,555	28,976	41,273	37,738	23,455	8,599	128,573	33,872	193,993	102,833	41,700	94,378
기업후원금 중위값(천 원)	5,000	-	22,335	-	33,460	28,637	25,945	5,555	19,288	50,000	23,090	23,455	8,599	56,320	12,887	70,484	58,689	8,713	22,168
모기관지원금 평균(천 원)	-	-	200,114	-	-	42,449	33,422	-	21,597	26,318	50,000	-	-	-	187,726	-	-	97,015	120,245
모기관지원금 중위값(천 원)	-	-	27,954	-	-	17,333	32,235	-	29,192	22,479	50,000	-	-	-	54,620	-	-	108,044	32,000
일반기부금 평균(천 원)	4,035	-	29,152	-	61,535	74,882	21,306	-	13,279	12,425	29,037	-	-	-	21,884	88,381	-	6,857	28,077
일반기부금 중위값(천 원)	5,155	-	21,196	-	49,596	29,248	11,841	-	6,650	6,100	11,496	-	-	-	10,715	70,010	-	5,249	11,719
기타지원금 평균(천 원)	8,319	-	13,894	3,502	8,472	71,093	19,987	31,165	14,216	10,070	16,075	7,737	52,247	20,673	30,255	14,440	24,671	9,649	25,465
기타지원금 중위값(천 원)	3,291	-	2,586	3,502	3,712	3,890	4,886	29,601	4,686	2,000	1,650	4,245	68,533	3,889	5,207	3,711	8,905	2,433	3,885
총지원금 평균(천 원)	56,402	76,385	110,264	35,125	121,505	182,124	188,417	69,880	95,339	109,820	124,828	106,133	175,494	115,833	206,799	130,413	71,735	143,031	150,326
총지원금 중위값(천 원)	33,841	76,385	70,618	35,125	83,545	70,298	97,720	77,488	54,091	49,808	71,974	66,409	96,709	52,181	91,977	82,442	28,858	68,379	72,109
정부지원금 비율(%) *전체업종별 지원금 비율	88.2	100.0	80.9	90.0	90.9	46.5	78.8	76.4	85.6	88.4	79.4	92.2	68.6	74.9	82.3	72.2	55.6	82.9	76.5

<부표 1>의 계속

구분	간접업 (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 (P)	금융 및 보험업 (K)	금융 및 보험업 아업(A)	도매 및 소매업 (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숙박 및 음식점업 (I)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운수업 (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I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제조업 (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하수, 폐기 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합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S)	전체
정부지원금 비율(%)	83.4	100.0	85.4	90.0	89.7	79.8	80.9	80.4	84.2	87.2	79.3	92.6	91.4	84.7	85.1	82.7	70.9	85.5	83.3
*개발기업지원금 비율의 평균																			
취약계층유급근로자 수(명)	542	1	1,033	1	297	1,855	9,176	17	6,078	632	669	146	20	212	7,810	307	905	352	30,073
취약계층유급근로자 수 평균(명)	4.4	1.0	4.2	1.0	5.1	7.0	47.3	2.8	28.4	8.4	3.0	10.4	6.7	4.7	11.5	3.4	14.8	9.3	12.9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임금(천 원)	1,937	2,730	1,557	2,600	1,671	1,881	1,446	1,470	1,816	1,557	1,507	1,933	2,185	1,936	1,548	1,930	4,257	1,599	1,680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근무시간 (시간)	35.3	40.0	30.2	40.0	36.0	35.8	27.6	31.9	33.6	31.1	30.4	38.2	38.3	34.6	32.1	35.8	39.5	33.2	31.6
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민혼합형	17	-	103	-	2	13	83	-	6	3	44	-	-	3	39	10	-	3	326
사회서비스제공기업비율(%) *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 비율/전체기업 수×100	13.8	-	40.6	0.0	3.4	4.8	42.6	-	2.8	4.0	19.6	-	-	6.7	5.7	11.1	-	7.9	13.9
사회서비스수혜인원 중위값(명) *사회서비스제공형민혼합형	150	-	1,890	-	1,388	615	1,483	-	1,176	425	2,330	-	-	145	907	683	-	2,229	1,262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민혼합형	17	-	103	-	2	13	83	-	6	3	44	-	-	3	37	10	-	3	324
일반인에서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민혼합형	5	-	65	-	1	7	36	-	5	-	31	-	-	2	15	6	-	2	175
취약계층에다많은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민혼합형	16	-	65	-	2	12	71	-	3	3	24	-	-	3	30	9	-	3	241
일반인에다많은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민혼합형	1	-	38	-	-	1	12	-	3	-	20	-	-	-	9	1	-	-	85

<부 표 2> 표준산업분류별 사회적 성과(2019)

구분	간접업 간접업 (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 (P)	금융 및 보험업 (K)	농업 임업 및 어업 (A)	도매 및 소매업 (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숙박 및 음식점업 (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운수업 (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D)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하수, 폐기 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부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S)	전체
이사회 활용기업 수(개소)	115	1	217	-	53	239	184	5	195	68	194	12	3	41	578	82	58	33	2,078
이사회 활용기업 평균 개회 건수(회)	29	20	30	-	3.3	34	41	28	31	30	29	27	10.3	27	32	26	41	30	32
기타회의 활용기업 수(개소)	38	-	96	1	18	79	87	1	61	22	73	5	2	12	222	24	13	11	765
기타회의 활용기업 평균 개회 건수(회)	34	-	23	20	24	28	31	20	24	25	28	30	50	26	30	19	21	22	28
사회적 목적채투자기업 수(개소)	76	1	113	-	33	152	93	2	127	29	84	8	3	27	412	58	44	17	1,279
사회적 목적채투자금액평균(천 원)	79,959	8,447	74,128	-	34,908	169,392	141,304	87,424	77,574	45,284	41,431	114,904	22,544	76,508	82,835	50,584	139,663	34,742	90,831
일자리제공채투자기업 수(개소)	18	-	36	-	9	48	26	1	31	9	17	-	-	11	132	16	10	6	370
일자리제공채투자금액평균(천 원)	80,222	-	48,500	-	55,483	41,119	124,901	40,800	76,920	78,135	33,899	-	-	44,187	82,144	55,687	83,687	21,840	69,747
사회서비스제공채투자기업 수(개소)	30	1	72	-	14	54	46	-	52	18	45	1	3	11	145	22	6	10	530
사회서비스제공채투자금액평균(천 원)	85,012	5,299	72,520	-	9,215	238,917	127,266		13,988	14,167	31,313	350	3,105	55,777	22,999	27,352	6,060	21,943	63,899
성과급제공채투자기업 수(개소)	54	1	68	-	19	86	62	1	72	18	50	2	1	19	246	41	34	9	783
성과급제공채투자금액평균(천 원)	15,669	3,148	15,338	-	15,805	27,120	45,574	102,548	79,592	8,656	16,367	140,268	1,400	33,021	40,689	23,254	122,864	14,113	38,741
지역사회채투자기업 수(개소)	45	-	42	-	16	92	49	2	71	19	22	5	2	12	234	33	35	12	691
지역사회채투자금액평균(천 원)	20,443	-	4,134	-	7,263	44,537	10,864	15,750	12,563	6,635	16,760	7,624	25,958	11,892	12,952	7,645	20,154	2,501	16,656
기타채투자기업 수(개소)	16	-	20	-	8	29	12	-	18	6	11	2	1	8	93	11	11	3	249
기타채투자금액평균(천 원)	19,777	-	9,461	-	13,388	153,196	56,807	-	6,670	12,096	27,980	300,115	5,000	24,499	74,303	21,402	35,382	27,707	58,862

<부표 3> 표준산업분류별 경제적 성과(2019)

구분	건설업 (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 (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인대업(L)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 (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숙련 서비스업(S)	전체
매출액평균(천 원)	1,224,004	241,339	527,025	446,072	922,259	6,104,129	1,888,189	1,002,410	1,595,810	786,396	459,906	2,437,600	729,046	872,276	2,394,934	978,781	2,498,175	379,768	2,048,935
매출액증위값(천 원)	837,021	241,339	263,181	446,072	499,575	671,075	873,374	432,507	595,676	245,512	299,150	920,166	414,275	514,920	939,895	464,183	2,722,552	238,678	566,396
공공시장매출액평균(천 원)	1,047,369	-	463,567	368,188	572,907	1,217,393	1,588,877	-	922,759	206,032	261,661	3,975,682	333,945	499,997	1,991,606	351,353	2,703,652	260,154	1,208,120
공공시장매출액증위값(천 원)	831,920	-	164,978	368,188	185,688	238,377	744,847	-	338,780	81,013	137,832	489,312	333,945	183,253	481,414	251,327	3,215,644	150,000	318,069
민간시장매출액평균(천 원)	435,312	241,339	264,666	77,884	787,517	6,199,880	1,152,875	1,002,410	998,946	720,417	283,546	856,026	1,519,247	556,313	1,146,921	765,007	1,109,580	256,439	1,441,911
민간시장매출액증위값(천 원)	231,409	241,339	140,071	77,884	442,227	476,418	388,051	432,507	268,579	188,687	146,849	688,119	1,519,247	348,329	436,530	221,409	553,560	166,631	287,774
영업이익평균(천 원)	63,001	31,363	-28,370	-389,331	25,996	70,052	-26,762	-181,133	13,633	-23,343	-45,324	15,439	183,462	41,426	14,099	-1,814	122,381	-84,997	9,183
영업이익증위값(천 원)	29,971	31,363	-11,311	-389,331	11,511	1,848	-1,768	-36,988	5,464	-12,254	-15,440	478	69,586	15,592	13,454	6,264	50,559	-21,875	3,000
당기순이익평균(천 원)	71,868	62,738	9,850	-364,029	37,428	72,424	58,635	-163,446	30,631	8,373	1,839	29,961	257,978	43,770	75,285	42,194	122,964	-2,151	49,333
당기순이익증위값(천 원)	36,843	62,738	2,905	-364,029	17,822	7,878	22,300	-22,587	14,438	2,259	2,662	12,281	257,978	24,742	25,710	9,567	30,095	7,012	13,664
매출원가평균(천 원)	931,987	-	250,953	913	761,551	5,528,119	665,024	445,921	1,198,597	474,119	158,176	3,771,543	951,557	237,975	1,947,820	788,558	1,210,218	131,265	1,974,808
매출원가증위값(천 원)	581,778	-	40,598	913	281,812	404,730	105,559	58,341	110,491	87,919	40,174	901,946	951,557	137,190	682,720	267,063	427,835	36,571	339,451
매출원가비율증위값(%)	72.1	-	25.7	0.2	63.7	59.1	28.2	42.1	27.4	39.1	28.9	67.9	62.6	26.2	79.7	44.5	56.0	31.1	60.0

<부표 3>의 계속

구분	건설업 (F)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 (G)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숙박 및 음식점업 (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운수업(H)	차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하수, 폐기 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S)	전체
매출원가비중위값(%)	73.7	-	18.7	0.2	73.3	65.0	15.4	30.2	15.3	32.6	17.7	77.8	62.6	23.6	75.9	47.6	76.9	18.2	64.3
판매관리비평균(천 원)	465,172	209,976	472,170	834,490	292,965	760,642	1,738,013	1,157,664	1,152,459	442,982	486,729	2,182,988	511,596	713,998	763,381	663,008	1,985,815	407,782	813,967
판매관리비중위값(천 원)	293,324	209,976	267,481	834,490	225,474	270,671	816,988	404,100	498,525	187,462	331,370	794,132	413,145	477,705	374,304	414,365	1,463,523	229,777	983,734
영업외비용평균(천 원)	15,164	-	12,567	32,766	17,250	81,425	17,509	38,910	20,767	14,313	10,687	17,855	140,131	29,527	56,219	16,516	41,965	6,127	36,278
영업외비용중위값(천 원)	7,380	-	2,673	32,766	10,391	7,955	4,400	20,715	6,176	2,403	2,716	4,523	58,001	6,119	12,623	7,125	28,494	3,534	6,850
노무비평균(천 원)	305,927	116,091	262,162	484,225	206,301	460,701	1,334,021	457,500	1,070,540	377,815	203,750	473,874	215,529	335,064	457,086	356,336	1,466,741	326,808	541,697
노무비중위값(천 원)	231,666	116,091	155,029	484,225	161,984	187,166	640,033	172,666	349,162	135,436	143,936	321,891	255,804	215,050	278,341	202,685	1,588,346	206,084	223,235
노동생산성평균(천 원)	165,812	80,446	61,003	37,173	130,659	190,957	39,770	89,256	55,902	45,212	76,891	273,562	150,670	96,233	128,235	87,682	101,186	38,000	105,016
노동생산성중위값(천 원)	148,483	80,446	41,832	37,173	71,113	98,775	25,543	87,086	43,035	35,847	55,074	66,183	168,815	79,670	84,682	70,654	94,275	33,666	61,736
일반인근로자 수명	412	2	1,381	11	178	2,140	4,669	45	2,133	524	1,017	89	4	293	4,329	786	839	154	18,990
일반인근로자임금평균(천 원) *임종별 전체평균	2,371	2,617	1,770	2,311	2,108	2,221	1,751	2,916	2,564	2,090	1,889	2,290	2,266	2,510	2,510	2,164	4,816	1,986	2,275
일반인근로자근로시간평균(시간) *임종별 전체평균	38.0	40.0	31.3	40.0	38.6	37.2	30.8	36.2	37.4	35.9	34.8	33.2	40.5	37.6	38.6	38.9	40.0	37.6	35.6

<부표 4> 지역별 일반 현황(2019)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개소)	450	112	81	144	108	65	83	12	400	125	101	98	139	123	146	113	52	2,352
사회적기업 비율(%)	19.1	4.8	3.4	6.1	4.6	2.8	3.5	0.5	17.0	5.3	4.3	4.2	5.9	5.2	6.2	4.8	2.2	100.0
정부지원금 평균(천 원)	102,452	107,186	116,109	75,897	135,894	140,550	130,442	225,498	171,421	92,635	95,105	124,730	133,201	129,294	185,074	89,639	258,392	128,949
정부지원금 중위값(천 원)	56,745	69,256	65,967	54,389	69,969	94,420	92,387	106,282	61,106	56,557	50,758	64,046	81,320	97,140	134,773	58,924	102,281	68,477
기업후원금 평균(천 원)	170,775	62,689	46,153	18,688	42,383	18,719	29,583	-	67,773	13,989	56,328	43,476	41,871	9,403	41,861	40,715	38,625	94,378
기업후원금 중위값(천 원)	32,087	10,000	23,538	15,725	26,619	6,000	22,400	-	19,411	6,900	50,000	12,000	46,988	9,403	31,715	8,412	25,106	22,168
모기관지원금 평균(천 원)	57,150	44,033	743,000	5,714	83,980	171,345	51,986	-	316,885	58,836	21,921	169,432	47,000	90,000	17,096	13,034	94,000	120,245
모기관지원금 중위값(천 원)	31,000	31,000	743,000	3,770	41,844	171,345	7,171	-	47,240	14,957	21,921	169,432	4,000	90,000	17,096	13,034	70,000	32,000
일반기부금 평균(천 원)	38,189	17,340	11,065	10,790	21,540	25,040	12,278	59,002	32,767	21,994	23,963	22,161	26,988	8,995	23,507	20,735	44,074	28,077
일반기부금 중위값(천 원)	15,611	10,302	5,825	6,310	11,785	14,022	6,160	45,037	9,614	12,948	17,945	11,330	18,800	7,798	8,488	16,083	5,773	11,719
기타지원금 평균(천 원)	47,804	26,648	23,222	10,790	18,484	9,990	14,297	33,883	21,587	19,641	34,672	17,065	13,461	18,290	21,986	16,544	25,053	25,465
기타지원금 중위값(천 원)	4,417	3,014	2,863	3,029	4,524	4,391	1,804	5,304	3,691	5,913	5,493	4,995	2,989	7,288	3,005	3,890	7,332	3,885
총지원금 평균(천 원)	167,316	136,666	144,517	74,667	148,161	145,930	134,667	257,443	182,491	100,246	115,233	138,881	134,398	129,852	199,757	102,893	270,404	150,336
총지원금 중위값(천 원)	61,998	82,250	84,410	53,549	73,446	86,259	93,369	126,811	62,602	61,407	51,482	70,679	77,564	97,140	147,675	66,369	106,910	72,109
정부지원금 비율(%) *전체업종별 지원금 비율	52.9	73.5	75.3	86.1	87.0	85.9	86.1	80.3	78.2	86.6	69.2	85.2	89.7	97.7	88.1	80.2	85.8	76.5

<부 표 4>의 계속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경부지원금 비율(%) *개발기업지원금 비율의 평균	75.1	80.0	84.4	83.6	87.8	85.6	88.6	84.5	82.1	87.3	75.5	84.5	89.2	97.9	88.4	83.3
취약계층유급근로자 수(명)	7,423	1,304	543	1,631	914	451	804	418	7,999	1,445	885	1,011	1,250	791	1,441	3,0073
취약계층유급근로자 수 평균(명)	166	11.7	6.7	11.4	8.5	7.0	9.9	34.8	20.0	11.7	8.8	10.3	91	64	10.0	12.9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임금(천 원)	1,543	1,498	1,588	1,544	1,569	1,627	1,540	1,461	1,855	1,927	1,485	1,647	1,712	1,787	2,156	1,607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근무시간(시간)	30.0	30.1	32.5	30.9	31.3	33.5	31.5	31.1	31.8	34.6	30.3	32.4	31.8	35.4	35.2	31.6
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횟수합계	60	26	4	17	16	10	16	0	53	18	15	9	24	21	15	9
사회서비스제공기업비율(%) *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 비율/ 전체기업 수×100	13.3	23.2	4.9	11.8	14.8	15.4	19.3	0.0	13.3	14.4	14.9	9.2	17.3	17.1	10.3	13.9
사회서비스수혜인원 중위값(명) *사회서비스제공횟수합계	2,156	695	26,584	590	1,856	466	1,322	-	1,551	878	567	6,584	1,128	615	1,581	1,262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횟수합계	60	26	4	17	16	10	16	-	53	17	15	8	24	21	15	9
일반인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횟수합계	38	9	4	6	8	6	15	-	31	8	7	6	12	5	9	8
취약계층에더많은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횟수합계	41	21	2	14	12	8	4	-	41	13	14	6	20	19	8	5
일반인에더많은사회서비스제공기업 수(개소) *사회서비스제공횟수합계	19	5	2	3	4	2	12	-	12	5	1	3	4	2	7	4

<부표 5> 지역별 사회적 성과(2019)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이사회 활용기업 수(개소)	391	86	64	131	104	54	70	11	343	117	95	91	131	113	126	103	48	2,078
이사회 활용기업 평균 개회 건수(회)	30	30	36	31	30	32	30	47	36	35	31	29	36	33	32	28	32	32
기타회의 활용기업 수(개소)	162	27	23	47	32	36	19	8	87	34	21	70	76	23	54	25	21	765
기타회의 활용기업 평균 개회 건수(회)	25	32	29	36	26	25	31	26	42	17	26	23	24	20	26	30	30	28
사회적 목적제투자기업 수(개소)	240	6	42	79	83	22	26	6	256	59	68	53	80	67	90	70	32	1,279
사회적 목적제투자금액액평균(천 원)	156,159	43,326	79,365	69,483	74,872	33,687	16,126	167,452	104,229	103,785	58,424	70,000	66,858	34,709	82,924	55,093	54,598	90,831
일자리제공제투자기업 수(개소)	74	0	17	30	22	5	5	3	71	20	11	16	17	13	24	34	8	370
일자리제공제투자금액액평균(천 원)	90,637	-	53,217	48,654	56,823	88,137	20,718	55,874	92,548	56,827	35,083	56,919	85,660	33,156	72,766	42,992	84,198	69,747
사회서비스비스재공제투자기업 수(개소)	62	1	24	42	60	9	15	4	92	33	16	29	25	31	34	46	7	530
사회서비스비스재공제투자금액액평균(천 원)	255,729	156,770	54,752	10,290	42,357	11,231	12,028	42,887	73,666	35,449	24,848	18,585	15,152	8,275	42,618	39,450	47,244	63,899
성과급제투자기업 수(개소)	185	4	18	43	61	9	8	2	152	30	57	34	61	42	36	30	11	783
성과급제투자금액액평균(천 원)	37,364	21,434	21,478	21,611	24,064	16,468	9,210	262,912	54,757	102,503	43,240	31,746	22,044	19,244	54,753	11,421	35,993	38,741
지역사회제투자기업 수(개소)	127	1	19	41	42	10	14	1	153	26	34	24	46	32	61	33	27	691
지역사회제투자금액액평균(천 원)	38,426	3,572	7,349	9,421	16,123	4,985	4,033	51,720	13,011	13,683	8,103	16,376	6,594	9,040	19,088	4,648	12,680	16,656
기타제투자기업 수(개소)	34	2	8	15	15	1	3	1	63	15	17	12	12	17	22	9	3	249
기타제투자금액액평균(천 원)	91,870	6,988	73,547	152,120	18,515	1,100	1,708	88,000	47,948	25,742	26,417	65,926	155,467	31,791	51,607	9,343	1,522	58,862

<부표 6> 지역별 경제적 성과(2019)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매출액평균(천 원)	4,794,466	946,290	881,682	987,556	1,028,521	1,225,403	904,639	2,096,028	2,041,741	1,246,539	1,490,076	1,321,670	1,388,706	1,886,788	1,886,788	1,080,139	1,289,882	2,048,935
매출액증위값(천 원)	670,705	397,561	385,465	389,997	522,135	503,737	440,199	1,125,926	988,617	345,522	560,676	555,598	561,058	649,790	649,790	382,302	774,101	566,396
공공시장매출액평균(천 원)	1,906,780	789,069	627,327	758,986	851,710	601,446	630,016	1,347,942	1,792,782	1,264,607	1,011,060	889,517	719,513	708,120	614,665	617,682	537,381	1,208,120
공공시장매출액증위값(천 원)	358,040	260,970	269,825	223,694	288,722	380,778	146,370	826,556	709,691	263,000	300,467	205,829	292,740	144,894	189,738	203,662	359,736	318,069
민간시장매출액평균(천 원)	3,061,654	471,082	498,608	598,880	565,709	899,037	576,967	1,302,065	889,475	580,684	1,021,431	740,728	994,706	888,532	1,714,388	881,411	1,097,460	1,441,911
민간시장매출액증위값(천 원)	330,051	234,402	201,141	220,300	299,240	255,828	286,775	368,831	326,505	193,487	279,338	307,516	245,827	378,553	445,142	227,385	435,420	287,774
영업이익평균(천 원)	39,485	6,375	-40,067	-45,264	-23,500	-17,686	-23,781	-123,645	31,799	-28,175	6,366	-2,301	60,286	18,857	11,101	27,132	-95,062	9,183
영업이익증위값(천 원)	-2,065	-2,842	-5,587	1,509	7,601	2,870	160	-83,548	15,016	-7,019	-4,427	2,227	5,678	7,530	5,111	8,753	-18,683	3,060
당기순이익평균(천 원)	81,556	35,864	5,338	-49,634	42,875	36,943	18,825	45,327	89,876	27,661	32,637	30,054	80,827	50,577	32,844	43,001	3,431	49,353
당기순이익증위값(천 원)	14,288	7,503	6,411	7,871	15,785	6,051	9,707	24,402	22,882	6,371	11,323	11,251	12,401	20,377	16,275	16,715	10,707	13,664
매출원가평균(천 원)	5,672,706	655,118	842,727	799,374	922,024	1,080,823	739,016	1,312,702	1,489,311	1,246,316	1,252,875	1,088,540	1,029,776	977,890	1,826,296	923,943	1,095,298	1,974,808
매출원가증위값(천 원)	459,328	199,880	282,290	260,413	313,559	297,959	272,866	1,085,762	502,828	186,067	354,238	311,843	323,508	340,037	428,689	332,591	662,802	339,451
매출원가비율증위값(%)	56.3	47.0	62.5	57.1	50.7	57.8	60.1	76.2	57.9	53.0	57.8	56.7	55.6	105.4	62.0	57.9	61.9	60.0
매출원가비율증위값(%)	61.3	47.2	67.2	60.7	54.7	66.7	73.5	80.4	64.4	55.6	67.2	65.1	65.0	68.8	67.1	67.5	66.6	64.3

<부 표 6>의 계속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판매관리비평균(천 원)	1,257,689	587,454	456,398	585,274	545,272	526,644	488,502	1,601,686	1,130,453	533,684	656,173	613,724	708,441	450,035	736,032	545,248	722,558	813,967
판매관리비증위값(천 원)	481,273	294,742	273,775	272,651	391,859	357,026	277,083	605,875	506,041	252,900	316,697	331,485	371,919	233,531	343,065	264,068	490,358	363,734
영업외비용평균(천 원)	60,114	31,943	13,809	42,956	26,921	21,654	17,892	56,649	37,306	17,974	52,380	24,708	25,714	20,408	37,172	23,426	31,714	36,278
영업외비용증위값(천 원)	7,220	4,976	5,445	4,682	7,955	3,612	6,425	18,325	8,383	4,839	5,713	8,386	8,555	6,538	7,457	5,449	15,330	6,850
노무비평균(천 원)	688,814	403,905	340,805	364,163	363,256	359,533	385,708	1,025,719	819,330	567,575	392,091	424,068	444,228	314,967	574,856	392,901	449,871	541,697
노무비증위값(천 원)	256,452	195,165	202,961	178,518	233,538	223,137	207,368	340,606	332,628	170,000	215,236	208,802	232,015	180,835	255,342	189,458	279,420	223,235
노동생산성평균(천 원)	136,019	90,889	80,765	83,218	93,582	107,237	78,282	56,268	104,513	76,223	114,196	96,662	99,849	115,848	113,740	88,934	110,749	105,016
노동생산성증위값(천 원)	75,483	48,933	48,183	54,747	60,687	61,949	50,322	44,331	71,727	49,664	80,288	55,509	65,381	61,691	56,499	42,582	76,771	61,736
일반인근로자 수(명)	5,001	625	420	659	592	478	438	144	4491	1,016	617	717	872	570	1,255	703	392	18,990
일반인근로자인원평균(천 원) *임용월전체평균	2,229	1,899	1,881	1,966	2,265	1,980	1,874	2,051	2,545	2,289	2,215	1,882	2,231	2,267	2,735	1,808	2,471	2,275
일반인근로자근로시간평균(시간) *임용월전체평균	36.3	35.0	34.4	34.7	37.4	33.4	33.7	34.9	34.6	37.9	34.9	33.0	36.0	38.5	38.1	33.0	37.6	35.6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0), 20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6),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 관계부처합동(2018),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
- 길현종·류성민·임창규·배정희(2013),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종·이경희·이영수·안승재·김성용(2018), 2017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종·이경희·이영수·김성용·안승재(2019), 201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한민국정부(2020), 100대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2020a), 자활사업안내.
- _____ (2020b),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 중소벤처기업부(2019), 소셜벤처 육성 본격나선다,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a),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 _____ (2020b),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
- 행정안전부(2020),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likms.assembly.go.kr

www.coop.go.kr

www.kdissw.or.kr

www.mois.go.kr

www.socialenterprise.or.kr

www.seis.or.kr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